

MAXIM



KOREA

MALIN AKERMAN

<왓치맨>의 말린 애커맨
MAXIM이 원지 제대로 보여준다.

MOTOR

자동차도 예뻐야 하는 더러운 세상
토요타86으로 드리프트 가능 확인
ICE-T와 링컨 MKT 타운카 타고
뉴욕 질주

PERFECT SUMMER

해변 작업 지도:

해운대 접수, 광안리 뽕 뽑고, 대천 고 고!

HOT SEX PLACE:

록 페스티벌에서 쉬운 여자 찾기. 어렵지 않아요.

겨드랑내 방지 금지: 에디터 추천 데오도란트

혹서기 독서법: 더위 이기는 책, MAXIM만 보지 말고.

타투 지우는 법: 아냐, 전 여친 이나설 어쩔거?

돈 안 들이고 근육 키우는 법

강남역 앞 여자들의 미니스커트 심리학

선글라스 하나로 꽤 괜찮은 남자 되는 법

내년엔 여기서!

캐리비안 베이 SUMMER WAVE FESTIVAL 후기

곽현화

화보 콘셉트를 묻는 그녀의 질문에
에디터는 "BITCH"라고 대답했다.
누구라도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을 그 대답에 곽현화는
웃으며 쿨하게 OK 사인을 날렸다.
MAXIM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기에
때론 고달픈 그녀, 곽현화.

내가 잘못했..

2012년 8월호
정가 5,600원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the

MAXIM

Party*

2012. 8. 18. SAT

@Club ELLUI

COME AND PLAY WITH MAXIM GIRLS

SUMMER CLOSING PARTY

ENTRANCE: 30,000 WON
NO MINORS ALLOWED

OPEN 10 PM
DRESS CODE: MORE SKIN, LESS CLOTH

RAON

줄 서는 거 싫어하면? WWW.MAXIMKOREA.NET 에서 온라인으로 티켓 구매 
PARTY SPONSORSHIP & VIP TABLE RESERVATION: 02-323-1182 / partner@maximkorea.net


MAXIM
KOREA

CONTENTS

CIRCUS MAXIMUS

- 16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군용 수송 로봇
- 18 해변 작업 지도: 이거 한 장이면 여름 바닷가를 접수할 수 있다고?
- 20 본격 휴가철 맞이! 돈 안 들고 근육 키우는 법과 타투 지우는 법. 전 여친 이니셜을 새긴 채 해수욕장에 갈 순 없잖아?
- 22 자취방 비빔백서: 비빔면에 뭘 넣어 먹어야 가장 맛있을까? 쌀장? 소주?
- 26 취업이 안 된다고? MAXIM이 당신의 진로를 정해준다. 닥치고 따라와.

HISTORY

- 28 굽시니스트의 교양 역사 만화: 살내에 대한 역사적 탐구

RATED

- 30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 사족 달기
- 32 앤 해서웨이, 가슴을 열어라!
- 34 필립 K. 딕의 영화도 리콜이 되나요?
- 36 그 이름만큼이나 간절한 '가을방학'의 실내악 외출
- 39 여름 더위 이기는 책과 광현화의 20대 수컷 필독서

HOT SAUCE

- 42 하이레그 수영복을 입은 미녀의 화끈한 인생 상담

STUFF

- 44 반짝반짝 눈이 부셔, 다이아몬드 티어스
- 46 빈티지 기어: 비디오 가게의 추억

FIGHT

- 49 파퀴아오의 빼앗긴 벨트에도 봄은 오는가.
- 50 로드FC 008: 짐승들의 라이벌 매치, 그 격렬했던 죽병 맛의 향연이 낳은 초대 챔피언 강경호와 로드FC 부대표 박상민을 만나보자.
- 56 패배를 모르는 남자: UFC 챔피언 앤더슨 실바

MOTOR

- 60 이제는 자동차도 예뻐야 하는 더러운 세상
- 62 토요타86과 함께 F1 서킷에서 드리프트 배우기
- 66 ICE-T와의 뉴욕 드라이브! 링컨 MKT 타운카 시승기



+ 86 MALIN AKERMAN

MAXIM이 사랑하는 여배우
말린 애커맨!
당신의 화끈한 입담과 넘치는
매력을 누가 말려?

CONTENTS

DEPARTMENTS



98 곽현화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녀를 보여
주겠다. 아, 물론
바나나 이야기도 함께.

LONDON OLYMPIC

- 69 국대 사진 응원전 (경고: 구자철 선수에게는 이 페이지를 보여주지 말 것)
- 84 올림픽 게임: 우리 방구석에서 달린다!
- 108 올림픽 기록 열전: 알아봤다가 여친에게 잘난 체하자!
- 116 영국 맥주 기행: 올림픽과 치맥
- 144 한국 승리 기원! 영국 미녀를 벗겼다.

MISS MAXIM

73 미녀가 돌 씹이나!

GAME

80 그녀들의 은밀한 취향: 킨스블레이드

HORROR

94 신체 강탈자의 침입:
내가 니 애미로 보이나?

FROM MAXIM INDIA

120 인도 MAXIM 에디터가 반한
그녀의 정체는?

MILITARY

124 전 세계가 지리는
국산 주먹대장 K-2 흑표

MAXIM 여신 발굴 프로젝트

128 사과보다 상큼한 신인 아이돌 타히티
신지수양과의 아침 데이트. 아 눈부세!

EAR HEAVEN

134 에디터의 귀 청소방 체험기:
일본에서 건너 온 최신 휴게 문화를 소개
한다. 몰래 잠입해서 사진 찍다 걸려 반신
불수 될 뻔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대공개!

LOVE

140 리얼 스토리,
올 여름 페스티벌에서 생긴 일

PARTY

150 SUMMER WAVE: 일기예보가 맞았다.
주말 내내 비가 왔다. 그래서 갔다.
아직 모르니? 페스티벌은 비 맞으면서
놀아야 제대로라는 거.

STYLE

152 이제 겨드랑이 냄새는 그만!
에디터가 추천하는 데오도란트

154 강남역 앞 그녀들이 알려주는
미니스커트 심리학

156 개나 소나 다 쓰는 뽀뽀 선글라스는
쓰레기통에 넣어라!

FROM A TO B

OR NOT

TO B?



BE MINI.

THE NEW MINI COUPÉ & ROADSTER. ANOTHER DAY. ANOTHER ADVENTURE.

새로운 MINI 쿠페와 MINI 로드스터는 세련된 외관에 MINI만의 고유한 고-카트 필링(Go-kart feeling)이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더 납작해진 후미와 낮아진 차체는 더욱 스타일리시하고 다이내믹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MINI 로드스터와 쿠페가 가진 놀라운 드라이빙 능력으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보세요. 지금 가까운 MINI 전시장에서 제임스 본드처럼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시승을 경험하세요. www.MINI.co.kr



www.facebook.com/MINIKOREA.kr

» TALK TO MINI.

전시장 : 강남 02.549.5400 | 목동 02.2646.4600 | 용산 02.3409.5400 | 잠실 02.469.5400 | 분당 031.709.4600 | 일산 031.8076.4600 | 인천 032.213.4600 | 대전 042.637.5400 | 광주 062.370.5900 | 대구 053.745.7900 | 부산 051.747.8100 | 브랜드아웃렛 : 부천 032.285.4600 | 창원 055.237.8040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차종명: MINI Cooper Coupé (스틸트르너 6단 자동변속기/1,598cc/1,135kg) · 연비: 15.2km/l · 등급: 1등급 · CO₂ 배출량: 154g/km MINI Cooper S Coupé (스틸트르너 6단 자동변속기/1,598cc/1,190kg) · 연비: 14.5km/l · 등급: 2등급 · CO₂ 배출량: 162g/km
차종명: MINI Cooper Roadster (스틸트르너 6단 자동변속기/1,598cc/1,160kg) · 연비: 12.7km/l · 등급: 3등급 · CO₂ 배출량: 136g/km MINI Cooper S Roadster (스틸트르너 6단 자동변속기/1,598cc/1,205kg) · 연비: 12.4km/l · 등급: 3등급 · CO₂ 배출량: 140g/km

* 이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표준 연비로서 도로, 기상상태, 운전방법, 차량정비 및 차량의 노후정도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BRAUN



Simply time

브라운 | (주)거노코퍼레이션
www.brauntime.co.kr | 02.3397.7100
공식소핑몰 유로타임 | www.eurotime.kr



[백화점] AK PLAZA 평택_신우 (031-646-6139)
NC 백화점 송파_신우 (02-2157-5236) / 순천_신우 (061-720-5124)
익산_신우 (031-900-5163) / 강서_신우 (02-2867-9508)
디류브백화점 거제_신우 (055-680-0193)

MAXIM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주임 김희성 alicem@maximkorea.net
주임 송중민 jmm@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유승민 sm@maximkorea.net
사원 손안나 anna@maximkorea.net
사원 이진영 jy@maximkorea.net
사원 조웅재 wj@maximkorea.net
사원 서현우 july@maximkorea.net
사원 이영환 lyh@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김대영 storm@maximkorea.net
이용수 yong24@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임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주임 신속희 ssh@maximkorea.net
주임 천은경 eun@maximkorea.net
일러스트 주임 전영준 ziroqoo@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팀장 김진욱 14k@maximkorea.net
매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매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사원 안진호 jh@maximkorea.net
사원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토크 oress@town.com
팀장 서경민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가수

포토그래퍼 실장 김명석

포토그래퍼 실장 박 울

포토그래퍼 팀장 김도훈

어시스턴트 오준섭

CIRCULATION / 유통

승주출판유통
대표 이용관

PRINTING / 인쇄 원색분쇄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원순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자용 / 이사 원혜진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3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2년 8월호 통권 제28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án Pittelli

AUSTRALIA
Santi Pintado

BULGARIA
Alexander Zhekov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GERMANY
Mike Bleibtreu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ITALY
Paolo Gelmi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íaz Rojo

POLAND
Krzysztof Papliński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RUSSIA
Sasha Malenkov

SERBIA
Nebojša Prijčić

SOUTH KOREA
Young-Bee Lee

SWITZERLAND
Boris Etter

THAILAND
Sirote Petchjamroansuk

UKRAINE
Sasha Malenkov

UNITED KINGDOM
Stuart Messham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5 STAR SAFETY

MINI COUNTRYMAN 2.0 DIESEL

7 STAR EXCITEMENT.



MINI COOPER D



BE MINI.

THE NEW MINI COUNTRYMAN 2.0 DIESEL.

- » 2012 DAKAR 랠리 우승.
- » 2011 WRC RALLY CAR OF THE YEAR.
- » 2011 수입차 SUV 판매 1위.
- » EURO NCAP ★ ★ ★ ★ ★



» TALK TO MINI.

권시경 : 강남 02.549.3400 | 목동 02.2646.4500 | 읍산 02.3409.3400 | 정실 02.469.3400 | 분당 031.709.4600 | 일신 031.8076.4600 | 인천 032.213.4600 | 대전 042.637.3400 | 광주 062.370.5900 | 대구 053.745.7900 | 부산 051.747.8100 | 브랜드라운지 : 부천 052.285.4600 | 창원 055.257.8040

정수영인 표준 편에 포함됨 MINI Cooper D 2.0 Countryman (SA형트랜스 6단 자동변속기/1995cc) | 339kg | 복합연비: 15.1km/ℓ (도시도로 주행 연비: 17.6km/ℓ) · 최고: 280km/h · CO₂ 배출량: 130g/km
MINI Cooper 2.0 Countryman (SA형트랜스 6단 자동변속기/1995cc) | 348kg | 복합연비: 14.4km/ℓ (도시도로 주행 연비: 16.3km/ℓ) · 최고: 280km/h · CO₂ 배출량: 146g/km
MINI Cooper 2.0 Countryman ALL4 (SA형트랜스 6단 자동변속기/1995cc) | 400kg | 복합연비: 13.6km/ℓ (도시도로 주행 연비: 17.4km/ℓ) · 최고: 280km/h · CO₂ 배출량: 146g/km

* 이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표준 연비로서 도로, 기상상태, 운전방법, 차량질비 및 차량의 노후정도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LETTER FROM MAXIM

10년 전에 '섹시하다'라는 말은 성희롱이었으나, 지금은 칭찬이 되었다. 10년 전에 남자의 식스팩이 보이면 여자들은 의식적으로 '망측하다'며 고개를 돌렸지만, 지금은 환호성을 지르고 휘파람을 분다.

이젠 제법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성(性)을 소재로 한 유희를 즐겁게 받아넘길 줄 아는 유머 감각이 생겼다.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성적인 소재를 꼬집어내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고, 섹시한 것을 보고 '동하는' 자신의 감정 자체를 부정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기 꺼려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다.

MAXIM을 정의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하나는 '성(性)적인 감정을 수치스러워 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남자'다.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어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본질적으로 '천박한' 것일 수 없다.

그렇게 세태가 바뀌면서 MAXIM을 만드는 일도 많이 수월해졌다. MAXIM을 수식하는 단어는 어느덧 '천박한 잡지에서' '솔직한 잡지'로 바뀌어 있었고, '난 MAXIM같은 잡지는 보지 않는다'며 학을 떤던 독자도 10년이 지난 지금은 '잡지는 MAXIM을 즐겨 본다'고 말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MAXIM을 웃으며 읽을 줄 아는 당신은 '인간의 모든 자연스런 감정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가끔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지금이 2012년인지 90년대인지 눈을 의심하게 한다. 짧지도 않은 차마를 입은 연예인 사진을 놓고 'OOO 초미니 스커트, 엉덩이 다 보이겠네', 'OOO 왜 이러나' 류의 유치한 기사 문구가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이러니 기자들이 욕을 먹지) 자칫 가식 없는 말이라도 했다간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 된다'며 사과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론리 아일랜드'의 히트곡 〈I just had sex〉에 제시카 알바 같은 슈퍼스타가 막 섹스를 마친 모양새로 카메오 출연해도 그 코믹함을 이해하고, '똥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야한 농담 한 마디 했다고 마녀 사냥을 하고, 온갖 성적 비하에 노출증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상처를 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도 있다.

이번 8월호에 MAXIM과 함께 작업한 광현화가 그랬다.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결여된 기자와 몇몇 키보드 워리어들은 바나나 먹는 사진 한 장을 놓고 그녀를 걸레에, 미친 여자라고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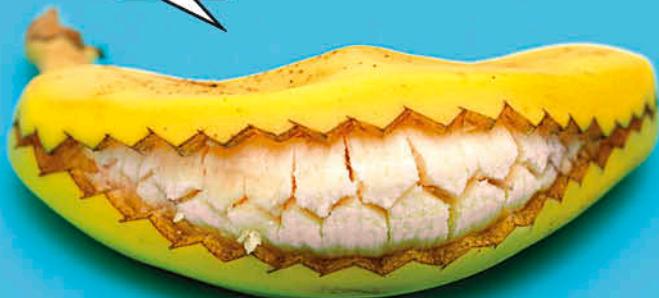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한다. 그녀의 트위터, 그녀의 셀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끊임없이 화제를 뿌린다는 게 그 증거다(욕이 많아 문제지). 그녀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안 본다. 무관심하고 욕도 하지도 않는다. 공포 영화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공포 영화를 안 보는 것과 같다. 공포 영화를 싫어한다면서 공포 영화를 찾아서 다 보고 욕하는 사람 본 적 있나?

성숙하지 못한 건 그녀가 아니다. 그녀를 훑쳐보며 느끼는 자신의 욕망이 부끄러워 그녀에게 돌을 던지면 그 욕망을 들켜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에스메랄다를 향한 욕망을 부정하기 위해 그녀를 처형하는 노틀담의 신부처럼 말이다.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 중 이성을 향한 성적인 즐거움을 유독 금기시하는 우리나라를 개방 사회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아마 여자에게 터번을 두르게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처벌하는 이랍 국가 발 뉴스를 보는 우리의 기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또 다시 10년이 지나면 그녀의 바나나를 놓고 벌인 갑론을박이 얼마나 촌스러운 짓이었는지 떠올리며 다들 멧쩍은 쓴웃음을 짓게 될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인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곳곳이 엔터테인먼트로서 자신이 가진 신조를 굽히지 않는 광현화의 역할은 미디어 세계에서 MAXIM이 지향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굳이 그녀가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녀만의 '철학'이 있을 거라 넘겨짚는 건 아니다. 'B급' 문화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을 떳떳히 표현하는 모든 이들에게 MAXIM은 동맹 의식을 갖고 있으며, 야한 농담과 발칙한 상상을 음침한 골방에서 꼬집어내어 당당한 줄길거리로 만들어가는 모든 엔터테인먼트들에게 MAXIM은 영원한 지원군이다.

여자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했을 법한 '똥똥' 욕망을 해학으로 풀어낸 광현화의 MAXIM 화보 〈BITCH〉(p.98)를 보고 크게 한 번 웃길 바란다.

나야 좋았지 뭐



2012년 8월 수석 에디터

유승민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연 세 정] 제주충무민세점 (064-780-7671)
 [백 화 점] 롯데백화점 노원_더와치스 (02-950-2164) / 잠실_더와치스 (02-2143-1922) / 인천_워치리움 (032-450-2153) / 전주_더와치스 (063-289-3191) / 대전_타임마케팅 (041-601-2253) / 청주_타임마케팅 (043-219-9108) / 부산광역시_워치리움 (051-678-3155) / 신세계백화점 인천_타임마케팅 (032-430-1486) / 광주_타임마케팅 (062-360-1291) / 천안_메진시계 (041-640-5081) / 대구백화점 더와치스 (053-423-1234) / AK PLAZA 수원_더스시계 (031-240-2199) / 분당_스타일워치 (031-781-8194) / 팜백_스타일워치 (031-646-6139) / 구로_스타일워치 (02-839-5128) / 원주_스타일워치 (033-811-5535) / NC백화점 송파_신우 (02-2157-5236) / 순천_신우 (061-720-5124) / 일산_신우 (031-900-5163) / 불광_신우 (02-350-8478) / 디큐브백화점 가재_신우 (055-680-0193) / 세이백화점 대전_글로벌타임 (042-257-7745)
 [만 매 처] 서울(02) 현대아이파크 헤피타임 (2012-0625) / 와와치 (537-8977) / 전진상사 (764-4716) / 타임거든 (324-6272) / 타임머신 (6388-2927) / 타임사모 (6373-7743) / 타임21 (3424-7063) / 타임월드 (3132-4108) / 패션존 (3398-7527) / 프로워치 (779-6964) / 경기(031) 시계상사 (441-0158) / 사문주일리 (463-9788) / 유빈 (658-6883) / 타임루트 (487-9057) / 타임24 (931-5555) / 티파니 (441-0158) / 타임플러스 (371-6850) / 경기(032) 대성 (325-7467) / 뽕끼움 (662-0686) / 카시오프우 (502-7138) / 광주(062) 타임엔젤 (222-3114) / 청주 보보스워치 (010-5494-5915) / 북워치 (223-1333) / 대구(053) 광주나라 (256-0975) / 골드8워치 (424-4442) / 그리니치 (255-6165) / 대백프라자 (254-3977) / 레즈 (425-0157) / 신세계점스택 (566-3316) / 휴일리아 (428-2688) / 헤미타임 (428-3086) / 부산(051) 명성시계-평북 (253-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신창 (253-5354) / 월드타임 (245-8359)



Letters

새 손이 정기 구독 버튼으로 가 있더군요. 러시아판도 가끔 사다 보는데 정말 핫합니다. 그래도 내용은 한국판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잡지 잘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MAXIM 파이팅! 모바일 사연 박진우

▶ 저희 편집부에도 러시아판 MAXIM을 몇 권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볼 때마다 저 또한 아랫도리가 살아 있음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물론 MAXIM 또한 '우리 것은 우리가 세운다'는 신토불이 정신을 잊지 않고 늘 정갈한 마음으로 국산 총각 버섯들을 골추세우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수총각 버섯

▶ 편집부의 농간? 소인은 MAXIM을 매달 보는 스물세 살의 남자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벤트에 당첨되어 연극 표를 받게 되었다고. 그러나, 이는 MAXIM 편집부의 농간이었소. 월요일에 등기로 받은 표가 목요일 공연이라니! 마치 'ㄱ' 하면 '아잉♥' 하고 따라올 여친 있는 사람에게나 쓸모 있는 물건이었다고. 심지어 수업시간이랑 겹치다니... 연극 표로 나랑 밀당을 하지는 게요?

모바일 사연, 비밀
▶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태어나세요. 편집부의 모 여성 에디터가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조린 명언을 첨부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 밀당은 어려워 나에게네 다섯 살 연하의 암컷 양 한 마리가 있소. 어리다고 내가 몸보신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꾸 나에게 밀당을 시전하는 것 같소. 아직 사귀는 건 아니지만 스킨십은 포옹까지 해봤소. 근데 이 아이가 날 좋아하는 건지 그냥 오빠로 생각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소. 어떻게 알 방법이 없겠소?

이메일 사연, 배수환
▶ 다음은 키스겠지요? 허를 자른스레 그녀의 입안으로 전승하고 기다리세요. 만약 격렬한 화신이 온다면 게임 끝입니다. 혹시 수신 거부라도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저 농락당한 겁니다.

▶ 파티에서 만난 에디터 반안트리에서 열린 MAXIM 파티에 갔다가 방금 막차 타고 들어온 애독자입니다. 맨날 입맛만 다시다 실제로 가 보니 역시 '뽀타스틱' 합니다. 여기저기 퍼져 있는 초 현실적인 몸매 탐구 생활을 하던 중, 어디서 많이 보던 뒤탈을 발견! 바로 5월호 표지에서 본 그 뒤탈이었습니다. MAXIM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맥주도 공짜로 얻어먹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상냥하고 핫한 에디터님의 팬 서비스와 반안트리의 남만이 함께했던 MAXIM 파티, 10점 만점에 10,000,000,000,000,000,000점을 드

리고 싶네요. 이메일 사연, 서준
▶ 뒤탈만으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니 엄청난 능력을 지니셨군요. 다음부터는 저희 남성 에디터들도 핫한 T자 수영복을 준비해갈 테니 숨이 턱턱 막히는 찰진 뒤탈 또한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지요.

▶ 나타샤 이웃사촌 러시아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처음엔 아이패드도 하나하나 사 보다가 어느





ALBA

POSITIVE & SMART

ALBA 직영매장 세이코부티크 스타시티점 02454-8400 / 갤러리아 콩코스점 02390-7322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 면세점 롯데 / 신라 / 워커힐 / 동화 / 파라다이스 / J.C / J.TO / K.TO • 백화점 롯데 / 현대 • 수입원 삼성시계(주) 02511-3182
ALBA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화지(771-7033) / 롯데본점(772-3124) 충로 타임존(737-3627) / 노블워치(745-8789) / 정신사(741-967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서초 시계독방(6282-2777) / 신비파(532-2121) 송파 롯데잠실(2143-7282) / 타임존(411-0829) 강동
골드시계(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1) 관악 타임(6299-7166) 구로 시계백화점(21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68-0871) 광진 TM타임(3424-7073) / TM
시계백화점(3424-0793) 성북 해시계(2117-1755) 노원 도라시계(971-5334) / 롯데노원(950-2139) 인천(032) 남동 롯데인천(450-2153) / 청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특목(662-2026) 부평 롯데부평(452-2168) 경기(031)
고양 티파니(831-5300) / 롯데일산(909-3293)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86) / 타임(728-5370) / 멘타임(707-1289) 수원 AK프라자(240-2199) / 텐어클럽(201-7100) / 지지컬렉션(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자(441-1014) /
시계상자(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685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사(245-1230) / 불광(245-7965) / 롯데광복(678-3155) / 타이머블(919-4704) 해운대구 롯데센텀(730-3235) 부산진구 롯데세면(810-4138) / 플라이(922-2068) /
프로포즈(818-6573) / 동해시(844-5551) 울산(052) 금부당(96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창원(279-3119)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주얼리아(428-2668) / 바젤(425-8707) / 동아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86)
/ 엘가(255-6940) / 젠가(428-0338) / 러츠(425-0157) / 삼성사(422-3002) 북구 롯데대구(660-313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텔(613-1170) / 휴텔리(244-8172) / 타임피어(253-8855) / 스위스(255-6292) 충북(043) 청주 평공사(25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육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롯데한성(535-5767) / 엔비(255-628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니(561-9438) / 알파와오메가(564-5465) / 신세계예진(640-5081) / 루치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6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유(225-0175) / 현대제일시(515-7172) / 시계명가(226-2251) / 골드룩(410-0137) / 티티(222-3114) 전주(063) 세광당(289-2590) / 캠티(285-7586) 제주(064) 순군시(758-1717)

MAXIM 독자 백일장

친구를 만나, 도너츠 가게에서 도너츠와 커피를 같이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주변이 다 커피이라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망설였지만, 이미 나가기가 애매했습니다. 빨리 나가자며 다 먹었는데, 손이 너무 끈적끈적한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 옆에 있는 손 세정제를 손에 찍찍 써서 마구 비벼냈는데, 더 끈적거리는 겁니다. 커피시럽이었습니다. 그때 질 바라보는 그들의 웃음이란..
-르자-

정갈한 문장과 시인을 연상시키는 '르자'라는 이름이 마치 월간 <좋은생각>을 읽고 있는 듯, 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물론 재미는 없네요.

독자 사연 보내기



OLD BOYS

당첨 **철부지 인기남**

올해 서른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본인은 스물세 살의 예쁜 여자친구가 있소.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오는 여자를 마다하지 않아 며칠 전에도 술을 마시다가 다른 여자와 짐자리를 했소. 하지만 체질상 술은커녕 열 시면 집에 가야 하는, 엄한 집에서 자란 여자친구와는 아직 관계를 하지 못했소. 이제 정착해야 할 나인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소. 질타든 조언이든 보태 주길 간절히 바라오. Peace!

이메일 사연, Psychodm

동물적인 색정에만 눈이 멀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며, 다함께 찬송가 세 곡을 연이어 부르겠습니다.

- 531장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 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 329장 형제여 자제 말라

늦바람 난 MAXIMUS

안녕하시오. 본인은 지난 5월호 표지를 장식한 에디터의 뒤태에 흠뻑 반해 MAXIM이란 잡지를 처음 접하게 된 30대 후반의 노총각이오. 정말 늦은 나이에 MAXIM을 접하고 보니, 이제껏 왜 이런 재미를 모르고 살았나 하는 후회가 가득하오. 얼마 전 뉴 아이패드를 구매했으니 8월호부터는 아이패드로 정기 구독을 하려 하오. 늦바람 난 본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더욱 고군분투 하길 바라오!

이메일 사연, 김태훈

큰 형님이 저희 MAXIM의 가족이 되셨네요. 이로서 주색잡기에 약한 대한민국의 모든 수컷을 육육에 충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편집부의 인력 보완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당연히 MAXIM 에디터들은 앞으로도 '쌍하이 치킨버거를 철근처럼 씹고 몇날 며칠을 지새우며 형님의 아이패드가 성인 패드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피를 토할 예정입니다.



포리가 길면 잡힌다니까

본인은 세 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3년째 사귀고 있는 30대의 대기업 종사자요. 그녀와 사귀기 전부터 매달 사 읽던 MAXIM을 최근까지 그녀 모르게 아이패드를 이용해 구독하고 있었소. 그러던 어느 날 내 아이패드를 뒤적거리던 그녀가 MAXIM 앱을 발견하더니 빛의 속도로 삭제해버린 거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녀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소. 어찌해야 좋단 말이오?

이메일 사연, SSMAN

여친이 아이패드를 못 만지도록 사지를 결박하실 게 아니라면, 별 수 없이 앱이 아닌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수밖에 없군요. 종이를 넘기는 손맛을 다시 느껴볼 겸 간만에 아날로그한 감성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를 클릭하면 정기 구독 접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 물론 아이패드에서도요...



독자 사연 응모

MAXIM을 보고 독후감을 쓰라는 소리가 아니다. 무슨 뽀이든 맘껏 풀어보시길!

-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방문 접수

납량 특집 MAXIM 방문 요령

새벽 2시경, 마감에 쫓겨 책상 앞에서 졸고 있는 에디터를 사이를 비집고 몰래 들어와 5층까지 진입한다. 눈앞에서 키보드를 두들기는 편집장을 발견하며 실 패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미 잠든 상태다. 조용히 소품실로 침투해 여자 가발을 쓰고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친다. 그 후 준비해 온 독자 사연을 HWP 파일로 작성하고 편집장 책상 위에 제출한 뒤 퇴근하면 된다.

이번 달 독자 사연 선물은 '클레어스'

달팽이 세안제 루마카다. 여름에도 휴화산 같은 피부를 대리석처럼 만들어 줄 달팽이 점액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점액'이라면 그저 좋아 죽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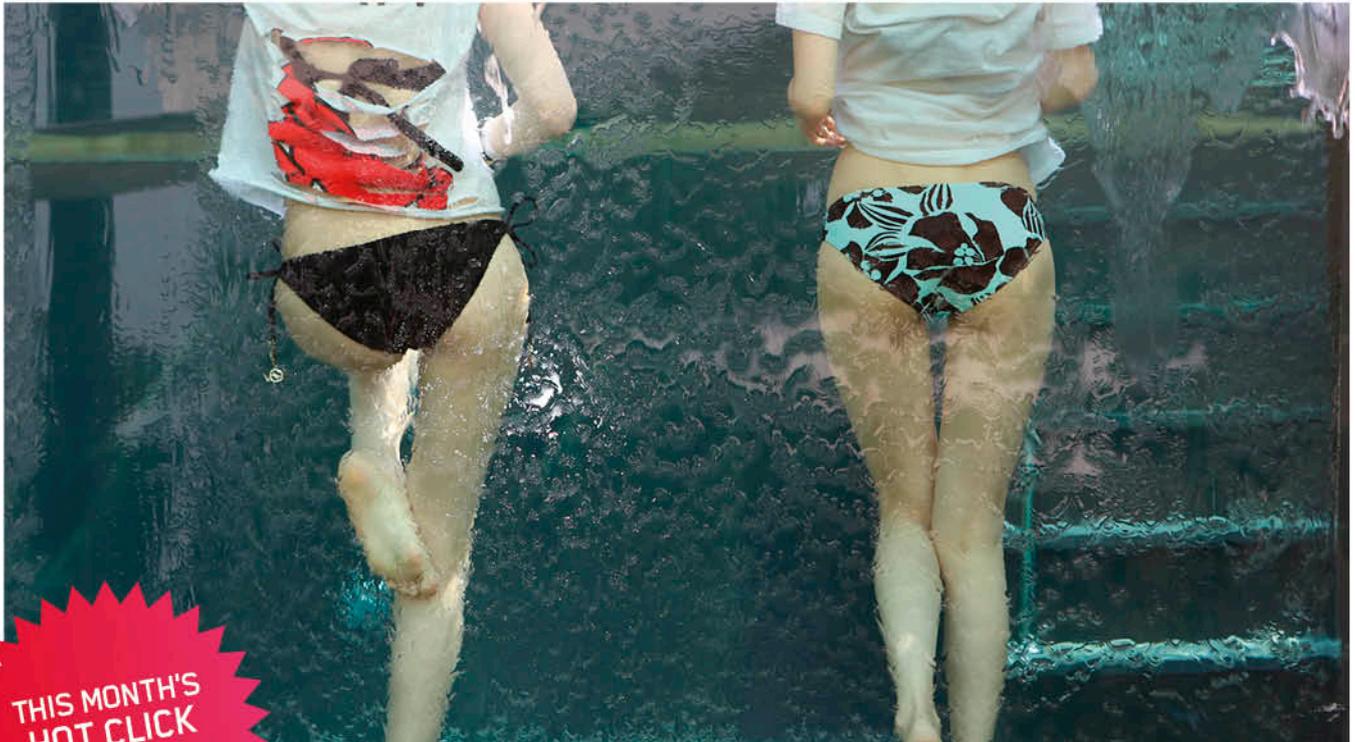


Time to Try는

젊고 새롭게 변화하는 **트라이**의 도전정신을 담은 슬로건입니다

TRY

Time To TRY



THIS MONTH'S HOT CLICK
 MAXIM 독자들이
 마우스 뽐사지도록 광클한
 바로 그 기사

MAXIM PARTY in 반얀트리 서울

반얀트리 호텔의 야외 풀을 한여름보다 더 뜨겁게 달군 MAXIM PARTY. 비키니 차림의 미녀들과 강렬한 비트, 술과 담배와 댄스가 뒤섞인 주지육림의 현장! 광란의 공연을 선사한 UV와 G.NA 외에도 수많은 연예계 스타가 MAXIM PARTY를 찾았다. 물총을 쏘며 돌아다니던 파티 스폰서 JYP, 에디터들과 도시락을 까먹은 장근석을 비롯해 SS501, 슈퍼주니어, FT아일랜드, 비스트, 차두리, 이정진, 남규리 등이 현장에서 목격됐다는데...

플기사와 파티 사진이 궁금하다면 www.maximkorea.net으로!

MAXIM ONLINE POLL

그녀와의 여름휴가,
 MAXIM 독자들이 가장 먼저 챙길 기어는?



1위

그녀의 비키니 사진을
 담을 방수 카메라
 (38%)



2위

내비, 극장, 게임,
 음악 감상! 다 되는 뉴
 아이패드 (20.7%)



3위

좋아하는 노래로 콕콕
 채운 스마트폰
 (17.6%)

기껏 방수 카메라를 장만해놓고 비키니 입은 여친의 풍만한 가슴이 아닌 함께 놀러 간 수컷들의 똥배만 담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뭘 좋아하는 MAXIM 독자라면,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에 음악장착은 필수! 물놀이를 끝내고 그녀와 숙소에서 분위기를 잡을 때 유용하다. 한편 촬영과 영상이벤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소니의 핸디캠 프로젝터와 로맨틱 BGM을 위한 간지 헤드폰과 스피커는 근소한 차이로 각각 4, 5위에 랭크됐다.

MAXIM ONLINE EVENT

선물을 토해내라는 독자들의 빗발치는 전화 요청에 고객 관리 담당자가 특별히 공수해 왔다. '현대 문학 사상 가장 지적이고 섹슈얼한 연극'이라는 평을 들은 공연 <더 러버> 티켓을 MAXIM 독자들에게 쏜다!

1. 지금 MAXIM 홈페이지에 접속해 과월호를 3권 이상 구매한다.
2. 과월호와 같이 배송되는 티켓을 받는다.
3. 여친과 으쓱한 공연을 감상하고 응응한 데이트를 즐긴다.

섭의 요청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군 그녀는?



'요즘 대세인 에일리리를 모른다는 말이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섭의 요청 글에 대한 MAXIM 독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그녀의 훔날리는 머릿결에 내 마음도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고백 듣는 중얼거림부터 '편집부는 이런 글래머와 청순함이 공존하는 이누스 같은 처자를 섭외하지 않고 뭐 하느냐'는 원망 섞인 투정까지, 그 내용이 각양각색이다. 아아, 그녀를 MAXIM 페이지에서 만난다면 그곳이 바로 HEAVEN일 텐데!



PERFETTO

Swiss made
Sapphire glass
All stainless steel
See-through case back
ZASPERO Cal.35400.21

Moderno Collezione 2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 | | | | | |
|----------------------------|----------------------------|----------------------------|-----------------------------|----------------------------|----------------------------|
| · 직 영 점(여의도) 02)783-8910 | · 롯데백화점(본점) 02)772-3124 | ·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7282 |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630-6734 | · 롯데백화점(청량리) 02)3707-1190 |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39 |
| · 롯데백화점(권양점) 02)842-7706 | · 롯데백화점(인산점) 031)909-3293 | · 롯데백화점(평촌점) 031)8086-9248 |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4 | · 롯데백화점(인천점) 032)450-2153 | · 롯데백화점(청주점) 043)219-9108 |
| · 롯데백화점(대전점) 042)601-2149 | · 롯데백화점(진주점) 063)289-3191 |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32 | · 롯데백화점(포항점) 054)230-1137 |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3155 | · 롯데백화점(시안점) 051)810-4138 |
| ·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235 |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960-4783 | · 신세계백화점(강남점) 02)3479-1291 |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 AK백화점(구로점) 02)839-5128 |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 신세계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 AK백화점(원주점) 031)646-6139 | · AK백화점(원주점) 033)811-5535 |
| · 현대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 와 외 치(강남점) 02)537-8977 |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 NC백화점(부산점) 051)509-7221 | · 이 와 치(영등점) 02)771-7033 | · 세운스퀘어(중로점) 02)272-2688 |
|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 두산타워 2(동대문) 02)3398-5528 | · 가든파이브(송파점) 02)2157-5000 | · 오해피타임(용산점) 02)2012-0625 | · 테크노마트(강변점) 02)3424-0793 | · 테크노마트(신도림점) 02)2111-1120 |
| · 두산타워(동대문) 02)3398-7527 | · 드 와 치(왕십리) 02)220-1355 | · 벨로우APM(동대문) 02)6388-2927 | · 굿모닝시티(동대문) 02)2118-8075 | · 밀리오레(동대문) 02)3383-1062 | ·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
|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 탑 타 임(안산점) 031)413-7656 | · 미 급 사(중랑점) 02)434-4880 | · 워 치 북(노원점) 070)4136-5090 | · 타임 24 (일산점) 031)931-5555 |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 · 시온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 뽕 개 통(부천점) 032)662-0686 | · 위치보이(인천점) 070)6632-8300 | · 워치나라(부평점) 070)7723-8253 | · 타임 렌(부평점) 070)7516-4545 | · 타임 시계(대전점) 042)280-9117 |
| · 뚝 뚝(부천점) 032)662-2026 | · G-ZONE(구미점) 054)455-2410 | · 뉴코마아웃렛(부천점) 032)624-8337 | · 재미클럭(천안점) 041)564-5465 | · 북 와 치(광주점) 043)223-1333 |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 · 엘 가(구미점) 054)451-6940 | · 교보로고(대구점) 053)425-9961 |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 삼 성 사(대구점) 053)422-3002 | · 엘 가(대구점) 053)255-6940 | · 티 파 티(광주점) 062)671-7458 |
|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 타임피아(포항점) 054)253-8855 | · 타임뱅크(광주점) 062)410-0110 | · 굿 타 임(광주점) 062)227-3050 | · 골드케니언(광주점) 062)714-1121 | · 타임북(부산점) 051)919-4704 |
| · 조 이 필(포항점) 054)613-1170 | |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 인터글로벌(양산점) 055)911-7111 | · 북 령(부산점) 051)245-7985 | |

MAXIM INSIDER



MAXIM 곳곳에 숨은 선물을 공략해라! 재테크가 별 게 아니야!

이것을 때 가져와라!



GIFT LIST

BMW MINI Folding Bike // 파나소닉 방수 캠코더 // InBody 체지방 측정기 // 케어원 살균 침구 청소기 // 와콤 intuos 5 // 연극 <The Lover> 티켓 // 2012 휴먼 페스티벌 티켓 // 클리어스 달팽이 세안제 루마카 // 플루에 가족 방수제 // 플루에 가족 태닝제 // NAVER 초히트 베스트 웹툰 <미음의 소리 Ver.1> 조석 // 음악 에세이 <무인도에 떨어저도 음악> 권오섭 // 소유스킨 쏘 클린 클렌저 // 소유스킨 네추럴 컴플렉션 릴리버 // MAXIM 캐릭터 티셔츠 // HELL DIVER 손목시계 // 대니시 디자인 손목시계 // 블랙다이스 손목시계 // 하이네켄 손목시계 // 마누스 그림 // TASK Active Moisturizer // 소유스킨 쏘 클린 클렌저 & 비모 엔 에프터 버블 시크릿 클렌저

RANDOM GIFT

MAXIM이 준비한 이달의 선물: 카스 라이트
 "매번 쓰질데기 없는 선물만 준다"며 구시렁거리던 독자들의 항의가 수차례 있었다. 그래서 준비했다. 이번 달 랜덤 기프트는 활용도 120%를 자랑하는 카스 맥주 팩이다. 빈 맥주 캔을 활용한 빨지 리스트도 첨부하니 참고하도록. 먹고 남은 쓰레기를 보내진 않을 테니 걱정 마!
 p.s: '공휴부각킹즈'를 장착하고 도심 한복판을 배회했다가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죄) 으로 딱지 끊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한다면 푸쳐한섭!
 그리고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세상에 공짜 따윈 없어!

- 1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 2 웹사이트에 있는 기사를 광클하며 둘러본다. (악플 밑에 선물도 좀 달아줘. 제발)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퍼가라! 뭐든 좋다! 게시물 개수가 많을수록, 첨부한 이미지가 많을수록, 내용이 알찰수록 폴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치솟는다! 아주 그냥 다~ 퍼가라.
- 4 해당 게시물이 있는 블로그나 SNS의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다음호 MAXIM INSIDER 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 2012년 8월호 폴라로이드 당첨자는 26년 살아 오면서 단 한번도 이벤트 따위에 당첨된 적 없다가 온갖 명장을 부리신 ID: thdmlwn님. 그래도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셨으므로 폴라로이드를 수여한다. (이제 됐으니까 독해!)



생생한 촬영 현장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곳은?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마구 터지는 곳은? 웹과 스마트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MAXIM 공식 다음 마이피플 채널과 트위터로 오래 정중 나간 스타프들의 친대민상도 볼 수 있다.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하도록!

SNS로
 모이시!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THE ULTIMATE SMOOTH PREMIUM BEER



IT'S *Miller* TIME.

Doggy Style

미군이 새로 들인 애완동물은 무시무시하게 귀여웠다고



수수께끼 하나 내겠다. 크기는 당나귀와 비슷하고, 이걸 관리하는 데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야 하며, 군복 입은 남자들이 이 녀석을 본다면 쿨구멍을 벌렁거리며 환장하기도 한다. 대체 뭘까? 예감이 맞다면 아마 당신은 "전효성의 영영이!"라고 외칠 거다. 그래,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맞다(사실 그게 정답이면 좋겠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의 진짜 정답은 바로 '알파 도그'로, 머지않아 미군에 입대할 신병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이 견마형 수송로봇은 '다리가 장착된 분대 지원 시스템'이다. 알파 도그는 산악지대처럼 험한 지형에서도 180kg의 짐을 싣고 3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네 발 달린 로봇이다. 그것도 24시간 이내에, 씨스타 호린만큼 세련하고 튼튼한 다리로 걸어서 말이다. 전장에서 군대를 돕기 위해 무거운 장비를 나르는 용도로 설계되었으며 나중에는 음성 명령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고. 아마도 "알파, 거시기 그만 할아!" 같은 생활 용어는 필수 옵션이 아닐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 하이테크 로봇 업체로, 견마형 군 수송로봇을 전문으로 제조한다.

1. 발굽!

알파 도그의 발굽은 자동으로 사람을 따라 움직이거나, GPS(위치 파악 시스템)에 의해 스스로 길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견 사육의 프로 택시기사들에게도 없는 기술이다.

2. 뒤집기!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넘어진 경우에는 스스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실제로 녀석이 버둥버둥 일어나는 모습은 상당히 귀엽다. 한밤중에 자고 있는 적들 위로 푹푹 뛰어넘다 실패할 때를 대비한 특수 기술이다.

3. 지구력!

모의 성능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장정 여러 명이 달려들어 있는 험한 밀어도 이 녀석은 끄떡 없이 제 갈 길을 간다. 전투 중 갑작스런 다구리쫄음은 문제없다는 얘기도.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며 수백 번의 왕복 운동도 가능하다. 이견 수십만 장병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지구력이다.

막내야, 뽀글이 끊어와라.



CIRCUS M

동물 최대
현장 속으로



말뚝 박게
차내는 완전 군 체질이야.

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CIRCUS

남의 눈

MAXIM 영

숙소 앞

숙소 근처에서 기다리는 건 너무 속 보
이지 않나? 잘 곳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가을 청소년을 만나고 싶다면 추천!

화장실 앞

화장을 고치고, 옷매무
새를 재정비하고 나오는
그녀들은 이미 마음속으
로 당신을 맞이할 준비
를 마쳤다. 화장이 잘
먹었다고 칭찬하자.

튜브 대여소

여름 최고 아르바이트. 가만히 앉아 있어서
새끼녀들이 당신을 찾아온다. 하루 한명만
연락처를 알아내도 여름 내내 작업한다면
그게 몇 명이야?

모래사장

태닝하는 그녀에게
오일을 발라주고 싶
나? 그렇다면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 수밖
에 없는 풀깃한 구릿
빛 근육을 탑재하자.

바다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는 그녀들에게 접근하라.
신이 난 그녀들은 이미 경계심이 많이 풀어졌다.

해변작업지도

거기 예쁜이들, 몇 명에서 왔어?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신숙희



조개구이집, 횃집

바닷가에서 "회 한 뚝배기 하실래요?"만큼 솔깃한 멘트도 없다. 회에 소주를 곁들이면 아비, 어미를 몰라 보기까지는 시간문제다.

광장

공인된 사냥터에는 그만큼 많은 사냥꾼이 모인다. 하지만 알고 보면 돈 없고 갈 데 없는 나이 어린 친구들의 집합소.

응급구조대 밭

해수욕장의 최고 명당 자리. 해변의 가장 중심에 있으니 그녀들의 움직임을 360°로 관찰할 수 있다. 음식 배달이 용이한 것도 제법 쓸쓸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샤워

해변

파도에 발을 적시며 페이스북에 올릴 사진을 찍고 있는 그녀는 다 같이 나온 단체 사진이 필요하다. "사진 찍어드려요?" 그다음은 "저도 같이 한 장 찍어주세요." 콤보.

- 해수욕장 직업 진상 BEST 3**
1. 잘 놀고 있는데 튜브를 뒤집는 몰상식한 행동
 2. "제 친구가 그쪽이 마음에 든다는데..."
 3. 휘악~! (휘파람 불고) "헤이 거기!"



집안 헬스장 만드는 법

할인해주는 말에 혹해 6개월치를 한번에 끊은 헬스장. 잘 다니고 있나?

BY 김희성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신숙희

1 욕조 끝 양쪽 모서리에 두 발을 각각 올리고 반대편 양쪽 모서리에 두 손을 올리면 누워 있는 자세가 된다. 그 상태에서 몸이 활처럼 휨 때까지 사타구니를 위로 추켜올린다. 삼각근, 삼두근, 대퇴이두근, 척추기립근, 복직근, 치골근을 키우기 좋다(그냥 몸 좋아진다는 말로 이해해도 돼). 괜히 물 채워 놨다가 익사하는 일 없도록. 단칸방에 욕조 따위가 어딴느냐고? 미안. 다른 운동을 소개해줄게.

2 자. 부엌으로 장소를 옮겨보자. 반지하 사글세에도 부엌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 자. 아무데나 한쪽 면에 팔을 올리고 반대쪽 면에 발을 올린다. 다리는 쪽 펴서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만든다. 그 자세에서 다리를 굽히고 펴기를 반복한다. 각각의 자세를 3초 이상 유지하도록. 토스트기나 커피 머신을 넘어뜨려 다칠 수도 있으니 미리 치워놓을 것(다들 집에 토스트기 하나쯤은 있지 않아요?).

3 이번 동작은 집이 아닌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다. 동료 직원에게 의자를 잡으라고 한 뒤 팔걸이를 잡고 다리를 의자 머리받이 위에 올린다. 다리를 조금씩 들어올려 쪽 뻗는다. 의자를 놓으면 그대로 황천길이니 평소 들들 볶았던 부하 직원에게는 시키지 말 것. 이 체조는 피를 거꾸로 쏠리게 해 당신을 더욱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주니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시전해볼 것.

4 스파이더맨처럼 난간을 기어올라간 뒤 스스로를 벽과 벽 사이에 빼기처럼 박아 넣는다. 천장에 닿을 때까지 조심조심 올라간 뒤 마지막에는 안 벽한 X자 모양으로 팔다리를 짹짹 편다. 순식간에 근육이 뿌아악 하고 솟구치는 기분을 느낄 거다. 어설픈게 뻗으면 바닥에 떨어질 수 있으니 천장까지 올라간 김에 제대로 스트레칭하라고. 아. 집에 난간이 없나? 그럼 할 수 없고...

주의

- 스트레칭을 할 것
- 항상 준비운동을 할 것
- 항상 험렁한 옷을 입고 할 것
- 배가 부를 때는 따라하지 말 것
- 공포에 질려 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계속할 것
- 팔라 상태일 때는 따라하지 말 것
- 혼자 있을 때는 절대 하지 말 것
- 항상 정면을 바라볼 것

타투 지우는 법

그러니까 여친 이름은 새기지 말랬잖아!



레이저라면 술김에 새긴 전 여친의 이니셜, 호랑이, 용, 잉어도 지울 수 있다. 레이저 타투 제거 전문가 도버 박사는 “과거에 메스로 살을 도려내거나(!!) 박피로 문신을 제거했던 방법에 비해 레이저는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레이저는 강렬한 빛의 진동을 이용해 타투의 색소를 증발시킨다. 문신의 색소만 골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체엔 아무런 해가 없다. 레이저를 쏘면 타투가 작은 크기로 잘게 부서지기 시작하고 몸속 면역 체계에 있는 황산화 세포가 이걸 연소시킨다. 자, 조금만 더 참아. 다 끝났더니!



도버 박사에 따르면, 검정색과 파란색 색소가 가장 지우기 쉽다고 한다. 모든 레이저의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록색과 노란색은 레이저 빛을 선별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지우기가 어렵다. 다음부터 타투를 하려거든 검정색이나 파란색으로!



Pure Scandinavian Style
COPENHAGE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면세점] 제주중문면세점 (064-780-7671)

[백화점] 롯데백화점 잠실_더와치스 (02-2143-1922) / 영등포_타임마케팅 (02-2630-6883) / 부천_타임마케팅 (032-320-7173) / 대전_타임마케팅 (042-601-2253) / 신세계백화점 천안_예진시계 (041-640-5081) / 광주_타임마케팅 (062-360-1291) / AK PLAZA 수원_다스시계 (031-240-2199) / 분당_스타일워치 (031-781-8194) / 구로_스타일워치 (02-839-5128) / 원주_스타일워치 (033-811-5535) / NC백화점 강서_다스시계 (02-2667-9508) / 뉴코아백화점 안산_타임에비뉴 (031-8085-1708) / 울산_타임에비뉴 (052-210-4010) / 2001아울렛 중계_타임에비뉴 (02-3399-8222) / 분당_타임에비뉴 (031-788-1808) / 세이백화점 대전_글로벌타임 (042-257-7745) / 이마트 자양_타임에비뉴 (02-455-6841) / 디류브백화점 구로_타임마케팅 (02-2211-0143)

[판매처] 서울(02) 이화차 명동 (771-7033) / 타임마신 (6388-2927) / 패션존 (3398-7527) / 위치톡 (070-4136-5090) / 드와치 (2200-1355) / 시드 (463-9788) / 정우상사 (3424-0794) / 타임21 (3424-7063) / 타임가든 (324-6272) / 타임사모 (6373-7743) / 타임월드 (3132-4108) / 경기(031) 사문주얼리 (463-9788) / 유빈 (658-6883) / 타임루트 (487-9057) / 티파니 (441-0158) / 탐타임 (413-7656) / 경기(032) 대성 (325-7467) / 핑카들 (662-0686) / 카시오프유 (502-7138) / 광주(062) 타임엔템포 (222-3114) / 타임파티 (226-0305) / 골드메니아 (410-0138) / 황주 보보스워치 (010-5494-5915) / 복워치 (043-223-1333) / 대구(053) 광주나라 (256-0975) / 골드워치 (424-4442) / 레프 (425-0157) / 스위스 (639-5252) / 신세계몰스넥 (566-3316) / 주얼리아 (428-2669) / 대백프리카 (254-3977) / 해피타임 (428-3086) / 부산(051) 명성시계-광복 (253-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신창 (253-5354) / 서울시계 (245-0625) / 윗밤 (919-4704) / 월드타임 (245-8359) / 김해(055) 시계백화점 (337-8166)

100% REAL!
0% GURA!

MAXIM
선정

SUMMER
면식

MAXIM과 누들러가 제안하는 자취방 비빔백서 비빔면 첨가물 특집

어떤 음식을 비빔면에 넣어먹으면 가장 맛있을지,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식재료를 실험해봤다. 전국의 백만 자취생들이여, 우리가 하는 말에 주목하라! BY 누들러 DESIGN 전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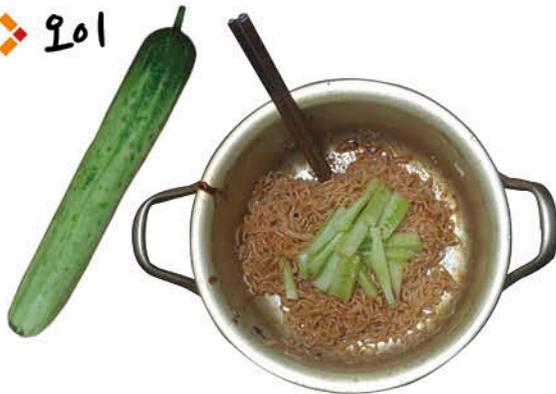


돈도 없고 여친도 없어 집에서 비빔면이나 만들어 먹는 게 최고의 휴가...는 개뿔. 비빔면엔 그 흔한 건더기 스프마저 들어 있지 않아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 하지만 비빔면이라도 거하게 차려 먹어야 덜 속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준비한 비빔면 첨가물 특집! 도대체 뭘 넣어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날지 MAXIM과 누들러가 실험체가 되어 남은 음식들을 이것저것 넣어봤다. 준비물은 냉장고 안에 처박혀 있는 거 아무거나. 리뷰에는 비빔면계의 패왕 팔도 비빔면을 사용했다.



OLLEH! 이 정도면 첨가물계의 패왕이라 부를 만하다.

오이



STEP 1 다이어트한답시고 동네 슈퍼에서 실속 오이 5개입을 구입한 뒤 며칠 째 방치했다.

STEP 2 그럴듯하게 채를 썰어 면발 위에 조금 올리면 30년 전통의 비빔면 본가에서 웅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느낌이다.

NOODLER SAYS 본격적인 맛이다. 같이 씹히는 오이 덕분에 면발이 더욱 탱글 탱글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관우에게 적토마가 있다면, 비빔면에게는 오이가 있다!

이 조합 찬성일세.



이달의 별첨 스프
미스터 복고 라면

♪ 라면 먹을 때 백 뮤직으로 깔면 좋다.



네인테르탈인 시절부터 한반도의 인류는 디스코를 즐겼나 보다. 그러니 이런 여름날, 아무리 자취방 바캉스라 해도 신나는 가락이 빠질 수 있겠는가. 여기 당신의 자취방 바캉스를 더욱 신나게 해줄 BGM, 미스터 복고의 라면을 소개한다. 그의 기적 같은 램프와 함께라면 끓는 물에 흘날라는 면발처럼 어깨춤이 절로 난다.

비빔라면 치즈라면 해물라면 카레라면 자장라면 짬뽕라면 라볶이 냉라면 난 니가 좋아
부담없어 좋아! 해장에도 딱이야! 120g의 기적의 밀가루. -'라면'의 가사 중-



HELL DIVER

1942 SB2C

헬다이버 | <http://www.helldiverwatches.com> |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총판 프로워치 02.779.6964

서울 - 사 또(동대문) 02-2118-8075 | 타임랜드(은평) 02-2272-2688 | 이츠와치(홍대) 02-323-0980 | 와와치(반포) 02-537-8977
경기 - 탐타임(안산) 031-413-7656 | 샤론주얼리(안양) 031-463-9788 | 시계상자(안양) 031-441-0158 |
티파니(일산) 031-931-5300 | 뽕끼통(부천) 032-662-0686
인천 - 워치보이 070-8632-5300 | 타임런 070-7516-4545 | 청추 - 복와치 070-8721-9731 | 부산 - 왓씽 051-919-4704



NOT BAD 둘이 엉겨있는 모양새가 꽤 나쁘진 않다.

장조림



STEP 1 그래도 자식새끼라고 어머니가 만들어 보내주신 밀반찬계의 절대 강자, 장조림.

STEP 2 비빔면에 고깃덩어리 몇 개를 올린 후, 면발과 함께 먹는다.

NOODLER SAYS 비빔면 맛도 나고, 장조림 맛도 나지만 결과적으로 비빔면과 장조림일 뿐, 맛있는 비빔면이 되진 않는다.



그럴 땐 비벼, 막 비벼
X나 비벼 환상..!

견과류



STEP 1 치열한 하루를 끝나치고 집으로 돌아와 술 한 잔 기울일 때 함께했던 견과류.

STEP 2 가인에게 스모키 화장이 있다면, 맥주에는 이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떠나보내는구나.

NOODLER SAYS 어금니에 멍콩 조각이 자주 낀다. 곰게 뺨아서 비빔면에 투하한다면 꽤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럴 정성이 있으면 애초에 라면을 먹었겠나?

콜라



STEP 1 "the Coke side of life"라는 광고 문구처럼 코카콜라는 언제나 우리의 냉장고 한쪽에 처박혀 있다.

STEP 2 기껏 물을 따라 버리고 비벼놓은 비빔면에 콜라를 붓자니 속상한 기분마저 들지만, 웬지 박진감 넘치는 맛일 것 같아 기대되기도 한다.

NOODLER SAYS 예상과 달리 썩 나쁘지 않다. 가히 청량감 넘치는 비빔면이다. 과소망착한 색깔은 애교로 넘어가자.



FUCK 지옥의 맛이 궁금하다면 시도해도 좋다.

소주



STEP 1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끔 소주 안주로 골뱅이소면무침을 먹는다는 데 착안해 시도해봤다.

STEP 2 소주를 잔뜩 붓자. 면발에 묻은 소스가 점점 희석되더니 나중에는 하얀 소면으로 변했다.

NOODLER SAYS 한 젓가락 먹는 순간 누들러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다.



What The F...

쌈장



STEP 1 다들 냉장고 안에 출쳐 불분명한 쌈장 하나쯤은 있을 거다. 언제 사됐는지 기억난다면 당장 허버드대에 지원하겠다.

STEP 2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라 되는 대로 집어넣었더니, 다소 당황스러운 맛이 연출됐다.

NOODLER SAYS 면발에 이처럼 잘 녹아드는 스프는 여태껏 보지 못했다. 한입 먹으면 잠이 확 깬다. 정말 맛있다. 똥!

마요네즈



STEP 1 오징어를 찍어 먹으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는 마요네즈.

STEP 2 그러나 비빔면에 넣어 비비는 순간, 좋지 않은 예감이 급습한다.

NOODLER SAYS 싸구려 왁스 같은 색깔로 변하더니, 맛도 싸구려 왁스 같은 맛이 난다. 바랑스고 튀고 얼른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문보살님께도 비빔면에 오이 적극 권장!

오늘의 교훈: 오이는 항상 옳다.



거울을 보고 심장 박동이 커진 적이 있나요?

남들보다 큰 가슴 때문에 걱정한 적이 있나요?
살이 찌는 편도 아닌데 유독 가슴만 볼록해서 고민으로 밤샘 경험은요?
그렇다면 혹시 **여성형 유방증**은 아닐까요?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찾는 이유.

1. 풍부한 시술 경험 YES!
2. 유두에 작은 구멍을 통한 시술로 흉터 걱정은 적게
3. 혹시 모를 재발 위험, **재수술 가능**
4. 당일 수술, 당일 치료 가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유방증, 함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현)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수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임상자문의 및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외래 부교수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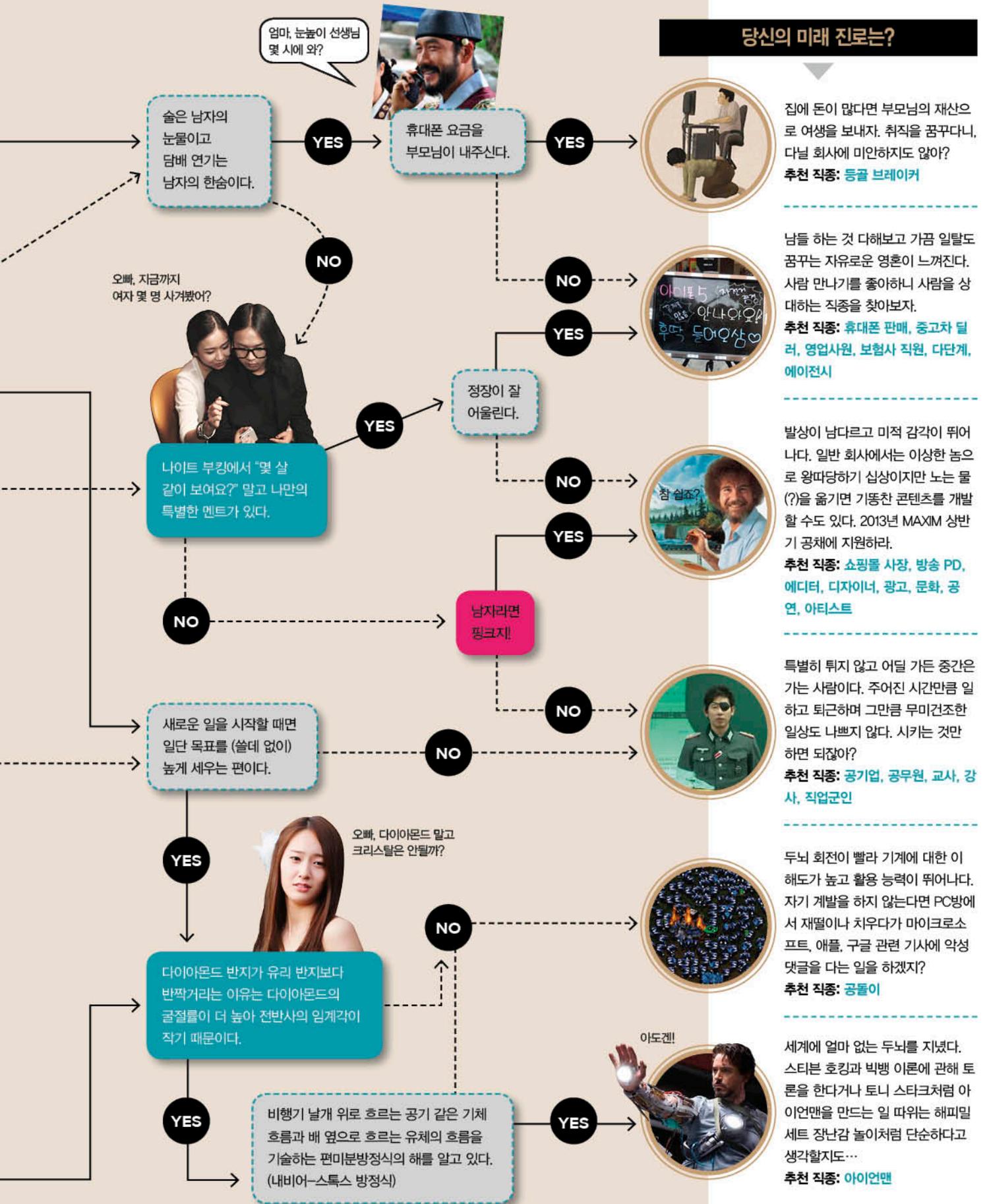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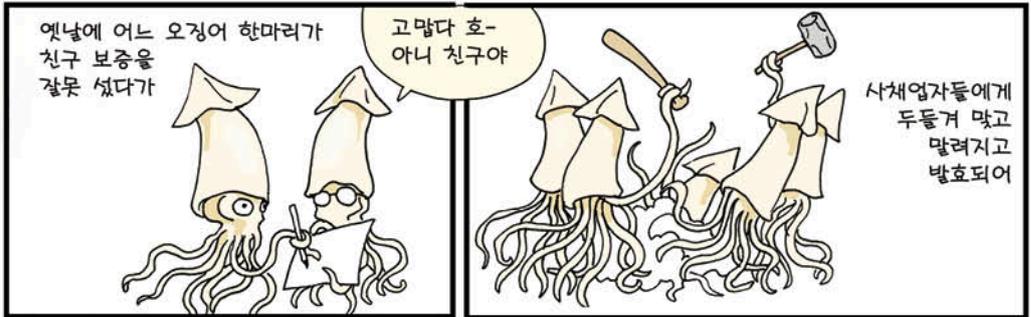


당신의 미래 진로는?



爽心

잡학의 맥을 짚어주는 핵심 교양강좌 "보증서기 있기 없기"



사채업자들에게 두들겨 맞고 말려지고 방호되어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는 무서운 향취.

그곳의 화학적 균형과 습도유지를 위해 향시 분비되는 '냉'이라는 분비액이 그 원인이다.

흔히 X징어 냄새라고 부르는 그 향취의 정식 명칭은 '살내'

살내에 대한 매니악적인 기호도 존재하는 바-



-차마 팬티라고 쓰지는 못한 듯.



X징어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루머의 러시아 술 보오카 ₩1800

뜨거운 젊음, 카스 라이트 서핑스쿨과 만나다

대한민국의 대표 맥주 카스 라이트와 호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빌라봉이 '카스 라이트 서핑스쿨'을 양양에서 개최하고 있다. 뜨거운 젊음이 차가운 바다, 그리고 상쾌한 카스 라이트와 조우하는 그 현장에 다녀왔다.



카스 라이트 서핑스쿨
 빌라봉 프로 서프스쿨인 '서퍼스(Surfers)'의 최고 강사진에게 요즘 트렌디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서핑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름밤을 뜨겁게 불태울 파티, DJ 공연, 기마천과 깃발잡기 등 다양한 게임까지 즐길 수 있다. 112일 일정으로 8월말까지 진행되며 카스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Cass.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수영복 차림에 담당할 수 있는 바디라인을 지닌 자로, 강한 체력과 낯선 사람들과 친해줄 수 있는 담당임원 갖고 있으면 된다.



“낯선 사람들과 서핑스쿨에 가는 게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카스 라이트 덕분에 좋은 인연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홍관선(29세, 서울)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다 헛껏 일어서서 파도를 타는 짜릿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서핑 후 마시는 시원한 카스 라이트도 최고고요!”
 김민주(23세, 부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해양 스포츠는 무엇일까? 요트? 스노클링? 제트스키? 아니다. 바로 서핑이다. 아직도 서핑이라고 하면 캘리포니아 해변가나 하와이의 푸른 바다 위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행에 한참 뒤떨어졌음을 자각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멋진 서핑을 지금 즐길 수 있다.

트렌디하면서도 스마트한 맥주 카스 라이트가 빌라봉과 손을 잡고 가장 트렌디한 해양 스포츠 서핑을 배울 수 있는 스쿨을 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양양 기사문 해수욕장에 도착하자마자 하늘 위로 동동 떠다니고 있는 카스 라이트 캔 모형 풍선과 깃발이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서핑 스쿨에 참석한 남녀 10명씩 총 20명의 참가자들은 푸른 바다와 조우하자마자 곧바로 파도 속으로 뛰어든 생각에 뛰는 가슴을 진정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언제나 철저한 교육이 먼저. 한국 최고의 서퍼인 고성용 프로서퍼와 인사를 나눈 참가자들은 이론 교육을 꼼꼼히 받은 다음, 각자 자신의 서핑보드를 들고 바닷가에서 최종 서핑 실전 강습을 받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입수 1시간 정도 바다 속에서 자유롭게 서핑을 즐기다보니 하나 둘씩 자유롭게 보드 위에 올라서는 당당한 참가자들도 나온다. 여전히 웃고 떠들다 바다 속으로 침범 빠지고 미는 참가자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어엿한 서퍼의 모양새가 나는 참가자들이 점점 늘어난다. 약속된 5시가 훌쩍 넘어갔지만 아무도

바다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둑어둑 어스름이 내릴 무렵, 카스 라이트가 준비한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다.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파트너 들어 안고 오래 버티기, 댄스경연대회 등을 진행하다보니 참가자들 사이에 은근히 아릿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마지막으로 빌라봉이 준비한 푸짐한 상품들! 아쉽게도 112일의 일정은 이렇게 종료되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뜨거운 젊음과 서핑, 그리고 카스 라이트의 뜻깊은 조우는 여름 내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국내 대표 라이트 맥주, 트리플 호핑(Triple Hopping) 기법으로 맥주 맛은 높였고, 탄수화물 발효를 극대화해 칼로리를 33%나 낮췄다. 영하 4도에서 숙성시켜 상쾌한 맛이 극대화된 그야말로 스마트하고 트렌디한 맥주.

R A T 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USELESS FACTS FOR BAT MANIACS

✕ **사족 1.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배트맨 시리즈 트릴로지를 완성한 첫 감독이자, 《스파이더맨》의 샘 레이미 감독에 이어 슈퍼히어로 트릴로지를 완성한 두 번째 감독이다.

✕ **사족 2. 주연 크리스천 베일은** “시리즈 어디든 로빈이 등장한다면 배트맨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감독 역시 로빈이 영화의 어두운 톤을 해칠 수 있다며 이에 동의했다. 이 우울한 인간들 때문에 로빈은 실직자가 됐다.



✕ **사족 3. 고담 시를 뒤엎는** 악당들이 미식축구장을 공격하는 씬에 무려 1만 명의 엑스트라가 출연했다. 그중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스타 풋볼 선수 하인스 워드를 연기한 레일 하인스 워드도 있다.

✕ **사족 4. 앤 해서웨이는** 캣우먼을 연기하기 위해 일주일에 5일을 강도 높은 스텐트 트레이닝과 댄스 연습, 체력 단련으로 불살랐다. 독한 것.

THE DARK KNIGHT RISES

“곧 폭풍이 올 거예요.”
네, 맞아요. 섹시 폭풍이 올 것 같은 날씨네요.

DESIGN 신숙희

✕ 당신의 심장을 벌렁거리게 할 새로운 캣우먼 앤 해서웨이가 쫄쫄이를 입고 핫한 기구(?)에 앉은 포스터라라니!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크리스천 베일과 함께 만든 세 번째 배트맨 시리즈에 뭔 사족이 필요하겠나 마는, 그래도 기어이 붙이려다. 왜냐고? 당신들 이미 네이버 영화 소개에서 즐거리 다 봤잖아! 우리 사족이 라도 붙여야 먹고 살지, 흑흑... 개봉 7월 19일

영상으로
박워남
맞보기



우린 한 **女**만 파! 앤 해서웨이

한 여배우만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코너를 신설했다. 우린 집요하니까 그 시작은 <다크 나이트 라이즈>의 캣우먼으로 여름 극장가 흥행몰이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의 연인' 앤 해서웨이이다. DESIGN 신숙희



vs. 나탈리 포트만: 평행선을 달리는 라이벌 나탈리 포트만은 <스타워즈>로 스타덤에 오르고 <클로저>로 연기 변신을 하더니, <블랙스완>으로 연기력의 정점을 찍었다. 마치 앤 해서웨이가 <프린세스 다이아러리>로 성공하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로 인기를 얻더니, <다크 나이트 라이즈>로 정점을 찍은 것처럼. 나이는 포트만이 한 살 위. 허벅대를 졸업한 포트만의 키는 160cm, 뉴욕대를 졸업한 해서웨이는 173cm.



vs. 줄리아 로버츠: 입 크기라면 지지 않아!! 해서웨이의 큰 눈과 입은 줄리아 로버츠를 닮았다. 입이 크면 마음이 예쁘다던데, 그래서 가슴도 예쁜 건가? 줄리아 로버츠의 트레이드마크는 큰 입이 그리는 살인 미소. 줄리아 로버츠가 1990년대 할리우드의 '귀여운 여인'이었다면, 2000년대 미국의 연인은 앤 해서웨이.



가슴을 열리라!
앤 해서웨이가 2005년 <하복>에서 악과 떡에 빠져 막나는 청춘을 연기하며 처음으로 노출을 한다. 귀여운 소녀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영화는 혹평을 받고 해서웨이의 가슴만 박수를 받았다. 2010년 <러브&드레스>에서의 노출은 조금 더 수위가 높았다. 다, 다음엔?

어릴 적 오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앤 해서웨이. 그 뒤 수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우연한 기회에 오디션에 합격해 배우의 길을 시작한다. 밑바닥을 거치지 않고 한 방에 주연을 거머쥐더니, 타고난 영화 복으로 흥행을 거듭하며 최고 배우의 대열에 합류한다. '미국의 연인' 앤 해서웨이. 누구냐 넌?

딱 보여주는 캣우먼 슈트 구경하기

vs. 미셸 파이퍼: 너만 캣우먼이나?
<배트맨>에서 미셸 파이퍼의 캣우먼 연기는 히스 레저의 <다크 나이트> 속 조커 연가만큼 강렬했다. 새로운 캣우먼 해서웨이는 큰 눈, 큰 키, 무엇보다 고양이 얼굴 상으로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참고로 <다크 나이트 라이즈> 캣우먼 역의 오디션에 참가한 여배우는 안젤리나 졸리, 나탈리 포트만, 메간 폭스 등이 있다.

숨겨진 탄생의 비밀?

앤 해서웨이의 데뷔작은 미국 드라마 <갯리얼>이지만, 제대로 이름을 날린 건 <프린세스 다이아러리>. 왕따 여고생이 알고 봤더니 공주였다는 미국판 신봉 상승 프로젝트. 해서웨이는 파마 머리 펴고 안경을 벗으니 바로 공주로 변신하는 기적을 선보인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파마하고 안경 쓰면 죄다 진짜가 되는 불편한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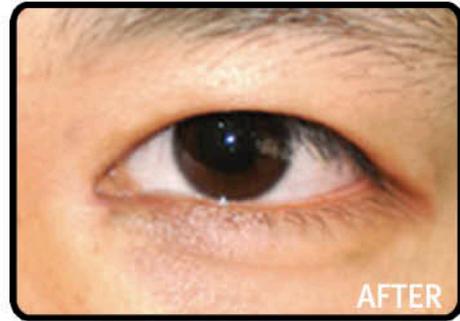
인터뷰가 기대되는 스타

앤 해서웨이의 솔직한 인터뷰 답변은 종종 팬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2008년 인터뷰에서 "뒤로 당하는 관계를 하고 싶다"는 당찬 뒤차기 드립을 하더니, 지난해에는 "살은 역겹고 더럽다"는 막장 드라마 같은 소리로 할리우드를 흔들었다. 게다가 전 남편 라파엘로 폴리에리가 사기죄로 체포되면서 압수당한 PC에서 라파엘로가 찍어 보관하던 해서웨이의 누드 사진과 비디오가 나왔다.



할리 베리의 섹시함을 넘어서!

서른아홉 살 할리 베리의 몸매 자랑에서 시작해 몸매 자랑으로 끝났던 할리 베리의 <캣우먼>. 할리우드에서 드물게 탄탄한 자연산 가슴으로 유명한 할리 베리, 앤 해서웨�포도 이에 지지 않... 설마 진 거야?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octor.co.kr

토탈 리콜 개봉 기념 영화를 리콜해드립니다

오늘은 자신의 원작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약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 무덤에서도 자꾸만 돌아누우신다는 필립 K. 딕 옹을 모셨습니다. BY 송종민 DESIGN 신숙희

1982 토탈 리콜
vs. 2012 토탈 리콜



토탈 리콜(1989) vs.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1966)



나를 죽인다고?
내가 누군줄 알고
자식들이!

원작과의
싱크로 지수
30%

* 필립 딕의 각설! 내 영화 주인공이 테레네이타라니!

슈워제네거가 아닌 그의 근육이 연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속 주인공은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액션 히어로다. 그 성깔로 지구에서 암전히 지냈으니 얼마나 몸이 근질거렸을고? 영화에 나오는 첫 3개 달린 외계녀(일명 '삼첫녀')와 첨단 워장 장치, 콧구멍으로 뇌에 붙은 추적 장치 뽑기 등은 원작에 없는 즐거운 볼거리다. 하지만 원작 소설 속 케일은 풀어놓는 아라비안나이트도 만만치 않다. 허에 풀이라도 발랐는지, 자신을 죽이려는 정부 요원에게 주먹이 아닌 삼공한 말발로 멘붕을 선사한다. 서로 피 보지 말고 그냥 내 기억을 다른 걸로 갈아 끼워서 아예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는 거다. 이런 감언이설과 임기응변으로 순진한 요원들을 후속 물먹이며 상황을 역전시키는 케일과 모든 것을 다 때려부수는 액션 히어로 케일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심한 왜곡에 분노한 원작자의 원혼이 깃든 것일까? 감독 버호벤은 멕시코에서의 막바지 촬영 도중 식중독에 걸려 죽도록 실사를 해했다고.



블레이드 러너(1982) vs. 안드로이드는 전자 양을 꿈꾸는가?(1968)

* 필립 딕의 각설! 전자 양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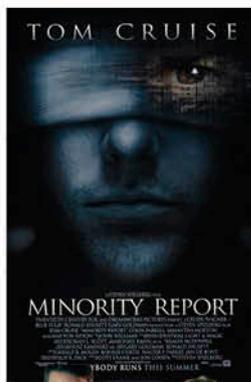


탈주한 안드로이드를 사냥하는 비밀 경찰 데커드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안드로이드를 보며 그들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이 고민은 싸구려 인조 안드로이드 양을 키우면서도 언젠가 진짜 양을 꼭 사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지구에서 실제 동물은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런데도 그가 그토록 진짜 양에 집착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일까'라는 정체성 혼란에 대한 해답을 주리란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판에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쏙 빠졌다. 하긴 미녀 안드로이드 이야기가 백번 낫겠지...

싱크로 지수
60%

마이내리티 리포트(2002) vs. 마이내리티 리포트(1956)

* 필립 딕의 각설! 스펀버그 너 <AI>에서 아직 혼이 덜 낫구나?



입술한 건 내 취향이 아니라서..

원작의 주인공은 범죄 예방 시스템을 직접 고안한 존 앤더튼. 그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그래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를 거란 누명을 쓰고도, 존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과 경찰국을 지키기 위해 예언대로 살인을 선택한다. 하지만 영화 속 존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점차 잃어간다. 인간의 어떠한 의지가 예언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터미네이터 2> 시절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다. 결국 범죄 예방 시스템은 폐지되고, 다시 세상은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든다(영?). 이것도 해피 엔딩인가?

싱크로 지수
20%

에이지 오브 신작



내게 돌아와~
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

락 오브 에이지

아버의 노랫말이 곧 스토리였던 <맘미아>처럼 본 조비, 미스터 빅, 저니, 포이즌 등 1980년대 록 밴드들의 슈퍼 히트곡이 영화를 이끈다. 주연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소화해낸 것은 물론이다. 탐홍 록스타 놀이에 너무 몰입하다가 이혼당한 거 아냐? **개봉 8월 21일**

아이시 에이지4: 대륙 이동설

홍수와 공룡 시대를 넘어 이번에는 대륙이 썩 썩 갈라진다. 딸과 생이별한 매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은 새로운 만남의 예고편일 뿐, 독수 공방하던 디에고 앞에 드디어 요염한 백호 아가씨가 나타난다. 디에고!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개봉 7월 26일**



머리털 휘날리며~ 정복하자! 내 잃어버린 자신감..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수컷구멍을 다 막기 전에 전문가에게 관리 받아 보지?
BY 원정원 DESIGN 전은경

나라 지브라 내 모발은 목 지켰네...

대한민국 남자 인생에서 가장 지루하다는 2년이 지나고 돌아온 K씨. 군 입대 전만해도 풍성한 머릿수에 자신감 충만했던 K씨였지만 입대 후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탈모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휴가란 천금같은 것. 휴가 때도 머리털 몇 가닥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특별한 치료 없이 탈모 방지 샴푸에만 의지한 채 놀기 바빴다. 그러나 샴푸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탈모 방지 샴푸의 경우 어디까지나 탈모의 일시적 예방일 뿐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원하는 탈모 치료, 즉 발모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

자존심까지 벗겨진 내 머리

복학한 M씨는 한 학기를 누구보다 힘겹게 보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헤아릴 수 없게 되면서 그의 자신감은 머리카락 휘날리듯 사라졌다. 검은 콩에 검은 깨까지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보고, 몇 개월째 탈모방지 샴푸 까지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당연히 사람들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취업은 요원한 것으로 보였다. 탈모는 단순한 미용적인 문제가 아닌 심리적인 문제, 심할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가 탈모 치료에 대해 무지하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이니셜처럼 경계선을 확장해 가는 M자형 탈모, 절망의 날들은 이어지고 있다.

머리카락 한올이라도 더 있을 때 검사하자!

최근 20~30대 탈모환자수가 전체 탈모 환자의 50% 가까이 차지할 만큼 탈모 발생 연령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특히 20대 초반 막 군대를 제대하거나 복학하는 남성들에게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나이만 믿고 방심하다가 부쩍 빠진 머리를 부여잡고 탈모 치료법을 찾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탈모인지 아닌지 인터넷 검색만 하지 말고 탈모 검진 검사를 받는 것은 어떨까? 피부과에서 한 번의 검사와 상담으로 얻을 수 있는 안도감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탈모 가족력이 있다면 일 년에 한번 정기 검진 받는 것도 탈모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왕도이다.

자, 체크해보자.

이중에 한두개? 아님 모두? 심각성의 판단은 각자의 몫!

- ✓ 하루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진다.
- ✓ 두피의 앞부분과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이 가늘고 짧고 색이 옅어진다.
- ✓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가늘어지면서 헤어스타일링이 평소처럼 안된다.
- ✓ 머리를 이틀 정도 감지 않은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머리카락을 50~100개 정도 잡은 후 가볍게 당겼을 때 3개 이상 빠진다.
- ✓ 이마선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정수리 부위의 두피가 흰히 들여다보인다.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덩수룩한 머릿빨이지!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머릿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유효한 명언 중에 명언(?)이다.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어린 나이부터 탈모가 진행됐던 O씨와 M씨는 철권의 '헤어차트'처럼 세우고 다닐 머리는 소갈머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조금만 일찍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면 지금쯤 투블럭컷에 머리를 곧추 세우고 다니지 않았을까?

탈모 역시 다른 피부과 질환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초기 탈모라면 약물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발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약청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은 치료제는 먹는 약 피나스테리드 제제와 바르는 약 미녹시딜 제제뿐이다. 그 중 먹는 약 피나스테리드 제제는 남성형 탈모의 원인이 되는 DHT의 작용을 막아 탈모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물로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한다면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탈모 치료가 가능하다. 실제 5년간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대상자 중 90%가 탈모 진행이 멈추었고 그 중 70%가 새로운 모발이 자라는 효과를 보였다.



맥스웰 피부과 노윤우 원장은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탈모의 경우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초기 단계부터 약물치료와 모발관리를 꾸준히 받게 되면 더 이상의 탈모진행을 막는 것은 물론 발모효과도 볼 수 있어 탈모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을방학의 여름 실내악 외출

지드래곤 뽀빠귀 날리는 '변신의 귀재' 정바비와 달달한 시나몬 향기 가득한 보이스의 소유자 계피가 '실내악 외출'로 여름 나들이를 나섰다. DESIGN 서윤정

반갑다! 얼마 전까지 MAXIM에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반대로 인터뷰를 받는 느낌은 어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하다.

바비 헤어진 애인과 우연히 모텔 앞에서 마주친 것처럼 애뜻하고 신기하다. 최근에는 가을방학의 새 앨범을 작업하느라 바빴다.

정바비는 점점 살이 빠지고 계피는 갈수록 예뻐지는 데, 비주얼 밴드로 거듭나려는 계획이라도 있나?

바비 흥대 앞에 살면서 들어오는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게 몸매 관리로 이어진 것 같다.

계피 무대에 설 때 늘 셔츠 단추를 끝까지 채우다가 최근 들어 하나 풀었다. 변화를 준 보람이 있네.

데뷔 때부터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왔는데, 언젠가 댄스나 일렉트로니카 음악에까지 마수를 뻗을 계획은 없는가?

바비 물론 있다. 즐거운 술자리를 보내다 보면 춤이 절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듣기 좋은 흥겨운 음악을 해보고 싶다. 스테레오 토탈이나 B-52's 같은 돌기 충만한 파티 뮤직에 대한 욕심도 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고전음악 편곡 콘서트가 이번 신보의 계기가 된 것인가? 당시 공연의 느낌을 말해 달라.

바비 가을방학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기립 박수만 안 나왔다 뿐이지 관객 반응도 최고였고, 공연의 내용을 음반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었다.

계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노래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나 자신이 현악적으로 변하는 걸 느꼈다. 이번 앨범의 보컬 스타일에도 그 점이 반영되었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더라.(웃음)

히트곡이었던 '취미는 사랑'을 재편곡 명단에서 뺐 이유라도 있는지?

바비 미드 템포의 팝은 사실 베이스 드럼이 빠지면 클래식 버전으로는 편곡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다. 그리고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편곡자의 의견을 존중했다.

계피 대신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가 들어갔다. 확인한 바는 없지만 40대 남성분들께 어필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웃음)

요즘 인디씬에서 가을방학만이 보여주는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비 나는 가을방학의 감성에 어느 정도 까칠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달달하고 듣기 편한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얼핏 보면 그냥 예쁜 얘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왕 음반을



산 사람이라면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찬찬히 노래에 담긴 '인생과 관계의 아이러니'를 음미해보면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끝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 마디!

계피 읽다 보면 왜 남성지 부동의 판매 1위인지 알 것 같다. 이번 호도 즐겁게 읽으시길!

바비 가끔 미치도록 여자들 틈에 한두 시간 정도 앉아 있고 싶어진다면 가을방학의 공연장을 추천한다. 성비가 9:1이거든. 🍷

9:1의 파라다이스, 가을방학 단독 공연

노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절묘한 가을방학의 단독 공연 날짜는 9월 1일, 올림픽공원을 가득 채울 1,000석 중에서 남성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00석뿐이라는 얘기가. 서둘러야겠지?

요즘 들을 게 없어? 무슨 소리!



One Punch - Punch Drunk Love

'The Boxer'에서 하필이면 'One Punch'로 개명하는 바람에 자칫 복싱이 취미인 하드코어 밴드로 오해하기 쉽겠지만, 사실 듣기 좋은 어쿠스틱 팝 밴드다. 산승훈과 권정열을 7:3으로 섞은 듯한 박성도의 보이스가 서영호의 통통 튀는 건반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때로는 약에 취한 것 같은 무기력함을, 때로는 약 빠듯한 것 같은 생기를 느끼게 한다.



Method - The Constant

김태희의 눈, 한기인의 코, 황보라의 입술을 모아 놓아도 위치 선정을 잘못하면 병신이 되는 것처럼 수많은 밴드가 하이브리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추풍낙엽처럼 와해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어떠한 '서브' 장비조차 도입하지 않은 순수한 사운드만으로 '정확할 순 없지만 끝내주는' 헤비메탈을 만들어냈다.



Gate Flowers - Times

<TOP 밴드>를 통해 헤쳐처럼 등장했지만 실은 활동 7년 차 노장이다. 크리드(Creed)의 스포츠 스타를 연상시키는 치즈 향 가득한 바근홍의 보이스와 뺏속까지 울리는 염승식의 펜더는 완벽한 '아메리칸 하드록'의 정수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이면엔 잭 블랙의 의모가 숨어있다는 것이 함정이라면 함정. 그래도 뭐 인디계에서 성공한 누구는 이효리도 사귀더라..



CHICAGO

THE MUSICAL

바캉스 할인 - 최대 20%

V · R · OP석 15% / S · A석 20%
7/24~8/5 공연기간 예매자 할인

커플할인 - 최대 20%

VIP · R · OP석 15% / S · A석 20%
8/21~9/9 공연기간 커플동반 공연관람시 할인

| 인순이 | 최정원 | 윤공주 | 아이비 | 남경주 | 성기윤 |

뮤지컬 시카고

6.10 - 10.7

디큐브아트센터

주최 SBS 인기리커니 주관 **에이엠씨** 협찬 **maxQuest** 후원 **d4m** **M·BIS stila**
Lyrics by Fred Ebb Music by John Kander Book by Fred Ebb and Bob Fosse

예매 **에이엠씨** 1544-1555

d4m 뮤지컬 시카고

알고 들으면 야한 노래 5

이 노래들로 운동장에서 단체로
체조하는 초등학교도 있다던데...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전은경

SLAY SLAP
SHE KNOWS HOW TO MOVE HER ASS

머핀 좋아해?

레이디 가가 **Poker Face**



I won't tell you that I love you
난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겠어.

Kiss or hug you

키스도 포옹도 하지 않을 거야.

Cause I'm **bluffin** with my **muffin** 여자의 성기를 상징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xx로 (오르가슴을 느끼는 척) 너를 속이고 있어.

(중략)

I wanna **roll** with him a hard pair, we will be
그와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튼튼하고 싶어.
곧 그렇게 되겠지.

막대사탕의 매력

50센트 **Candy Shop**



MOST EROTIC SONG

I'll take you to the candy shop
널 사랑 가게로 데려가줄게.

I'll let you lick the **lollipop** 남자의 성기를 상징
막대 사탕을 핥게 해줄게.

Go 'head girl don't you stop
멈추지 말게, 소녀여.

Keep going 'til you hit the **spot**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가렴.

보봐! 50센트만 주면 바지를
내릴 것 같은 인상이잖아!

다다익선

브리тни 스피어스 **3**



1, 2, 3 Peter, Paul & Mary Gettin' down with **3P**
하나, 둘, 셋 피터, 폴, 메리가 3인용 플레이
스라섬을 즐기고 있어.

Everybody loves sex
모두가 섹스를 좋아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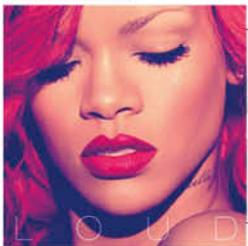
1, 2, 3 Not only you and me
하나, 둘, 셋! 나와 나 둘만이 아니야.

Got one eighty degrees
셋이서 180도를 이루고 있어.

And I'm caught in between
그리고 난 둘 사이에 끼여있지.

평범한 건 싫어

리한나 **S&M**



Cause I may be bad But I'm perfectly good at **it**
난 못됐지만 그 짓은 너무 잘해. SEX

Sex in the air I don't care I love the smell of **it**
야외에서 하는 섹스도 상관없어.
난 그 냄새가 좋거든.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막대기와 돌이 내 뼈를 부술지도 몰라.

But chains and whips excite me
하지만 쇠사슬과 채찍은 날 흥분시켜.

섹드립의 새 아이콘

마룬 5 **Kiwi**



여자의 성기를 상징
Sweet **kiwi**, Your juices dripping down my chin
달콤한 키위, 너의 주스가 내 턱 끝으로 떨어져.

So please let me
이대로 내버려둬. 저기서 흐르는 주스는 무슨 맛?

(중략)

And **spread your arms and legs across the bed**
팔과 다리를 벌리고 침대에 걸쳐너.

And when you shake you won't regret
너는 전율을 느낄 거고 후회하지 않을 거야.

마룬 5의 섹드립 송 3

마룬 5가 하면 낭만적이고,
우리가 하면 섹드립이냐?



♪ **Moves Like Jagger**
믹 재거가 그렇게 잘
했다며? 자기도 재거만큼
한다고 부르짖는 내용



♪ **This Love**
보컬 애덤과 그의 옛
애인 제인(과의 섹스)에
관한 노래



♪ **Sunday Morning**
주말 모닝섹스에
대한 예찬



더위 쫓는 일본 소설 4

휴가는 무슨 휴가,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당신을 위해 에디터의 여름 나기 도서 목록을 공개한다. 짜릿한 스릴과 치밀한 추리, 섬뜩한 묘사까지, 강한 흡인력으로 더위를 잊게 해줄 일본 소설부터 살펴보자.

BY 김희성 ASSISTANT 조종재 DESIGN 진은경 COOPERATION 황금가지 (02-515-2000)



〈제노사이드〉

다카노 가즈아키 지음, 김수영 옮김, 황금가지

※ '제노사이드'는 어느 특정한 종족이나 종교적 집단을 완전히 없앨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박해하는 것을 말한다. 아프리카 콩고의 피그미족에게서 놀라운 지적 능력을 지닌 다음 세대 인류인 '초인류'가 탄생했다는 게 이 소설의 발상으로 미국은 이 초인류를 자국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제거하려는 작전을 세운다. 일단 콩고, 일본, 미국을 넘나드는 소설의 스케일이 커서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면 방구석에서도 스펙타클한

기분을 제법 느낄 수 있다.

〈제노사이드〉는 인류학, 진화론, 국제정치, 밀리터리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고찰한다. 일본인 작가가 지은 책임에도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비판해 일본 우익들이 이 책을 깎다는데, 마침 광복절도 다가오니 더 읽어줘야겠지? "대학살을 작품에서 그리면서 일본의 과거에만 눈을 감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그려야 했다"고 밝힌 작가의 개념이 돋보이는 책. 아이고, 백만 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네.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겐토는 일본인이 저지른 제노사이드를 알고 오싹했다. 관동 대지진 직후 '소 셴성이 방화를 저지르고 우물에 독을 푼다'와 같은 유언비어가 나돌자 정부와 정치가, 신문사까지 이 근거 없는 소문을 흘리면서 일본인들이 수천 명의 조선 반도 출신 사람들을 말살하도록 부추겼다. 흉이나 일도, 방망이 따위로 사람들을 가지고 놀다가 살해하는 것으로 모자라 희생자를 땅 위에 얹혀 묶어 놓고 트럭으로 치고 나가는 잔학한 행위까지 벌어졌다. (후략)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스며들기 있는 것일까? 살해당한 사람들의 공포와 아픔은 어떤 것일까? 일본인의 무서움을 일본인은 알지 못한다. - 〈제노사이드〉 중에서 -



〈살육에 이르는 병〉

아비코 다케마루 지음, 권일영 옮김, 시공사

※ 마지막 반전이 주는 섬뜩함이甲

제목부터 피 냄새가 훅 끼치는 인기 추리소설로, 시체를 참혹하게 훼손한 연쇄 살인이 일어난 현장에서 범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고어 소설을 보는 듯한 녹록하고 더러운 기분으로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이 등장한다. 영화로 치면 〈식스 센스〉 같은 거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려나? 아, 19세 미만은 구독 불가다(그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



〈벚꽃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우타노 쇼고 지음, 김성기 옮김, 한스미디어

※ 책 따위가 사람을 능멸하다니...

이렇게 소녀 감성 톤은 제목과 일러스트가 표지에 담긴 소설을 난데없이 왜 추천하느냐고? 표지와 제목 자체가 반전이기 때문이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책 또한 섬뜩한 반전을 담고 있다. 〈살육에 이르는 병〉보다는 반전이 조금 약하다는 평도 있지만 이 책 역시 온갖 머리를 다 굴려가며 읽어도 막바지에 다다를 때까지 작가가 숨겨놓은 반전을 알아채지 못할 거다. 2004년 일본 추리작가협회상과 본격 미스터리 대상을 받은 검증된 스릴러물.



〈ZOO〉

오츠uchi 지음, 김수현 옮김, 황매

※ 다크한 기운을 내뿜는 이야기들

자, 이번엔 단편소설이다. 〈ZOO〉의 첫 번째 이야기 〈SEVEN ROOMS〉는 살인마에게 납치된 남매의 이야기인데, 마치 영화 〈큐브〉를 능가할 정도로 묘사력이 탁월하다. 그것 말고도 사람 시체로 집을 만드는 남자 이야기, 연인을 죽인 남자가 날마다 시체를 방치한 장소에 찾아가는 이야기 등, 작가는 소설의 영화화를 미리 고려하기라도 한 것인지 극도의 생생한 묘사로 한여름 더위를 식혀준다. 이걸 뭐 단편소설이 아니라 단편영화여.



내 책도 좀 봐라,
이눔들아!

곽현화가 20대 남성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3

1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김정운 지음, 쌤앤파커스

SHE SAYS 우리나라 남자들을 다독여주고 싶을 때가 많다. 집에서도 치이고 회사에서도 치이지 않나. 20대 남성들이 스스로를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이 있는 멋진 남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2 <비켜라 운명아, 내가 간다!>

마광수 지음, 오늘의책

SHE SAYS 이 책은 우리 인생에 대한 사고를 한번쯤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닥치면 그냥 체념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비단 개인만의 탓은 아닐 거다. 예를 들어 흔히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에게 "이별수가 있다", "팔자가 드셔서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혼한 당사자는 오히려 사회적 통념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건만 대중 맞춰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 책은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 즉 결혼 전에 동거를 할 수 있었다면 이혼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사회적 통념과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동거를 할 수 없었고, 결국 결혼 후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이라

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다. 모든 고난이 전부 내 탓이 아니라 어쩌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야기된 상황일지도 모르니 팔자 탓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보자는 거다. 그래서 읽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책이다. 개선 가능성이 보이나 말이다.

3 <주기자>

주진우 지음, 푸른숲

SHE SAYS 정치 관련 도서지만 내용보다는 저자의 마초 근성이 귀엽게 느껴졌다. "힘이 없을지라도 내 짱돌 하나로 되는 데까지 던져보겠다"는 근성 말이다. 20대 남성들이 무조건적으로 사회에 타협하고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기보다는 한 번 싸워봤으면 좋겠다. 되든 안 되든 남자라면 일단 짱돌 하나 던질 줄 아는 패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 책이 그런 패기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수학의 여신>

곽현화 지음, 중앙M&B

"<수학의 여신>도 한번 읽어봐라. 성인이 읽어도 알찬 책이다"(웃음)



MAXIM 추천: 얼굴 예쁜 책

표지만 보고 골랐다!



<키미야, 놀자!>
채은정 지음, 청림라이프



<걸그룹 다리 만들기>
신정애 지음, 도어북



<구은애의 실루엣>
구은애 지음, LOL works



<그녀에게 비키니를 입혀라>
박계환 지음, 성인당



<전혜빈의 스타일리시 바다>
전혜빈 지음, 스테이지팩토리



역시 MAXIMI
쟁이제!



HOT SAUCE

Women,
Dating,
Sex, and
More Sex!

The Helpful Hottie

텍사스 사막에 피어난 우아한 장미 한 송이 같은 여자 애슬리가 당신의 지력을 올려주기 위해 왔다.

PHOTOGRAPH ZOE MCCONNELL

사촌 동생이 너무 섹시해 보여요. 내가 미친 건가요? -PETE FARSKY
실제로 사촌이 매력적이어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 예쁜 사촌 누나에게 로망을 품었던 남자들도 많을 거예요. 아, 물론 그건 어릴 때 이야기고, 다 커서도 그 작은 호기심 어린 환상이 본격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상상이나 망상으로 진행되어 아직도 머릿속을 온통 채우고 있다면... 심각하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념일을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의 화가 풀릴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RICK O'NEAL
평소보다 훨씬 더 스페셜한 깜짝 이벤트나 선물이 필요하겠군요. 근데

기념일을 그냥 넘어가서 빠친 여자 친구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남자친구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잖아요? 그걸 잡지에 물어 보다니, 아무래도 당신, 힘들겠네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먹을 때마다 이마에서 홍수가 나요. 이게 정상일까요?

-JIM ALEXAKIS
그럼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이걸 통각으로 느끼고, 교감신경이 '아, 매운 캡사이신이 몸을 공격하고 있구나!' 하면서 몸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피를 빨리 돌게 한대요. 그럼 대사가 활발해지고 피부 온도가 상승하는데, 올라간 체온을 식히기 위해 땀이 나는 거예요. 정

상이고말고요! 하지만 첫 데이트때부터 남자가 모든 음식을 고추기름에 말아 먹는다면, 좀 이상해 보이긴 하겠네요.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얼마나 오래 만난 뒤여야 하나요?

-DARREN GERSCHLER
음, 두 번째 데이트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제 생각엔 한 달쯤이 적당할 것 같아요.





애슐리는 MAXIM US의 2012
HOMETOWN HOTTIES 결승
진출자다. 한국은 왜 이런 거 안
하느냐고?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2012 MISS MAXIM 콘테스트를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www.
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당장 튀어 와.

잔디가 말했다.
"최로 골레, 유로 골레 앞으로 취침!"

S+UFF

반짝반짝 눈이 부셔, 다이아몬드 티어스

난 더 이상 소녀, 아니 헤드폰이 아니에요,
패션 아이템이에요.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엄성미
HAIR 이도우 MAKE UP 고영은
DESIGN 서윤정 ASSISTANTS 서현우, 이진영, 조웅재
COOPERATION 휴먼파워(www.diamond-tears.com)

'Beats by Dr.Dre'의 홍수 난 듯 흘러넘치는 저음에 지쳤다면 외형만 큼이나 풍성하고 깨끗한 소리를 내는 '다이아몬드 티어스'를 들어보자. 스튜디오 모니터링을 지향하는 과장 없고 균형 잡힌 사운드가 아자수 사이에 묶어 놓은 해먹에 누운 듯 편안함을 준다. 산호초 속에서 찾아낸 눈부신 진주를 닮은 아름다운 디자인은 놀랍게도 JYP 박진영의 손길 헤드폰이 단순히 음향 기기의 부족품이던 시절이 지났음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가격 450,000원



" since 2001 (주)파마프로덕션
좋은 연극 만들기 프로젝트 12번째 "

"누구나 쉽게 사랑을 믿지만 그 모두가 진실한 사랑일까? 쉽게 '햇'한 네남녀의 좌충우돌 만남과 이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는 'THE PLAY'의 첫 번째 연극이다. 그리고 모두가 진실한 사랑일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연극을 만들며 이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는 'THE PLAY'의 첫 번째 연극이다."

널 사이먼도 울고갈 지적이고 맛깔스런 말의 향연!
작가는 감각과 감성 그 타이밍을 잘 알고 있다!

- kbs-idk * ★★★★★

공감가는 질문들을 관객들과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어가며 문제들을 풀어간다.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짚어내는 공연

- SBSNEWS 김신 * ★★★★★

만남과 사랑에 관한 제대로 된
연애지침서를 전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뉴스컬처 박영 * ★★★★★

관객들을 수시로 웃기고 울린다.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웃음 타이밍으로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가게 해준다.

- 세계일보 유명 * ★★★★★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혼신의 열연에
땀 터지는 재치 연기.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이야기에 끝에는
살짝 코끝 잠시 짜릿.

- 중앙sm js * ★★★★★

EVERYONE SAYS I LOVE YOU.

여우비 시즌 2

대학로 미리를 세이터 2관 | 화,수,목 7시30분 공연
02-742-7261/2 | 이메일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옥션티켓 1566-1369

OLIVE DES OLIVE

3월 14일 연극
BIG 그림책지
Dutch Wallpaper

BOOKS
THEATRE



와 함께 합니다.

비카인드 리와인드 비디오 리와인더

다 본 비디오는 처음으로 되감아서
반납하는 것이 문화인의 매너.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안진호
HELP 은평구 신사동 바다 책 비디오 DESIGN 서윤정

야지씨, 아 <끝없는 정사> 아직도
안 가져다주시면 어떡해요.
연체료 300원 안 받을 테니까
빨리 가져다주세요. 네, 네에~



오로지 앞으로만 감아주는
스포츠카 모양 비디오 리와인더
KINYO 가격 20,000원

우리는 그때

1. 김일성 사망
2. 지존파 체포
3. 성수대교 붕괴
4. 황영조, 일본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마라톤 우승

세계는 그때

1. 벨스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첫 흑인 대통령 취임
2. 제15회 미국 월드컵 개막, 한국은 볼리비아, 스웨덴과 비기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독일에 져 16강 진출 실패
3.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플레이스테이션 발매
4. 벤드 너바나의 컷 코베인 사망

주간대여 20위

◇7.16~7.20

순위	제목
1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2	취권 2
3	화소룡연사
4	투깝스
5	딩크슛
6	퍼펙트 월드
7	적각비협
8	알라딘
9	삼총사
10	데몰리션맨
11	천사의 침묵
12	잠복근무 2
13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14	리얼맥코이
15	멜리스
16	델마와 루이스
17	펜타트론
18	청사
19	하몽하몽
20	자객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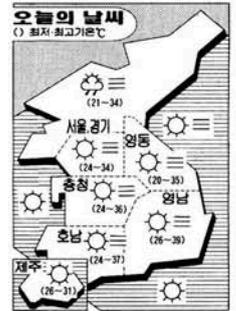
비디오는 대여 중

“아빠, 오늘 시험 잘 봤으니까 비디오 빌려도 되요?”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상으로 비디오만 한 게 없었다. 거기에 아빠 기분이 좋아서 양념 통닭이라도 시켜주는 날이면 생일이 따로 없었다. 영화와 통닭은 당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다. 동생이 전화로 통닭을 시키면 나는 신이 나서 동네 비디오 가게로 뛰어갔다. 딸랑, 가게 문을 열자 알싸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찌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가운데 진열장으로 뛰어갔다. 거기에는 막 비디오로 출시된 대작 영화 수십 장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비디오 소개 책자에서 오늘 비디오 가게에 들어온다고 쓰여 있던 바로 그 영화였다. 하지만 이미 그 많은 케이스가 모조리 뒤집혀 있었다. 혹시나 해서 꺼내 들어보지만 역시나 안은 비어 있다. 비디오가 대여 중일 때는 이렇게 케이스를 뒤집어 두거나 대여중이라고 쓰인 플라스틱 배지가 붙곤 했다. 나는 실망하지 않고 가게 아저씨가 앉아 있는 프린트를 슬쩍 올려다봤다. 가끔 운이 좋으면 막 반납된 테이프를 찾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영화는 그곳에도 없었다. 실망한 표정을 짓는 나를 아저씨가 잠시 내려다보더니 “반납할 때가 됐긴 했는데” 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네, 비디오 가게인데요, 네, 영화 다 보셨죠? 지금 가져오시면 500원 돌려드려요, 네네~”
2,000원이었던 최신 프로 대여비는 사실 저렴한 건 아니어서 1박 2일의 대여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빨리 반납하면 이렇게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나는 아저씨의 오케이 사인을 확인하고, 가게를 빙빙 돌며 언젠가 보겠다고 비디오 책자에 동그라미 쳐둔 구 프로를 괜히 들춰거리려본다. 딸랑, 한 아저씨가 테이프를 올려놓고 500원을 받아 들고 유유히 사라진다. 내가 재빨리 테이프를 집으려 하자 아저씨가 잠깐! 하며 테이프를 자동차 모양 기계에 밀어 넣는다. 불빛을 깜빡이며 빠르게 테이프가 감기는 모습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사실 대부분 VTR은 밀폐형이라 카세트테이프처럼 릴이 감기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이 기계가 무척 탐이 났다. 그냥 집에 있는 비디오 테크로 감아도 될 텐데 이상하게 이 기계로 감으면 너무나 멋질 것 같았다. 잠시 후 달칵 소리와 함께 다 감긴 테이프가 자동으로 튀어나왔다. 나는 꿈에서 깨어난 듯 아저씨가 건네는 검은 비닐봉지를 낚아채듯 받아 들고 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날 기다릴 양념 통닭을 떠올리니 짱충짱충 스텝이 절로 나왔다.

萬物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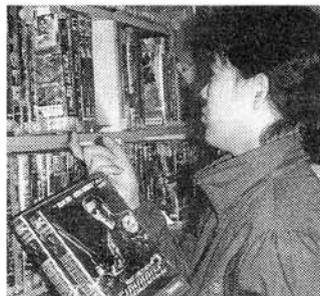
만물상회



購讀申請
02-323-1182

비디오테이프 대여점 개설비 2천8백여만 원선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점포 중의 하나가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이다. 한국 영상음반판매자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여점은 전국적으로 4만여 곳에 달하며, 특히 서울에는 1만 80여 점포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이 늘어나다 보니 고객 확보를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이는 현상 때문에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의견이 있다. 그럼에도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은 소점포 사업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업종이 아닐 수 없다. 비교적 소자본과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없이도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의 VTR 보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여점을 차리려면 우선 15평 정도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2천만 원, 인테리어비 2백만 원, VTR과 테이프 리와인더, 컴퓨터 등 비품 구입비 4백 50만 원, 기타 경비 2백만 원 등 점포 임대료를 제외하고 2천8백만 원 정도의 개설 비용이 필요하다. 비디오테이프는 청계4가와 8가에 모여 있는 전문 도매업체나 제작사와 직접 거래를 통해 구입하는데, 공물의 심의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의화:방화:홍풍:만화물을 4:3:2:1의 비율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여점 위치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상가나 3천 가구 정도의 배후 인구를 보유한 주택가 입구 등이 최적지로 꼽힌다. - 남승호 도서출판 길벗 연구원



성룡영화 주가급등!!
취권2·연일상종가
4주동안 40만의 관객이
흠뻑 취했습니다.

成龍作品
龍家良

취권 2
DRUNK SKIN MASTER II

최대한
NG모음!!

필진예매중
1 11 30
2 1 40
3 4 00
4 6 15
5 8 30
*조조/공공생 4500원
*일반 5000원
(중고생할인가) 5 8 30

동아극장 **허리우드**
2층신강남역 *파고다공원위
☎552-6111-3 ☎742-1481-2

MAXIM 뽐뿌질

누나, 백 원만...

더 완벽하게 창조하라, 액정 태블릿 Cintiq 22HD

한국와콤(Wacom)에서 아티스트의 작품 완성도를 더욱 높여 줄 태블릿 Cintiq(신디크) 22HD를 출시했다. 붓이나 펜으로 작업하는 듯한 자연스러움을 태블릿 화면 위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또 화면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편리성까지 갖췄다. 장시간의 스케치나 드로잉 작업으로 지친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 줄 Cintiq 22HD, 이제 당신은 작품 아이디어만 준비하면 된다!

가격 2,970,000원

문의 (주)한국와콤(www.wacomkorea.com)



PlayStation®Vita 신상 구입하고 선물 받자!

소니에서 게임광이면 꼭 소장하고 있어야 할 PlayStation®Vita(PS Vita)를 화이트 컬러에 크리스탈 컬러를 더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했다. 5인치의 멀티 터치 스크린과 터치 패드, 아날로그 스틱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했다. 소니는 새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무선 컨트롤러, 전용 메모리, 소프트웨어 타이틀을 증정하는 행사나 새로운 PS Vita를 구매하고 선물도 챙겨보자.

가격 368,000원 문의 플레이스테이션(www.playstation.co.kr)

레노버, 울트라북™ 하우스 오픈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 노트북만 보면 흥분하는 당신에게 구미가 당기는 소식을 전한다. 한국레노버가 7월 한 달간 강남역 M-stage에서 3세대 인텔®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울트라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하우스 체험 고객 중 추첨을 거쳐 울트라북, 무선마우스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자, 이름처럼 실제로도 제품이 울트라 캡송인지 직접 체험해볼까?

문의 레노버클럽

(www.lenovoclub.co.kr)



빅 잼박스 하나면 사운드 Up! 분위기도 Up!

블루투스 무선연결을 통해 뽐뽐한 사운드를 전하는 스피커, 빅 잼박스를 소개한다. 12kg의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다. 그러나 음향의 반전 방한을 가득 채우는 뽐뽐한 사운드로 음악을 감상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 또 최대 15시간 동안 연속 재생이 가능해 휴가지에서도 재충전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녀와의 휴가 첫날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음악이 필요하다면 이제부터 빅 잼박스과 함께하자.

가격 449,000원

문의 두고테크(02-590-9732, www.dugotech.co.kr)



태양광으로 충전해 쓰는 로지텍 솔라 키보드

당신의 집에 햇살이 조금이라도 비추다면 이런 키보드는 어떨까? 로지텍에서 태양 광선으로 충전해 사용하는 무선 키보드를 출시했다. 로지텍 K760은 별도의 전기 충전이 필요 없어 친환경적이며,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 제품이다. 또 블루투스를 연결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맥, 아이패드, 아이폰을 자유롭게 바꿔가며 쓸 수 있다. 애플 제품을 세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면 주목할 만한 제품이다.

문의 로지텍코리아

(www.logitech.co.kr)



장마철에도 문제없어요~! 올림푸스 아웃도어 카메라 TG-1

여름휴가 때 필수 아이템인 아웃도어 카메라는 다들 장만했는가?

아직도 카메라를 구입하지 못하고 눈팅 중이라면 여기를 주목하라. 올림푸스에 새로 출시한 TG-1은 GPS와 전자식

나침반 기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홀로 아마존에 떨어지더라도 문제없다. 또 방수성과 내구성이 탁월해 장마철 카메라를 비에 노출하거나 험하게 다루도 끄떡 없다. 올림푸스의 색채 보정 기능인 매직 필터는 기존 10종류에서 2종을 더 추가해 카메라의 자체 보정력을 높였다. 혼자 하는 여행이라면 친구삼아 올림푸스 TG-1을 챙겨보자.

가격 469,000원

문의 올림푸스 한국(www.olympus.co.kr)



FIGHT

SHOT OF THE MONTH

필리핀 무허가
사술에 당하다니...

이것이 양악 편치대!

파퀴아오 vs. 브래들리

세계 최고의 복서 파퀴아오가 결국 7년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졌다고 할 땐 언제고, 이놈의 심판들이 다 동태 눈깔인가?

IMAGE 연합뉴스 DESIGN 전은경

한 국 시간으로 지난 6월 10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WBO 웰터급 세계 타이틀 매치. 지키는 자는 복싱 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위대한 복서 매니 파퀴아오, 벨트를 빼앗으려는 자는 만 28세의 떠오르는 복서 티모시 브래들리였다. 뜨거운 12라운드가 끝나고, 심판들은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챔피언에게 1-2 판정패를 안겨줬다. 파퀴아오는 허탈하게 웃고 군중들은 아우성쳤다. 일부 도박 사이트는 경기 베팅 자체를 무효화했다. 무엇보다 필리핀의 영웅 파퀴아오의 패배에 필리핀 전체가 멘붕에 빠졌다. 필리핀 여성 팬들은 TV 앞에서 눈물을 펄펄 쏟았고, 심지어 대통령도 직접 나서 국민을 진정시켰다.

너는 뭐임? 뜬금없이 미국 상원 의원 해리 리드가 나서 이 판정을 "사법 당국이 조사해야 한다"며 방방 뛰었다. 사실 파퀴아오의 프로모터 밥 애덤과 절친인 리드는 2010년 파퀴아오의 지지로 필리핀계 표를 모아 겨우 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다. 거참 화끈한 보은일세.

하늘은 파퀴아오의 7년 연속 무패 행진을 멈추고 싶지 않았건 것일까? 판정패 논란에 곤란해진 WBO가 베테랑 심판 5명을 앉히고 비디오판독을 했고, 5명 모두 그날 경기의 승자로 파퀴아오를 지목했다. 이로써 파퀴아오는 공식적으로 7년 연속 무패의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WBO가 경기 결과를 번복하지는 않았기에 타이틀은 여전히 브래들리의 것이다. 오는 11월 브래들리와의 재대결 이야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운데, 필리핀으로 돌아간 파퀴아오는 7월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완벽한 승리를 예고했다. "(브래들리와) 다시 붙는다면 심판이 아예 필요 없을 거다."

Road FC 008 Bitter Rivals

소문난 잔치엔 먹을 게 있었다. 많이 있었다.
IMAGE ROAD FC (www.roadfc.com) DESIGN 서윤정



밴텀급 토너먼트 4강
앤드류 리온(승) VS 송민중

아앗 거 거긴
아양~대!

경기 중간 앤드류가 바지가 찢어졌다고 뺑끼를
부리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로드FC 링걸의 자태

어김없이 로드FC를 찾아주신 옥타곤의 아프로디테 4인방.



밴텀급 토너먼트 4강
강경호(승) VS 문제훈

강경호의 화려한
서브미션과 파운딩
세례를 곳곳이 버티던
문제훈은 초크에 걸려
땀을 치고 말했다.



ROAD FC 부대표 박상민



밴텀급 토너먼트 결승
강경호(승) VS 앤드류 리온

준결승전에서 선보인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앤드류를
제압하며 로드FC 밴텀급 최초의 챔피언이 된 강경호, 그
덕분에 로드FC는 여성 팬 모으기가 한결 수월해 질 듯...



내 품에 안겨
올어도 돼!!



**밴텀급 리저브매치
김수철(승) VS 사토 쇼코**

끊임없이 허공을 가르던 김수철의 백스핀 엘보가 인상 깊었던 경기. 석연치 않은 닥티스틀 TKO승 편정 때문에 재대결 확정.

한숨만 자고 이겨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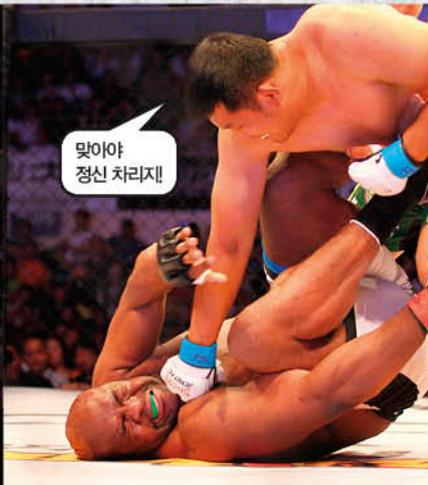
**페더급 슈퍼 파이트
서두원(승) VS 하라이 토루**

하라이 토루의 신들린 기질 연기가 일품이었던 경기. 아마 레프리도 죽은 줄 알았을 거야...



**무제한급
김종대(승) VS 밥 샐**

샐 이거 안 놓으면 존나 후회할 거야



맞아야 정신 차리지



특선 어린이 인형극 '밥샐까지인형' By 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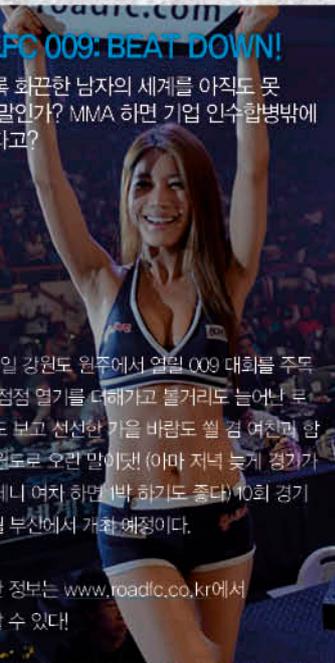
메인 이벤트 경기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 밥 샐 경기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건 기본 탓.

로드FC 009: BEAT DOWN!

이토록 호끈한 남자의 세계를 아직도 못 뵈단 말인가? MMA 하면 기립 인수합병밖에 모른다고?

9월 15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009 대회를 주축 하려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볼거리도 늘어난 로드FC도 보고 신선한 가을 바람도 쐬려 한 번 강원도로 오면 말이네! (아마 저녁 늦게 경기가 끝날 테니 여차 하면 1박 하기도 좋다) 10회 경기는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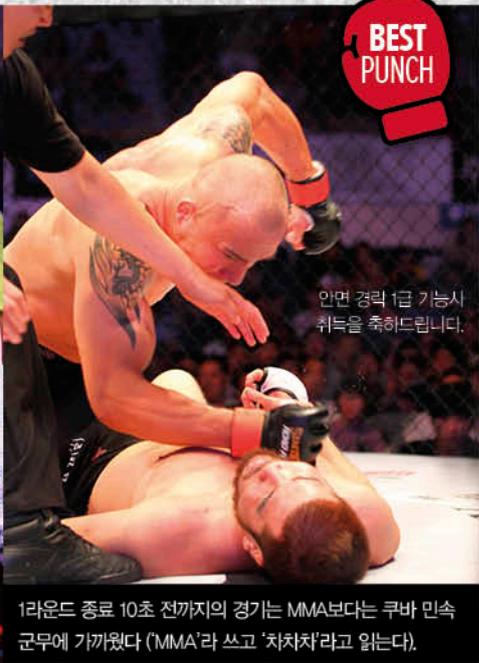
자세한 정보는 www.roadf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들급 슈퍼 파이트
데니스 강(승) VS 손해석**



BEST PUNCH



안면 경력 1급 가능사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1라운드 종료 10초 전까지의 경기는 MMA보다는 쿠바 민속 군무에 가까웠다 ('MMA'라고 '차차차'라고 읽는다).

ROAD FC
 밴텀급
 초대챔피언
 Mr. Perfect
 강경호

첫 챔피언을 배출한 008 대회,
 그 주인공인 챔피언 강경호를 만났다!
 어이구, 이 청년 뉘집 자식인지
 참 자알~ 생겼대!

HELP 이홍수 칼럼니스트
 IMAGE ROAD FC(www.roadfc.co.kr)
 DESIGN 서윤정



생년월일: 1987년 9월 9일
 신체: 키 173cm, 체중 69kg
 소속팀: 부산 M.A.D
 경력: 2012년 1대 로드FC
 밴텀급 초대챔피언



강경호 승리 기쁨 3중 세트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차자마자 뭘 했나?

축하를 받고 바로 구미로 내려가야 해서 차를 얻어 탔는데, 하필 그 차가 4강전 상대인 문제훈 선수 팀 관장님 차였다. 나랑 우리 관장님은 기쁨을 표현하기도 못하고 조용히 끼어서 내려갔다. ㅎㅎ.

소속 팀(팀매드)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그냥 주짓수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기술 보고 친구들과 집에서 스파링도 하고 그러다, 고3 때 다니던 체대 입시 학원 옆에 지금의 체육관이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입관했다. 그러다 관장님 권유로 주짓수와 MMA 시합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점점 인정받게 됐다. 살면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잘난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인정받으니 정말 좋았다. 힘든 훈련 후 시합에서 이길 때의 짜릿함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파이터의 삶을 선택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슬링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레슬러를 레슬링으로 불러버린다지?

아, 어떻게 레슬러를 레슬링으로 부르겠나. 잘못 들었겠지! 같이 훈련하는 동생들이 들으면 웃을 거다. 자신감이 생긴 건 맞다. 레슬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집중 훈련을 한 게 큰 도움이 됐다. 예전엔 레슬링만 하면 다쳐서 기피했는데, 애정을 갖고 보니 재미와 맛을 알게 됐다. 그 후 실력이 쭉쭉 늘었다.

레슬러들은 잡자리에서도 여자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풍문이 있다. 레슬링에 능한 당신에게 물겠다. 그 풍문이... 사실인가?

그건 풍문을 떠나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하지만 난 사랑받는다. ㅎㅎ.

운동신경과 반사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 같다.

하지만 공으로 하는 건 정말 못한다. 내 몸 하나로 하는 운동은 잘하는데, 공이 들어가면 쥐약이다.

맨날 잘생겼다. 꽃미남이다 하는데 이제 그런 말도 식성할 것 같다. 설마... 잘생겨서 피곤할 때가 있나?
 잘생겼다는 소리는 들을 때마다 좋다. 불편할 정도로 잘생기진 않아서 불편한 점은 아직 못 느낀다. 사실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과하게 잘생겼

다고 해주시는 분들 앞에선 조금 부끄럽다.

홍! 배부른 소리 마라. 하여튼 우린 당신 주변을 뺏고 시해서 "경호는 입을 열면 깡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내가 생각해도 깡다. ㅎㅎ. 멋진 중저음도 아니고, 일단 부산 사투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 평소 인터뷰할 때 목소리 같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로드FC 007 대회 때는 승리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한 상태에서 인터뷰했다. 방송으로 보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다시는 그 인터뷰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결승 상대인 앤드류 리온을 파운딩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심판을 쳐다보면서 "왜 안 알려주냐" 하는 어필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시합 도중 정타가 몇 차례 들어갔는데 갑자기 상대가 뭐라고 내게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심판에게 "애가 뭐라고 하는데요?"라고 했다. 심판이 "계속해!"라고 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파운딩을 퍼부었다.

링 위에서 선수끼리 신경전도 있나?

리온 선수와는 등장하기 전까지 뒤에서 장난치며 놀았다. 대기실로 가는 길에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거나 등 때리고 도망치고. 그러다 시합 땀만 사람이 되는 걸 보며 참 이중적이라 생각도 했다. ㅎㅎ.

지난 7월호 MAXIM과의 인터뷰에서 UFC 파이터 김동현 선수가 "경호가 나보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키는 내가 더 크고, 결정적으로 여자들은 키를 본다"라고 했다. 열받지 않나?

나도 평균 키는 되니까 별로 작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 어딜 가든 동현이 형이 인기 많은 건 사실이다. 근데 그건 단지 인지도 때문인데! 내 인지도가 형만큼 클 되면 그때 다시 승부를 봐야 할 것 같다. 하하.

여자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딜 단련해야 하나?

보통 여성들은 복근과 골반 옆 근육을 좋아하더라.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종아리 근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다. 여러분, 종아리 운동 많이 하세요!

김동현 선수가 당신의 UFC 입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아직까지는 어떤 접촉도 없다. 로드FC 타이틀 방어전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 열심히 훈련할 거다.

예수 차원에서, 현 UFC 밴텀급 챔피언 도미니크 크루즈를 격투기 선수로 어떻게 평가하나?

올라운드 파이터에 복싱이 아주 뛰어나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경험을 많이 쌓아 그와 붙는 날이 오면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다.

훈련하지 않을 때는 보통 뭘 하고 노나?

집에서 뒹굴거리는 걸 매우 좋아한다. 아무 생각 없이 종일 누워 있거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한번에 몰아보기도 한다. 인터넷으로 격투기 영상도 보고.

에이, 시시하다, 시시해! 여친과 최근에 함께 본 19금 영화는 뭔가?

여자친구와 19금 영화를 본 적은 없다.

만약 누군가 챔피언 타이틀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신묘한 힘을 주는 대신, 그 잘생긴 얼굴을 육동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신묘한 힘을 받아 타이틀을 오래도록 방어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형을 하는 건 어떨까?

파이터인 당신이 무서워하는 건 무엇인가?

벌레. 생선 눈알과 개구리도 정말 무서워한다.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다. 한번씩 눈 감고 죽을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한다. ㅎㅎ.

젊은 사람이 취미 한번 독특하다. 선수로서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님께 몸은 참 잘 물려받은 것 같다. 팔다리도 길고, 허리 힘은 팀 선수 중 최고다.

대표적 주특기는 무엇인가?

시합 때 자주 쓰는 플라잉 니킥과 안아 던지기. 아, 그라운드에서는 리어 네이키드 초크와 트라이앵글 초크를 잘 쓴다.

타이틀 방어전 일정은 잡혔나?

11월쯤인데 상대는 안 잡혔다. 누구와 싸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자들과 겨뤄 보고 싶다.

당신 같이 몸 좋은 남자가 목욕탕에 딱 들어서면, 다른 남자의 부러운 시선이 느껴지지 않나?

물론 그럴 때가 있다. 하지만 남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승자는 몸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2012년 끝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음... CF를 찍어 보고 싶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싸요. ㅎㅎ. 아직 시기상조고, 그런 가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훈련하겠다.

(오늘은 나가수 아니고)

ROAD FC 부대표 박상민

〈나가수〉 녹화 전날 마포의 한 연습실을 찾았다. 김현식의 '희상'을 막 열창하고 나온 그와 격투기에 관해 애정과 열정 어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분명 그의 눈동자는 반짝였을 것이다. 선글라스 때문에 확인할 순 없었지만 말이다.



박상민에게 000은?

햄버거: "K모 버거에서 스폰서 문의를 했다고 들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햄버거 한 3천 개를 돌려라고 했다. 거 뭐 얼마나 한다고."

파이터 사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잘해야 한다. 어느 단체 챔피언 정도는 해야지. 이왕 하는 거면."

김동현의 외모(편집장이 자꾸 멋있다고 하자): "솔직히 뭐가 잘생겼냐! 딱 봐도 남자답게 생긴 거지. 생긴 건 경호가 낫고, 몸은 김석모가 이쁘다."

화끈한
사나이의
세계



어쩌다 격투기와 사랑에 빠진 건가?

<킹 오브 더 케이지>를 보면서다. 어우 미치겠더라. 피가 끓지. 맨 앞줄에서 프라이드를 보려고 일본에 갔다가 노게이라와 같은 호텔에서 잔 적도 있다.

노게이라와 같은 호텔에서 잤다니, 뭔가 아찔한걸?

방 말고 호텔! 국내에선 스피릿 MC 때부터 지금 로 드FC까지 크고 작은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가서 봤다.

연예인에겐 공짜로 티켓을 주나?

누구한테 표를 부탁하고 그런 걸 아주 싫어한다. 당연히 자비로 가이지. 그러다 로드FC 측과 알게 되었고 정문홍 대표도 만났다. 처음엔 조금 도와주는 정도였다. 전에도 경기 때 지방 선수들이 서울 오면 종종 숙식을 지원하곤 했으니까. 정 대표도 처음엔 날 더러 '별로 관심도 없는데 주변에서 깔려대거나 하는 연예인'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 나중에 내 자신을 알고 "형님으로 모시겠다"며 오해를 풀었다.

우리도 당신이 부대표 발표를 듣고 놀랐다. 굳이 갈투가 필요 없는 중견 기수가 종합격투기 단체 부대표라는 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다.

20년 차 고참 가수고 가수협회 부회장이지만, 시건방 떠는 건 죽어도 싫다. 게다가 전혀 무관한 분야의 사람이 부대표라니 시선이 곱지 않을 거고, 하지만 이용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름뿐인 자리는 싫다. 금전적으로 지원도 하고, 방송 일도 조율해줬다. 방송국에서 좀 깔찍지근하게 굴면 상암동 방송국에 찾아가서 직접 얘기도 한다. 격투기 관계자는 방송 일을 잘 모르고, 또 내가 가면 대접부터 다르니까. <주먹이 운다> 시즌 3에는 직접 출연할 계획이다.

지난 원주 대회엔 정말 많은 관중이 와서 놀랐다.

올해 안이나 내년 상반기쯤 완전히 자리 잡을 거다. 아직 유료 관중 수도 미비하고 수익은 마이너스다. 식구들의 사비로 운영하는 부분도 여전히 많다. 지난 경기 중간에 나온 <개콘> 쌍갈 아저씨도 자비로 섭외한 거다.

연예인이 연예인을 자기 돈으로 설외했다는 말인가?

홍행이 더 돼야 큰 기업에서 후원받고 선수 개런티도 많이 줄 수 있다. 지금은 UFC보다 시청률이 더 나와도 대접받지 못한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공짜표나 비라는 연예인도 있는데, 개그맨 이승윤은 경기 때마다 한 5백만 원씩 낸다. 참 대단하다.

여성 관객을 유치하는 게 관건이다. 방법이 있을까?

격투 스포츠를 무식하고 위험하다고들 한다. 한 대 맞으면 심판이 뛰어와 말리는데, 이렇게 안전한 경기가 어디 있나? 편견 없이 직접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 장담하는데 한 번 보면 팬이 된다. 경기에 재미를 더하는 건 내 몫이고, 경기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잘 준비할 거다. 오락과 액션이 가미된, 캐 영화보다 멋지지 않나? 지난 008 경기 맨 내가 마이크 잡고 노래까지 했다. 앞으로 걸그룹 공연 같은 엔터

테인먼트를 많이 준비할 예정이다.

"쇼적인 면을 부각하기보다는 순수하게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미 요소는 많아야 한다. <나가수>를 보면 건모랑 나, 정엽이 정도만 오락이다.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나. 노래할 땐 노래하고 노래 안 할 땐 재밌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경기 외적인 흥밋거리도, 재미있는 선수도 많아야 한다. 그래야 사랑받는다.

무대에서 맨붕을 경험한 적이 있나?

로드FC 무대에 오르는 게 더 떨린다! 아, 막 누구한테 상 주고 하는 거 좀 그렇다. 품 잡는 것 같고.

경기 때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 숙식을 자비로 제공했는지? 호텔비를 확 카드로 긁었다는 얘길 들었다.

계체량 끝나고 식사 대접도 했는데, 그걸 보고 외국 손님고 기자들이 많이 놀라더라. UFC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면서 아주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 아 근데, 밥 섹 이놈이 많이 쳐먹어가지고, 이시키...

그렇게 큰돈을 쓰면 집에서 싫어하지 않나?

와이프 몰래 한다. 근데 아마 알 거다. 괜찮다. 우리 와이프 맛있는 사람이다.

연예인 중 파이터 기질이 있는 사람을 꼽자면?

김창렬. 이런 애들은 말해봐야 뭐, 나이 40 먹어가지고 뭘 해.(일동 폭소) 신화 전진이 하면 참 잘 할 거다. 사이니의 민호도 전반적으로 운동신경이 무척 좋아서 하면 굉장하 잘하지 않을까. 에릭인가? 그놈도 주짓수 배운데, 그런 애들이 경기장을 찾아줘야 흥행에 도움이 되니 많이들 오면 좋겠다.

얼마 전 김동현 선수가 석패했다.

너무 긴장해서 아예 일어서서 봤다. 동현이가 태클에 넘어지면서 갈비뼈 쪽이 자기 팔에 부딪쳐 다친 것 같았다. 본인 아니면 그 심정을 어찌 알겠나. 죽을 만큼 힘들게 준비했을 텐데 안타깝지.

008 대회의 밥 섹vs.김중대 경기는 말이 많았다.

사람들이 이걸 소로 몰아가는데, 밥 섹이 어네스트 호스트 대전 이후 가장 열심히 싸운 경기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다. 1라운드에서 탭할 줄 알았는데, 2라운드까지 가서 심판이 말렸잖나. 경기 전에는 데니스 강에게 "김중대가 지난번에 어떻게 졌느냐"고 계속 물어보고, 하체 관절기 연습도 엄청 열심히 했다.

어릴 때 싸움 좀 했나?

결령거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어른에게 할부로 군 적은 한 번도 없고, 누굴 괴롭힌 적도 없다.

격투기를 배울 생각도 있나?

싫다. 안경을 벗어야 하니까.

그리고 보니 수업은 당신을 맨 처음 TV에서 볼 때부터 있었던 것 같다.

어, 맞다. 중간에 소속사에서 깎으라고 해서 딱 한번 깎았는데, 반응이 시원찮아 다시 길렀다.

터프 가이들이 의외로 사소한 걸 겁낸다. 당신도?

귀신 완전 무섭다!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뻘한 것들은 다 겪어봤다. 녹음실 귀신 소리 같은 거 말이다. 한번은 녹음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동공이 싸해지면서 머리털이 확 서더라. 차가운 뭔가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뒤돌아보면 청바지 아가씨가 워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들어보니 이름만 부대표는 확실하지 아니군.

그런 건 진짜 싫다니까. 홍보 대사만 30개 넘게 했는데, 전부 다 진심으로 열심히 했다. 어쨌든 이제 격투기 종사자들이 "박상민이 우릴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 솔직히 난 부대표 안 하고 그냥 경기장 가서 표 사고 보면 끝이다. 100만 원도 안 든다. 100만 원이 뭐여. 내 돈 몇 천만 원 내고 단돈 10원 한 장 안 받는다. 왜 그 고생을 하겠나? 좋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걸 모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게 빙신들이지.

본업은 어찌고?

단독 콘서트 일정이 9월 중순 금토 일요일부터 시작인데 딱 중간에 009 경기랑 겹친다. 골치 아파서 콘서트 관련 업무 전화를 4일째 안 받고 피하는 중이다. 봐, 인터뷰 중에도 계속 전화 오잖아. 가수에겐 공연이 제일 중요한데, 대회 때문에 콘서트 일정을 미룰 지경이다. 하지만 돈 많이 벌어서 선수를 후원하는 재단 만드는 게 꿈이다.

애정이 진짜 남다른군.

좋으니까. 그걸 이상하게 보면 되게 화난다. 가끔 경기 전에 선수 한 20명씩 밥을 사주는데, 진짜 잘 먹더라. 체중 관리 때문에 안 먹을 줄 알았다. (김)수철이는 눈 수술도 시켜줄 거다. (손)해석이도...

성형 수술까지 해준다고? 말소사!

아니,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거 말이다! 🙄



“앤더슨 실바는 현실에 나타난
‘이소룡’ 같은 존재입니다.” 조 로건(UFC 해설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경기를 끔찍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죠.”
마이클 골드버그(UFC 캐스터)

LIVING GOD OF FIGHT

패배를 모르는 남자 앤더슨 실바

6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나이,
앤더슨 실바. 그가 지난달 8일 차엘 소넨과의 경기로
UFC 15연승의 대업을 달성했다.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DESIGN 신숙희
IMAGE 연합뉴스

2011년 8월, 앤더슨 실바는 9차 방어전에서 오카미 유신과
두 번째로 맞붙었다. 오카미는 7분 4초를 견디고 쓰러졌다.

앤 더슨 실바는 2006년 1월 이후 6년 6개월 동안 진 적이 없다.

마지막 패전인 오카미 유신전은 크게 앞서 나가던 중 룰의 차이점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한 기술(업킥)로 말미암은 반칙패였다. 이를 제외하면 그의 마지막 패전은 2004년 12월로 지금으로부터 7년 8개월 전이다. 현재 그는 16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UFC에 진출한 이후만 따져도 15연승 중이다. UFC 최다 연승 기록이다. 2위 기록인 호이스 그레이시의 11연승을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 실바가 리치 프랭클린을 꺾고 UFC 미들급 챔피언이 된 시점은 2006년 10월로 무려 5년 9개월째 왕좌를 지키고 있으며, 그동안 10명의 도전자를 좌절시켰다. 그의 10차 방어는 UFC 최장 연속 방어 기록이다(2위는 조르주 생피에르의 6차 방어). 그는 11차례 벌인 UFC 타이틀 매치에서 9명에게는 종료의 버저 소리조차 들려주지 않았다.

이 역시 UFC의 최고 기록이다. 지난 4~5년간 각종 매체에서 꼽는 P4P(체급을 불문하고 최고의 선수를 지칭하는 개념) 1위를 독점하고 있는 앤더슨 실바를 UFC의 CEO 데이나 화이트는 이렇게 평가했다.

“**종합 격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이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스트라이커가 등장했다.”
조 로건(UFC 해설자)



2011년 5월, UFC 126, 8차 방어전에서 실바는 1라운드 3분 25초 만에 비토 벨포트를 앞치기 일발로 눕혔다.

가난한 맥도날드 점원

1975년 브라질의 쿠리치바에서 태어난 실바는 어린 시절 주짓수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며 습득해야 했다. 다행히 그가 12세가 될 즈음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지자 태권도 도장을 다닐 수 있게 됐고, 카포에이라도 익혔다. 16세 땀 무에타이에 입문했다. 그리고 앤더슨 실바는 17세에 당시 13세(한국 나이로 15세)이던 부인 다이앤 실바와 만났다. 프로 파이터가 되기 전 그의 직업은 맥도날드의 점원이었다. 1997년 6월 25일 마이너 무대의 한 토너먼트에서 데뷔한 실바는 1KO와 1서브미션 승을 거두면서 우승했다. 그의 세 번째 경기는 3년 후였는데, 루이스 아제레도를 상대로 실바는 판정패하며 최초의 패배를 경험했다. 캐리어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997년 6월부터 2006년 1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16승 4패 8KO 3서브미션으로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기록이었다. 메이저 무대였던 프라이드에서는 진퇴를 거듭했다. 소속팀이던 슈트복세 아카데미의 대표는 실바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를 배척했다. 결국 슈트복세 아카데미를 나온 실바는 은퇴를 고려하면서 도장을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그를 붙잡은 인물은 바로 '파자'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였다. 노게이라 형제가 주축이 되어 탄생한 블랙하우스에서 실바는 료토 마치다와 주니와 도스 산토스 등 미래의 챔피언들과 함께하게 됐다.

UFC를 뒤흔들다

곧이어 UFC가 실바를 불러들였다. UFC 데뷔전의 상대는 터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크리스 리벤이었다. 난타전 취향이면서 상대의 강력한 타격을 문제없이 흡수하는 선수로 유명한 리벤이었지만 실바를 상대로 그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49초에 불과했다. 같은 해 10월 UFC는 실바에게 타이틀 샷을 선물했다. 당시 챔피언은 리치 프랭클린이었다. 프랭클린은 22승 1무 1패를 기록하던 매우 뛰어난 선수였지만 1라운드 시작 1분 30여 초가 지난 무렵 실바가 타이 클린치로 프랭클린을 묶으면서 주도권이 실바에게 넘어갔다. 연이은 니킥에 복부를 강타당하던 프랭클린이 복부를 방어하기 위해 팔을 아래로 내리자 실바는 프랭클린의 안면을 무릎으로 강타했고 마무리 폭격으로 심판의 TKO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실바는 통산 세 번째 승리를 거두었으며 최초의 메이저 벨트를 허리에 감았다.

1차 방어전의 상대였던 트레이스 루터는 7분 11초(2라운드 2분 11초) 만에 삼각 조르기를 잡힌 상태에서 팔꿈치로 머리를 계속 공격당하다가 항복했다. 2차 방어전에서 실바를 상대했던 네이트 마퀴트는 4분 50초를 버티고 TKO패했다. 4차 방어전의 도전자는 '위대한' 댄 헨더슨이었다. 그는 당시 프라이드 웰터급과 미들급 챔피언 자격으로 실바와 UFC-프라이드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을 벌였다. 헨더슨은 모두

가 기대한 대로 실바와 정면 승부를 벌였다. 그리고 총 경기 시간 9분 50초 만에 펀치를 맞고 심한 충격을 받은 후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허용하고 항복했다. 실바의 다음 경기는 라이트 헤비급 매치였다. 논타이틀전이었고, 상대는 제임스 어빈이었다. 그는 1분 1초 만에 쓰러졌다. 5차 방어전에서 만난 페트릭 코테는 경기 시간 10분 39초 만에 무릎 부상을 이유로 경기를 포기했다.

6차 방어전의 상대는 얼마 전 김동현에게 승을 챙겨간 데미안 마이아였다. 주짓수의 초고수인 마이아는 오로지 테이크다운과 그라운드를 노렸고 실바는 멀리서 장거리 저격을 시도했다. 경기는 매우 지루해졌고 화이트와 팬들은 실바를 향해 아우를 쏟아냈다. 한국 프로야구 초창기의 명장이었던 김영덕 감독은 이만수 현 SK 와이번스 감독의 트리플 크라운 기록을 지켜주기 위해 다소 치사하게 보일 수 있는 기용을 강행한 적이 있다. 당시 매스컴과 팬들은 이를 두고 성토에 나섰다. 그때 김영덕 감독이 남긴 한마디가 걸작이다. "비난은 순간이고 기록은 영원하다." 앤더슨 실바도 꼭 그렇다. 당시에는 비난이 있었지만 기록만큼 오래가지는 않았다. 경기 내용이야 어찌되었건 실바는 마이아를 상대로 넉넉한 판정승을 거두

면서 UFC에서 6차 방어 성공이라는 전인미답의 경지에 올랐다.

vs. 입 걸레 차엘 소넨

차엘 소넨은 시적 표현과 똑떨어지는 각운, 시크하고 냉소적인 골계미를 가진 말솜씨로 독설을 쏟아내는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다. 2010년 4월 11일, 앤더슨 실바의 7차 방어전 상대기도 했다. 그는 경기를 앞두고 앤더슨 실바를 향해 "실바의 주짓수 블랙 벨트는 노게이라 형제의 해피밀 세트에 떨어 나오는 장난감 같은 것", "앤더슨 실바는 돈이 급한 청년보다 더 오래 누워있을 것", "그를 꺾고 그의 집으로 가 그의 아내에게 미디엄 레어의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그녀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식사를 즐기겠다" 등의 독설을 내뿜었다.

경기는 메가톤급 스릴러였다. 소넨은 1라운드부터 실바의 안면에 왼손 클린히트를 적중시키며 주도권을 가져갔다. 소넨은 실바를 계속해서 넘어뜨렸고 실바의 몸 위에 올라타고 300여 차례 파운딩 펀치를 퍼부었다. 5라운드의 2분을 남겨놓은 시점까지, 즉 25분 경기의 23분을 소넨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 챔피언이 탄생하기까지 2분 정도 남았다"는 해설진의 멘트가 나오던 무렵, 대반전이 시작됐다. 아래쪽에 깔려 있던 실바가 팔꿈치와 주먹으로 소넨을 툭툭 건드리다가 급작스럽게 삼각 조르기를 잡아낸 것. '역전'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어울릴 수 없는 극적인 명승부였다.

경기 직후 소넨 검사에서 소넨의 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됐다. 그의 몸에서 과도한 분량의 남성호르몬이 검출됐고 그것은 곧 PED를 사용했다는 증거였다. 소넨 정도의 선수가 약물을 복용하고 덤볐는데도 실바를 꺾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10차 방어전은 소넨과의 2차전이였다. 1라운드는 1차전 때와 마찬가지로 소넨이 압도했지만 2라운드가 되자 약물의 힘이 빠진 탓인지 소넨은 급격히 힘이 떨어졌다. 몸을 회전시키며 백핸드로 후러치는 스피닝 백피스트를 실패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소넨의 복부에 실바의 니킥이 깊이 박혔고 그것으로 궤멸적인 대미지를 입은 소넨은 잠시 동안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다 레프리의 구원을 받았다. 뚱뚱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는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고 TKO승으로 어쨌든 앤더슨 실바는 10차 방어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지난 7월 8일 UFC 148에서의 일이다.

앤더슨 실바의 타격 박람회

2009년 8월 9일 실바는 다시 한 번 라이트 헤비급 매치를 치렀다. 상대는 라이트 헤비급의 전 챔피언이었던 포레스트 그리핀. 그를 상대로 실바가 선보인 타격기의 대향연을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니 연속 장면 투척!

내가 제일 셀?

오른쪽 연속 장면에서 실바는 두 번의 스위치 스탠스로 그리핀의 공격을 세 번 피하면서 네 번의 펀치를 시도해 마지막 라이트 훅을 클린 히트시켰다. 불과 3초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는 오직 앤더슨 실바만이 구사할 수 있는 테크닉이다.



1 왼손잡이 상태에서 레프트 스트레이트 출발!



2 밧나가고 뒷발이 앞으로 나오네요.



3 오른손잡이 스탠스로 변환 즉시 라이트 훅!



4 그리핀이 돌아가는 길목을 차단합니다.



5 라이트 훅 클린히트!



6 그리핀 생각보다 충격이 큰가요?



7 잠시만 누워 있을게요.

어때요, 따라하기 참 쉽죠?



UFC NO.1 타격가

UFC에서 타격은 길이와 속도, 정확성과 파괴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문제는 길이와 속도는 보통 반비례하며 정확성과 파워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팔 길이가 길면 속도가 느리고 팔 길이가 짧으면 속도가 빠르다. 또, 정확하게 때리면 파워가 약해지고 힘을 실어 치면 적중률이 떨어진다. 일반인이라도 길이, 속도, 정확성, 파괴력 이 넷 중 하나는 꽤 괜찮은 법이다. 선수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뛰어나야 한다. 만약 세 가지 이상에 자신이 있다면 당신은 일류 타격가다. 예를 들면, 존 존스는 길고 빠르고 정확하다. 호세 알도는 빠르고 정확하며 파워풀하다. 닉 디아즈는 길고 정확하면서 힘이 있다.

앤더슨 실바는 한계체중 84kg의 UFC 미들급에서 신장 188cm에 197cm의 매우 높고 긴 리치를 자랑하며, 체급대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이다. 그의 타격이 지닌 파괴력은 극단적이다. 걸리기만 하면 누구든 넘어간다. 표도르와 쇼군의 클린히트를 먹고도 버티내는 댄 헨더슨조차 실바의 펀치에 당하자 즉각 다리가 풀렸다.

실바의 타격(잡이나 프론트 로킥을 제외한 강타만을 따졌을 때) 적중률은 67%다. 참고로 헤비급 챔피언 주니어 도스 산토스의 적중률은 49%, 라이트 헤비급의 존 존스가 51%, 웰터급의 생피에르가 54%, 라이트급의 벤 헨더슨은 42%, 페더급의 조제 알도가 49%, 벤틀급의 도미니크 크루즈가 30%를 기록하고 있다. 대박이지 않나? 왼손잡이-오른손잡이 스탠스를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그의 엠비덱스트로스(양손잡이) 스타일은 지극히 유니크하다. 거리와 앵글, 그리고 통하는 기술과 잘 안 먹히는 기술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1.5명과 싸우는 느낌일 것이다.

그라운드에서 앤더슨 실바는 주로 하위 포지션을 취한다. 상대에게 깔린 상태에서 선수들은 파운딩과 관절기, 조르기 등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상대가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을 저지하고 기회를 봐서 위아래를 뒤집거나 일어나야 하며, 위에 올라탄 상대가 빈틈을 보이면 아래에서 관절기나 조르기를 걸 수 있어야 한다. 실바는 이 모든 것에 상당히 능숙하다. 실바를 깔고 올라타도 어지간한 선수들은 실바에게 뒤집히거나 역으로 관절기, 조르기에 당하기에 십상이다.

앤더슨 실바를 이기는 법

하지만 앤더슨 실바에게도 약점은 있다. 트랜지션(레슬링)은 실바의 아킬레스건이다. 루이스 아제레도



주둥이를 힘부로 눌렀으니까
애타를 맞아라!

2010년 8월, 앤더슨 실바 vs. 차엘 소넨 1차전. 이 경기에서 실바는 극적인 반전을 선보이며 서브미션 승을 거뒀다.

와 다카세 다이주는 레슬링으로 실바를 넘기고 올라타서 승리를 가져갔다. 트래비스 루터도 레슬링으로 실바를 넘기고 올라탄 후 실바를 상대로 한동안 포인트에서 앞서나갈 수 있었다. 차엘 소넨은 레슬링으로 실바를 패배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실바를 이기려면 레슬링으로 상대해야 한다. 그를 붙잡고 넘기기 위해서는 실바의 타격 범위 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과 그 안에서 한 대만 제대로 걸러도 그 자리에서 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의 테이크다운 방어율이 70%라는 사실만 뺀다면 말이다. 이걸 모르는 선수는 없다. 어려울 뿐이지.

앤더슨 실바의 11차 방어전이자 UFC 16연승 도전의 다음 상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체급 내에서는 적수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32승 2패 1무 1NC를 거두고 있는

전 벨라토르 미들급 챔피언 헥터 롬바르드가 UFC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는 적어도 2차례 정도 테스트를 받아야 타이틀 전선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팬들이 기대하는 카드는 라이트 헤비급 전 챔피언 라샤드 에반스다. 에반스는 최근에 미들급으로 하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가 내려와서 실바와 대전한다면 그 경기는 아주 흥미로운 메가파이트가 될 것이다. 에반스의 특기가 레슬링이니만큼 앤더슨 실바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파이터의 연승을 누가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격투기 팬들은 이 경이로운 기록 행진에서 눈을 땔 수가 없다. 🍷

MOTOR X OF THE MONTH

반반한 게 다냐? 시트로엥 DS3

남자는 암컷을 훔을 때와 달리, 차를 고를 때 얼굴이 예쁘다고 지갑을 열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달에는 '반반한 프랑스 자동차' 시트로엥 DS3를 냉정하게 분석해봤다. DESIGN 신숙희

보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은 마치 한껏 치장하고 소개팅 자리에 나온 풋풋한 스무 살 여대생을 보는 것 같다. 동글동글한 생김새에 작고 아담한 차체, 여기에 개성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안개등은 살랑거리는 블랙 미니 원피스를 입고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굴리는 여대생 그 자체다. DS3는 피아트 500이나 BMW 미니처럼 레트로풍도 아니고, 세단의 클래식함은 더더욱 아니다. 알맞게 마무리되는 해치백 라인과 기본색의 차체에 컬러를 담은 루프 톱은 프랑스에서 건너온 모던한 데일리 시티 카다운 도도함을 풍긴다.

하지만 예쁘다고 다냐? 가벼운 전자식 핸들은 큰 무리 없이 쉽게 조작할 수 있지만, 유압식 핸들처럼 내가 직접 무언가를 잡고 움직인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결국 BMW 미니의 딱딱한 핸들링과 통통거리는 하체를 경험한 뒤라면 모를까, 핸들 조작과 실제 움직임의 차이를 감지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저속에서는 가볍고 고속에서는 살짝 무거운 느낌이다. 다른 말로 얼굴은 예쁜데 가슴은 좀 작은 여자 같다고나 할까. 예쁘긴 한데 섹시하지는 않다는 거다. 그래도 DS3가 기록한 것은 베이글녀도, 청순녀도 아닌, 보디라인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콘셉트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파리지엔, 프랑스 여자들의 장점이 아닐까. 가슴은 작지만. 

SPEC: 시트로엥 DS3

	1.4 e-HDi CHIC	1.6 VTI SO CHIC	1.6 e-HDi SO CHIC
엔진 형식	e-HDi	VTi L4	e-HDi
배기량(cc)	1,398	1,598	1,560
최고 출력(PS/rpm)	68/4,000	120/6,000	92/4,000
최대 토크(kg·m/rpm)	16.3/1,750	16.3/4,250	23.5/1,750
구동방식	전륜구동		
전장×전폭×전고(mm)	3,950 × 1,720 × 1,480		
연비(km/L)	20.2	12	19
가격(만 원)	2,890	2,990	3,190



시트로엥의 가족들 한 핏줄 아닐까봐 속 빼달았네...



시트로엥 튜빅 미래형 디자인? 자꾸 스타렉스가 떠오르네.



시트로엥 2CV 시트로엥의 최다 생산 모델이자 프랑스 국민차.



시트로엥 트럭송 야방 베트남의 어느 호텔에 가면 VP 의전용으로 쓰고 있다는 그 차.



시트로엥 DS19 저 차 문을 열면 장발에 구레나룻을 길게 기른 놈이 나올 것 같다.



TOYOTA MAXIM 시승기 #17

남자, 드리프트 스킬을 득템하다

DESIGN 서윤정

COOPERATION Toyota Motor Korea, KPR

SPEC: 토요타86

엔진 형식	가솔린 4기통 수평대향
배기량(cc)	1,998
최고 출력(PS/rpm)	203/7,000
최대 토크(kg·m/rpm)	20.9/6,400~6,600
구동방식	후륜구동(FR)
변속기	자동 6단/수동 6단
연비(km/L)	자동 11.6/수동 11.8
가격(만 원)	자동 3,890/수동 4,690

river.



TOYOTA 86



"새하얗게 불태웠어..."

 TOYOTA 86

토요타86의
드리프트 영상
보러가기



요즘은 서킷 시승이 대세?

서울에서 교박 5시간 걸려 도착한 영암 서킷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번 달 MAXIM 시승기의 주인공 토요타86과의 첫 만남은 먹구름과 함께 시작했다. '비 때문에 시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여기까지 왔는데, 무조건 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나는 에디터다. 독자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는 개뿔, 오늘이 아니면 언제 다시 F1 서킷에서 드리프트해보려. 걱정과 달리 비는 그쳤고 행사가 시작됐다.



이 날의 구토 유발 기관

다니구치 노부테루
프로 입문 1년 만에 드리프트 대회,
'DI 그랑프리' 챔피언에 오른
10년차 프로 드라이버



영암 서킷 랩타임 최고 기록은...

페이스 카(pace car)를 뒤따라 토요타86의 영암 서킷 시승을 시작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관계로 속도를 줄이겠습니다." 차량 내부에 비치된 무전기를 타고 안내 멘트가 나왔다. 브레이크에 발을 대려는 순간 편집장님의 음성이 메아리가 되어 서킷에 퍼졌다. "너 이 새끼, 200km/h 못 넘으면 책상 치울 줄 알아." 에디터의 오른발이 저절로 엑셀 페달을 밟고 있었다. 영암 서킷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긴 1.2km의 직선 코스가 있어 스피드를 내기에 좋다. 반면 연속 코너 구간이 다수 존재해 코너 회전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드리프트를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얘기. F1 조직위원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암 서킷의 평균 랩

타임은 1분44초. 최고 기록은 2011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에서 세바스찬 페텔이 세운 1분39초다. F1 프로 드라이버들은 서킷을 도는 동안 평균 195km/h를 기록하고, 직선 주로는 최고 320km/h까지 도달한다. 에디터는 토요타86의 안전 최고 속도인 221km/h에 도전하려 했지만, 페이스 카의 집요한 속도 통제로 직선 주로에서 최고 속도 180km/h를 찍는 데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코너에서는 100km/h를 유지하며 고속으로 통과할 수 있었는데, 코너를 통과하면서 있어야 할 흔들림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도대체 차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숫자로 보는 영암 서킷

4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서킷

5.621km

총 길이

18개

코너 수 (좌 11개, 우 7개)

320m/h

직선 구간 최고 속도

2,000만원

일 대관비

3,400억원

총 공사비

160,231명

2011년 F1 대회 총관중 수



시트만큼은 인정한다

토요타86은 도로에 붙어서 달릴 수 있도록 설계한 저중심의 낮은 차체 덕분에 회전 시 안정감이 있는데, 이 스포츠 타입의 버킷 시트는 고속으로 코너를 통과해도 몸을 굉장히 잘 잡아주었다. 마치 그녀가 부드럽게 백 허그를 해주는 느낌일까. 게다가 이 시트는 엉덩이 부분이 낮고 무릎 쪽이 높아 짧은 차미를 입은 여성이 탈 경우 으쓱한 자세가 나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조수석 시트



를 뒤로 젖히고 그녀와 한 시트에 포개진다면, 아릿함이 배가될 거다. 상상하건데 여자 둘과 스리섬 하는 느낌이 들 테니 말이다. 하얏튼 토요타86 시트의 안락감은 레카로 시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시트에 몸을 맡긴 채 가속을 넣었다 뺐다 희롱하는 재미가 남다르다. 그렇게 영암 서킷을 시트와 하나 되어 돌고, 돌고 돌았다.



에디터가 꿈꾸는 드리프트의 모습



드리프트는 '들고, 당기고, 감고' 세 개만 알면 돼!

서킷을 여섯 바퀴째 돌고 나서야 일본에서 건너온 프로 드라이버 다니구치 노부테루와 짝을 이뤄 드리프트 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한국어를 잘 알아들어서 좋긴 했는데, 대답은 왜 일본어로 하는 거야. 드리프트는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며 주행하는 것이다. 이날 다니구치는 사이드 브레이크 드리프트를 전수했다. ①가속으로 달리다 코너에 근접하면, 살짝 감속하며 핸들을 튼다. ②코너 방향으로 뒷바퀴가 미끄러질 찰라 핸드 브레이크를 당겨 뒷바퀴를 잠그고 재빨리 핸들을 감는다. ③코너를 반 이상 미끄러졌을 때 핸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핸들을 풀며 가속한다. ④토요타86은 순식간에 균형을 잡고 코너를 탈출한다. 203마력의 최고 출력, 20.9kg·m의 최대 토크는 1,280kg의 가벼운 차체를 거침없이 밀고 나간다. 토요타86은 육중한 스포츠카들이 무지막지하게 힘으로 돌파하는 것과 다른 손맛을 안겨 주었다. 드리프트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다니구치는 "차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한다"고 답한다. 아니, 그런 거 말고... 테크닉! 테크닉!! 그의 말에 따르면 시선을 진행 방향에 집중하고, 제동 시 앞바퀴에 쏠리게 될 하중의 느낌을 토대로 바닥면과의 접지력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드리프트가 미끄러지는 건데 접지력을 제어하러니, 제기랄, 무슨 소리야.

남자라면, 드리프트!

에디터는 눈 내린 겨울날 여자친구에게 드리프트를 보여주겠다고 국산 소형차로 초등학교 운동장을 미구 돌다가 싸대기 맞을 뻔한 옛 기억이 떠올랐다. 물론 드라이버의 실력이 중요하겠지만, 드리프트에 특화된 자동차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더랬다. 확실히 토요타86은 코너를 위한 차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직선에서는 딱히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다. 또 부드럽고 빠르지만 예리함이 부족한 변속 기어는 토요타86의 단점이다. 그래도 코너에서만큼은 확실한 재미와 실력을 뽐내는 것은 적어도 토요타86의 특기가 드리프트라는 것을 입증한다. 후반기 주특기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처럼 토요타86은 자신의 보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



편집장님, 나 이제 회사 차로 드리프트 해도 됩?



AE86, 명칭에서 A는 엔진, F는 코롤라 라인업, 8은 5세대, 6은 출시 순서다.



육지해씨, 저...저도 보닛 위가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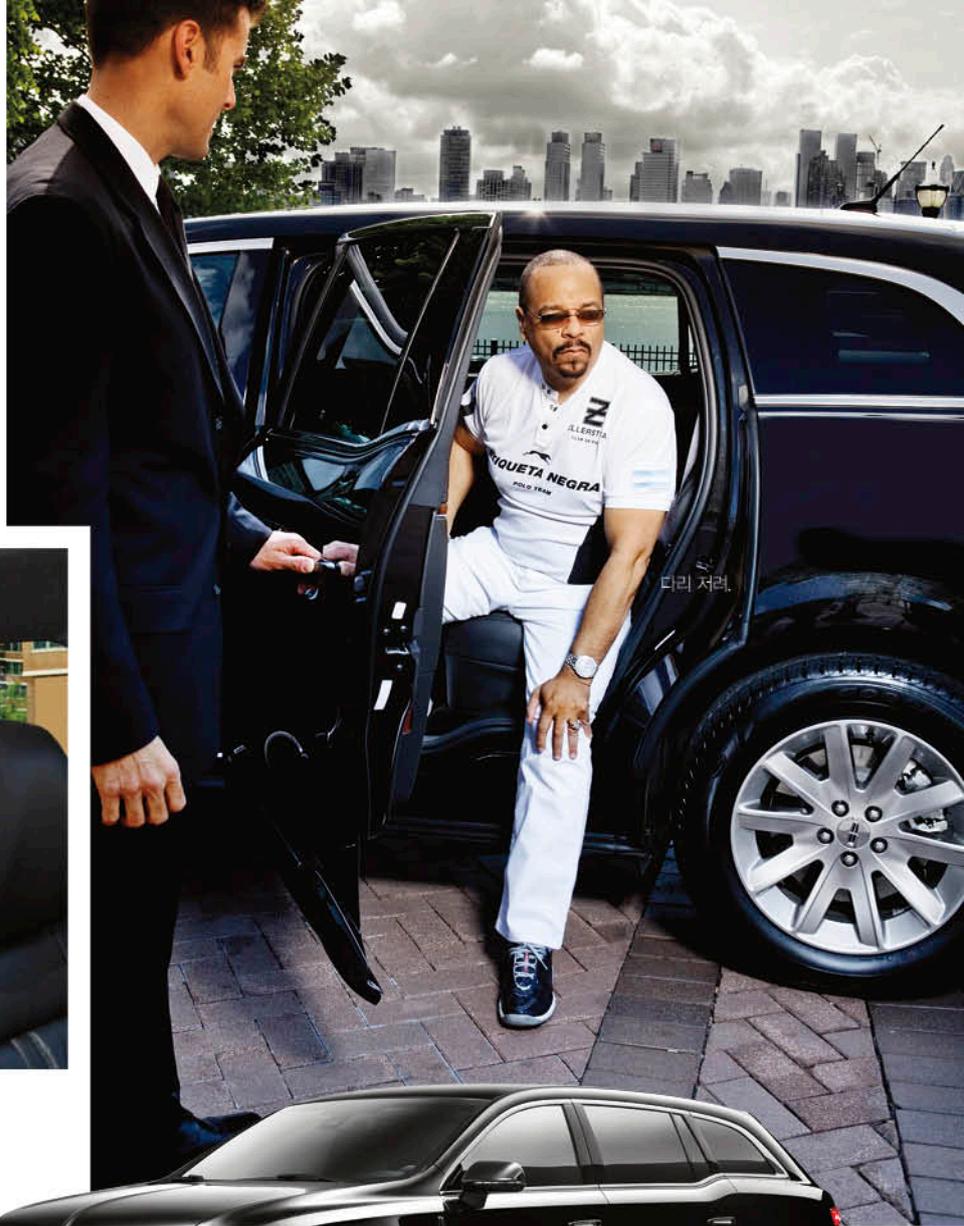
MAXIM과 인터뷰 중인 수석 엔지니어 타다 테츠야



이 새끼가 찍으라는 사진은 안 찍고, 오락을...

LAW & ORDER SUV

MAXIMO 현실에선 거친 램을 읊어대는 반항이지만, TV 속에선 성범죄를 파헤치는 열혈 경찰로 활약 중인 ICE-T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 아저씨를 만나서 뭐 했느냐고? 링컨의 신형 MKT 타운카로 드라이브 좀 했지. DESIGN 신속희



다리 저려.



지금 최초의 크로스오버형 타운카를 타고 드라이브 중이다. 어떤가?

이 차, 솔직히 보자마자 반했다. 미끈하게 빠진 미니 밴형 외관이 눈길을 확 사로잡던걸? 미래에서 온 차 같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쳐다봤지 뭐냐.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꼼꼼하게 튜닝한 창문, 약간 낮아진 차체까지 마음에 들었다. 고향 LA 친구들은 이런 차를 좋아한다. 물론 나도!

내부 공간은 어떤가? 당신처럼 덩치 큰 사람도 편안히 앉기에 충분한가?

그렇다! 여기 뒷좌석이 꽤 넓은데? 내가 앉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전축 끊은 지 좀 됐지만, 이 차의 사운드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것쯤은 한번에 알겠다. 근데 '전축'은 너무 노인네 같은 말인가? 허허.

승차감은 어떤가?

당신이란 수다 떠느라 승차감에 집중을 못하겠잖아! 잠시 그 입 좀 다물어라.

헛...

어디 보자... 꽤 조용한데? 알다시피 여기 뉴욕처럼 길이 복잡한 곳에서는 서스펜션이 관찮은 차인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 수 있지. 음, 이 녀석은 꽤 잘 굴러가는 것 같다.



SPEC CHECK | 가격 미정 | 엔진 v6 3.7 | 마력 300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 | 레그룸 1.09m

직업상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텐데, 그럼 공항이나 호텔 같은 데서 리무진 기사들이 당신 이름 '아이스-티'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당신을 기다리겠군? 아이스티라니, 무슨 길에서 냉차 파는 사람 같겠다. 아, 그럴까봐 차량을 예약할 때는 미리 분명 '트레이시 모로'를 쓴다. 근데 트레이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난 줄 모르더라도.

리무진 기사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편인가?

물론이다. 하지만 기사들과 말 섞는 건 늘 조심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게 바로

운전기사들이니까.

운전기사들이랑 시비가 붙을 때도 있겠군?

예전엔 자주 그랬지. "호텔에 내리기 전에 약 좀 빨라"고 말했다가 운전기사가 우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어떤 기사는 너무 뻑뻑하게 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나? 기사를 인질로 삼고 경찰과 총격전이라도 벌였나?

다행히 일행 중 총을 갖고 탄 애가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웃음만 난다. 허허!

MOTOR NEWS

크라이슬러 JEEP의 특별한 프로모션은?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크라이슬러와 JEEP의 대표 모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크라이슬러 프리미엄 세단 300C 가솔린 모델 구매 고객에게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등록세 5%를 지원하고 부품 교환 및 점검 서비스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준다. 랭글러 루비콘 구매 고객에게는 사이드 스텝을 무료로 장착해준다. 또 랭글러 루비콘 2도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소프트 톱을 무료로 장착해준다. 아, 총알만 있음 되네! 문의 크라이슬러 코리아(www.chrysler.co.kr)



쌍용자동차 로디우스 유로 출시

쌍용자동차가 새로워진 로디우스 유로를 출시했다. 로디우스 유로는 친환경 엔진을 탑재하고 내장 및 편의 사양을 한층 보강해 새로 탄생했다. 한국형 디젤엔진인 e-XD200 LET를 장착, 14.3km/L의 높은 연비를 자랑한다. 여기에 쌍용 고급 세단인 체어맨의 서스펜션과 탁월한 안정성을 보여주는 벤츠 5단 E-Tronic 자동변속기를 장착해 안락하고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보장한다. 넉넉한 실내공간까지 확보해 비즈니스는 물론 캠핑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듣고 있나 카니발?

가격 2,399만 원(RD400) 2,868만 원(RD500)

문의 쌍용자동차(www.smotor.com)



볼보자동차 V60 2.0 디젤 출시!

볼보자동차 코리아는 V60의 2.0 디젤 모델을 출시했다. V60의 특징은 경쟁 모델 대비 높은 토크가 강점이다. 일상 생활 속 주로 사용하는 엔진 회전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터져 무리하게 가속 하지 않아도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파워를 느낄 수 있다. V60은 SUV 수준의 넓은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확보해 편안한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게다가 30km/h 이하 주행 시 앞차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거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시티 세이프티 시스템이 탑재되었다. 볼보자동차! 참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녀석이다. 가격 5,260만 원 문의 볼보자동차(www.volvocars.com/kr)



기아자동차, 뉴 쏘렌토R 출시

기아자동차가 세련된 디자인에 경제성과 성능을 더한 뉴 쏘렌토R를 출시했다. 뉴 쏘렌토R는 후면에 날렵한 디자인의 면발광 타입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장착해 SUV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표현했다. 또 주행 중에 후측방 지대의 차량과 고속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 사전 경보 해주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SUV에 탑재했다. 게다가 2.0모델이 공인 연비17km/L, 2.2 모델이 16.1km/L로 기존 모델보다 13% 연비를 향상시켜 우수한 경제성을 실현했다. 뉴 쏘렌토R 기대되는데?

가격 2,645만 원(2.0, 2WD) 2,833만 원(2.2, 4WD)

문의 기아자동차(www.kia.co.kr)



페라리 캘리포니아 30 국내 출시

페라리 공식 수입사인 (주)FMK가 7월부터 페라리 캘리포니아 30을 국내에 출시하고 판매에 나선다. 페라리 캘리포니아 30은 GDI V8 엔진을 탑재해 최고 490마력, 51.5kg·m의 토크를 뽐내내는 강력한 파워가 특징이다. 또 구조적 강성과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량은 30kg 줄이고 30마력을 향상시켜 490마력의 힘을 완성했다. 다 이내막힌 주행 경험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핸들링 스페셜 패키지를 옵션으로 제공한다. 이 패키지는 운전자의 지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페라리 고유의 파워와 기술력, 감당 그 자체로구나!

문의 페라리 코리아(www.ferrari.co.kr)



시트로엥(CITROEN) DS 라인의 두 번째 모델 DS4 국내 출시

시트로엥이 DS4 모델의 공식 론칭 행사를 하고 판매에 들어간다. DS4는 시트로엥이 한국 진출 후 출시하는 두 번째 모델이다. 쿠페 스타일의 DS4는 3개의 넓은 뒷좌석과 370L의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해 실용성을 높였다. DS4는 1.6+HDi 엔진에 e-HDi 시스템을 적용해 공인 연비 21.5km/L로 경제성을 높이고 환경을 생각했다. 독창적인 스타일에 성능, 친환경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심쟁이들에게 강추!

가격 3,960만 원 문의 시트로엥(www.citroen-kr.com)



쉐보레 뉴 카마로 등장

쉐보레 카마로는 그 이름보다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로 더 알려진 자동차다. 새로운 카마로는 차량 앞부분 하단 그릴을 새롭게 디자인했고, 20인치 대형 휠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했다. 또 V6 3.6L 직분사 방식 엔진을 탑재해 323마력의 위력을 보여주며 동력을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해 운전자가 페달을 밟을 때마다 즉각 반응하게 했다. 유리창에 주행 정보를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크루즈 컨트롤 등 편의 장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 그러나 아쉽지만... 아직 변신은 안 된다. 이런 변~신.

가격 4,880만 원 문의 쉐보레(www.chevrolet.co.kr)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슬라가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한 바로 그 130년 전통의 명품, 슬라가드 열 차단 필름이다!

▶ **응모 기간:** 2012. 7. 22 ~ 2012. 8. 18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틴팅 시공 (전면 시공, 즉·후면 제외)

▶ 응모 방법

1.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쁜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멋진 사진을 곁들인다면 완전 좋고!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편집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MOTOR
EVENT

제16회 MAXIM 무료 틴팅 당첨 독자는?

MAXIM이 그렇게 재미있다면? 솔직히 남자친구가 MAXIM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잡지기에 매달 저렇게 열심히 챙겨보는 지 궁금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의 MAXIM을 보게 되었지. 그런데 정말... 재밌네 ㅋㅋㅋ

그거 알아? 남성 잡지라고 해서 남자만 보는 것은 아니야. 내 친구 중에서도 MAXIM을 즐겨보는 애가 있거든. 여성 잡지나 다른 남성 잡지보다 MAXIM이 재미있으니까. 아무튼 MAXIM, 앞으로도 내게 즐거움을 부탁해. 그리고 말인데, 이번 여름휴가를 동해로 결정했어. 벌써부터 설레. 빨리 떠나고 싶다. 비키니랑 선글라스도 새로 샀어. 그런데 내 아방이는 눈이 부셔서 어떻게 해... 내 아방이도 선글라스가 필요하다고~ 해줘. 해줘. 이렇게 MAXIM 즐겨보는 커플 본 적 있어? 없지? 해해 완전 기대하고 있을거야. 내 아방이에게 신상 선글라스를 부탁해~



슬라가드 이벤트 당첨자 틴팅 후기 보기



요즘은 다들 사연 신청이 왜 이렇게 무섭나? 당첨되지 않으면 MAXIM 본사로 찾아올 기세다. 그래 한 번 외봐, 외봐, 외봐 비키니 입고 틴팅 후기 사진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당첨이다. 우리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으니 각오하라, 아무튼 이런 늘씬한 아가씨가 MAXIM을 재미있게 봐주니 기쁘기 그지 없다. 앞으로도 끝 때리는 재미를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 휴가 날만 기다리는 모습이 부럽다. 안전 운전 잊지 말고!! MAXIM만큼 새롭고 시원한 여름 보내길 바란다!



LONDON OLYMPIC SPECIAL

NO PAIN, GAIN!

4년마다 멀쩡한 사람을
울었다가, 웃었다가,
소리치다가, 숙연해지는
정신병자로 만드는 바로
그놈이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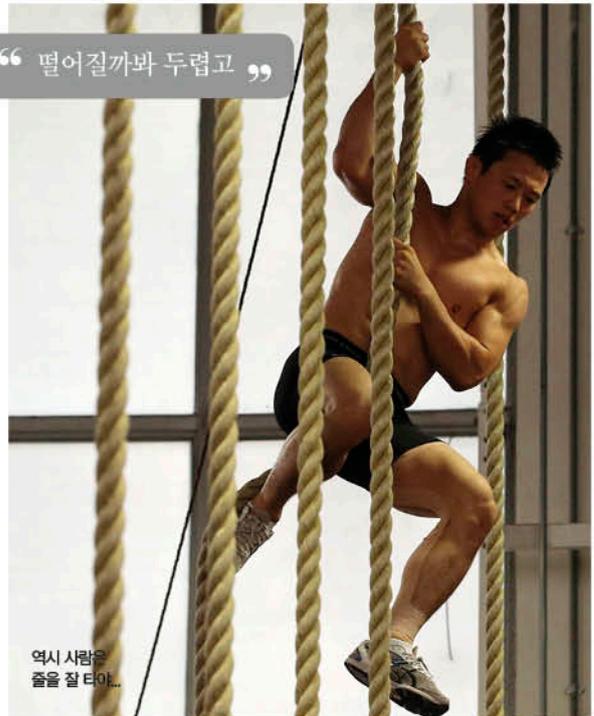
IMAGE 연합뉴스, 런던 올림픽 공식 사이트
DESIGN 신속희



“ 때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레슬링 팀의 근력 훈련 장면이다.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고.

“ 떨어질까봐 두렵고 ”



역시 사람을
줄을 잘 타야..

국대 유도 간판 왕기춘 선수의 줄타기 훈련 장면.
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레슬링

첫 금메달: 1976년 몬트리올, 양정모 선수

2008 베이징 최고 기록: 박은철의 동메달

가장 최근의 금메달: 2004년 아테네, 정지현 선수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의 총 메달 수: 34개(금 10)

유도

첫 금메달: 1984년 로스앤젤레스, 안병근, 하형주 선수

가장 최근의 금메달: 2008년 베이징, 최민호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의 총 메달 수: 37개(금 9)



축구

첫 출전: 1948년 런던 올림픽, 8강 진출했으나 스웨덴에 0-12로 참패

최고 기록: 2004년 아테네 올림픽, 1승 2무로 8강 진출
런던 올림픽 메달 획득: B조의 1, 2위로 8강 진출 후 A조 1, 2위 중 한 팀과 준결승 티켓을 놓고 겨룬다. 이후 토너먼트를 치러 준결승, 결승을 땀

하이라이트: 8월 2일 오전 1시 가봉과의 리그최종전



“ 쪽팔리게 표정 관리도 안 되고 ”

홍명보호의 심장 구자철의 헤딩 연습. 심장이 마이 아파 보여.

체조

가장 최근 메달: 2008년 베이징, 유원철(은)
하이라이트: 8월 9, 10일 저녁 8시 리듬체조(손연재)



“ 심지어 가끔은 피가 거꾸로 솟아요 ”

런던 올림픽을 맹훈련 중인 체조 국가대표 선수 양학선의 비상.



니킥 연습은
집에서.

“ 코치와 충돌할 때도 있겠지만 ”

뉴질랜드와의 친선 경기에서 골을 넣은 박주영 선수와
김태영 코치의 격한 세러머니. 그리고 귀한 선수의 도가니를 가격하는
김태영을 착잡하게 바라보는 홍명보 감독.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사격

가장 최근 금메달: 2008년 베이징, 진종오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의 총 메달 수: 9개(금 3)

“
끝까지 싸워주세요.
올림픽의 포스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딴 진종오 선수의 상남자 포스를
런던에서도 볼 수 있길 바란다.

MAXIM이 
태극 전사를 응원합니다.

FUN OLYMPIC QUIZ

퀴즈를 풀든 말든, 종이를 찢어서 거북이를 접든 학을 접든, 코를 풀든 똥을 닦든 맘대로 하시라!
하지만 뭘 하든간에 하여튼 무조건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 해야 하는 거다.



1. 런던은 이번을 포함해 총 몇 번의 올림픽을 치르게 되나?

- a. 이번이 처음이라며
- b. 2번
- c. 3번
- d. 5번. 지구상에 도시가 런던 밖에 없나봐.

2. 이번 올림픽의 모토는 '세대에게 영감'이다. 이게 뭘 뜻일까?

- a. 1가정 1노인 부양제도를 강제 시행하여 독거노인 수를 줄이재!
- b. 전 인류의 노화 속도를 가속하여 지상의 인류를 싸그리 날려버리고 지구를 지키자는 극단적인 환경단체의 고려장 캠페인이다.
- c. 이 명충아, 그 영감이 아니고 靈感이다. 모든 세대에 창조적인 자극과 발상을 안겨주자는 거잖아.

3. 이 자식의 정체에 대해 맞는 설명은?



이름 웬록
직업 런던 올림픽
비정규 단기 알바

- a. 대가리에 달린 건 삼각김밥이다. 배가 고플 때 꼭지를 떼서 먹을 수 있다.
- b. 손목에 달린 다섯 개의 팔찌는 성범죄자 전자 팔찌다. 쫓쫓, 저 새끼 저거...
- c. 딱 봐도 범죄형인 희번덕한 눈꼴을 보라. 저건 올림픽을 기록하는 카메라렌즈다. 도촬을 즐기는 변태 중의 변태임이 틀림없다.

d. 한 칼럼니스트는 아들을 두고 "술에 취한 돌리와 달렉<<닥터후>>에 나오는 외계 강동 로봇이 원나잇을 해서 태어난 애들"같다고 말했다.



내 새끼란 증거 있어? -달렉-

4. 1개도 박찬데 근대 5종 경기라니, 여기서 대체 뭘 하는 거냐?

- a. 사격,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컨트리
- b. 대공포사격, 총검술, 잠영으로 태평양 횡단, 승룡, 토끼똥으로 영국 종단
- c. 사격, 양궁, 바이크, 수영, 크로스컨트리



아오, 이년이 진짜!

5. 배구 대표팀 여자 선수가 아닌 사람은?

- a. 황연주
- b. 김연경
- c. 한유미
- d. 정다래



정답

- 1. c
세 번도 많다, 많아.
- 2. c
너무 쉬워서 화가나지?
- 3. c
삼각 김밥이 아니고 런던 택시를 나타내며, 팔찌는 오륜기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달렉의 원나잇 상대는 텔레토비다.



나야 나.

- 4. a
b 아니야? 시시한데?



- 5. d
미녀들이 많기로 소문난 배구팀. 하지만 벌써 잊었어? 수영 대표 정다래의 청초하고 촉촉했던 모습을?

MISS

OF THE
MONTH

MAXIM



2012 MISS MAXIM
CONTEST
THE 5TH
SEMIFINALIST

Danning Fu

MISS MAXIMI 되어 자신의 귀여움과
섹시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는 중국계 미국인 다닝 푸.
아버지가 마블 코믹스에서 (스파이더
맨)을 비롯한 히어로의 만화 캐릭터
작업을 했다는데... 진짜야? 대박!
(그래서 스파이더맨처럼 입혀봤다)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이현정
FILM 조종재 DESIGN 산속희
ASSISTANTS 송안나, 조종재
COOPERATIONS 사별(02-3485-6000),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02-2117-7000),
편애틀(02-540-8448), 제이스칼렛(070-4366-6903),
제로원(02-3397-7100), 스와치비류(02-3149-9549),
시스루비키(www.seethrough-viki.com),
컨버스(02-6911-0735)

궁극의 큐티
섹시한
이런 것



브래지어 사립
비키니 하의 코데즈컴바인
팔찌 제이스칼렛

갖고 싶은 히어로의 능력

슈퍼맨 어디든 단 몇 초 만에 돌파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힘을 지녔으니까.

매력적인 히어로

역시 슈퍼맨. 어마어마한 힘 때문만은 아니다.(웃음) 프로페셔널하고 멋진 '클라크'의 삶과 미스터리한 히어로 '슈퍼맨'의 삶을 동시에 신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히어로와 나의 상관관계

아버지가 마블 코믹스의 디렉터였다. 현재 그는 예전에 기획했던 여성 히어로물 <스타레이디>의 영화화를 위해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매우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주인공 역으로 비운세를 염두에 두고 있더라.(웃음) 아, 이거 비밀인가?

GO TO MAXIM iPad 미공개 컷



비키니 상의 시스루비키니
복합이와 칼짜르 스와치비주



MAXIM 촬영을 위해 어제 귀국했다고 들었다. MISS MAXIM CONTEST는 어떻게 알고 지원했나?

어렸을 때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 아역 모델로 CF도 몇 번 찍었고, 한국 MAXIM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MAXIM을 즐겨 읽는데, 언젠가는 꼭 MAXIM에서 사진 촬영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초면에 실례지만 촬영할 때 보니 몸매가 장난 아니더라.

서핑이나 등산 같은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긴다. 특히 승마를 좋아한다. 대학생 때 승마 클럽에 가입한 이후 쪽 즐겨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승마를 해본 적이 있다. 몸매 관리에 은근히 좋다니까?

말을 잘 타는 여자라니...

등산이나 승마 같은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다 보니 엉덩이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탄탄해졌다.(웃음)

하, 한국 남자는 어떤가?

한국 남자는 섹시하고 마초적인 느낌이 동시에 든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그뿐 아니라 거칠면서도 로맨틱해서 더욱 끌린다. 반대로 중국 남자는 가정적인 매력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순 없을 것 같다.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주면 안 되나?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섹시한 남자가 좋다. 하지만 외모보다 교감이 중요하다. 목소리의 느낌이나 눈을 마주쳤을 때의 설렘 같은?

촬영 끝나고 술 한잔 하자. 한국에 왔으니 소주 어떤가?

고기를 먹을 땐 주로 레드 와인을 마신다. 소주를 마시기도 하는데, 알코올 냄새가 독하긴 해도 마실 땐 정말 좋더라. 취할 때까지 마셔본 적은 없지만 한 병 정도는 마실 수 있다!





2012 MISS MAXIM CONTEST
THE 6TH
SEMIFINALIST

김수아

그리고 MAXIM 스튜디오에 수줍게 들어선
청순하고 귀여운 도전자 김수아.
호, 혹시 미쓰에이 수지 양 아니세요?

청순청순
연매를
먹었나?






당신같이 어여쁜 처자가 MAXIM 독자라니 에디터가 된 보람이 있다.

MAXIM을 굉장히 즐겨 보는 애독자라 꼭 한 번쯤 나오고 싶었다. 예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벽장에 진열된 MAXIM 잡지를 발견하고 읽다가 독자가 됐다. 요즘도 매달 사본다. 혹시 정기 구독 할인 안 되나?(웃음)

할인 같은 소리 집어 치워라. 에디터가 사비를 털어 매달 보내주겠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나 보다.

인터넷 사진 클럽 등에서 종종 모델을 한다. 공원에 나가서 출사를 하거나 콘서트 사진 같은 걸 찍곤 하는데, 오늘 MISS MAXIM 촬영만큼 재미있던 적은 없었다. 가면 쓰고 소풍 들고... 촬영 내내 무척 즐거웠다. 다음에 또 찍고 싶다.

독자들도 그걸 원할 거다. 근데 묘하게 수지방 답았다.

보급형 수지라고 불러달라.(웃음) 큰 키와 털털한 성격, 제과제빵을 전공해 요리를 잘한다는 점은 수지보다 내가 더 낫지 않을까?

아아, 당신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수컷은 도대체 어떤 놀이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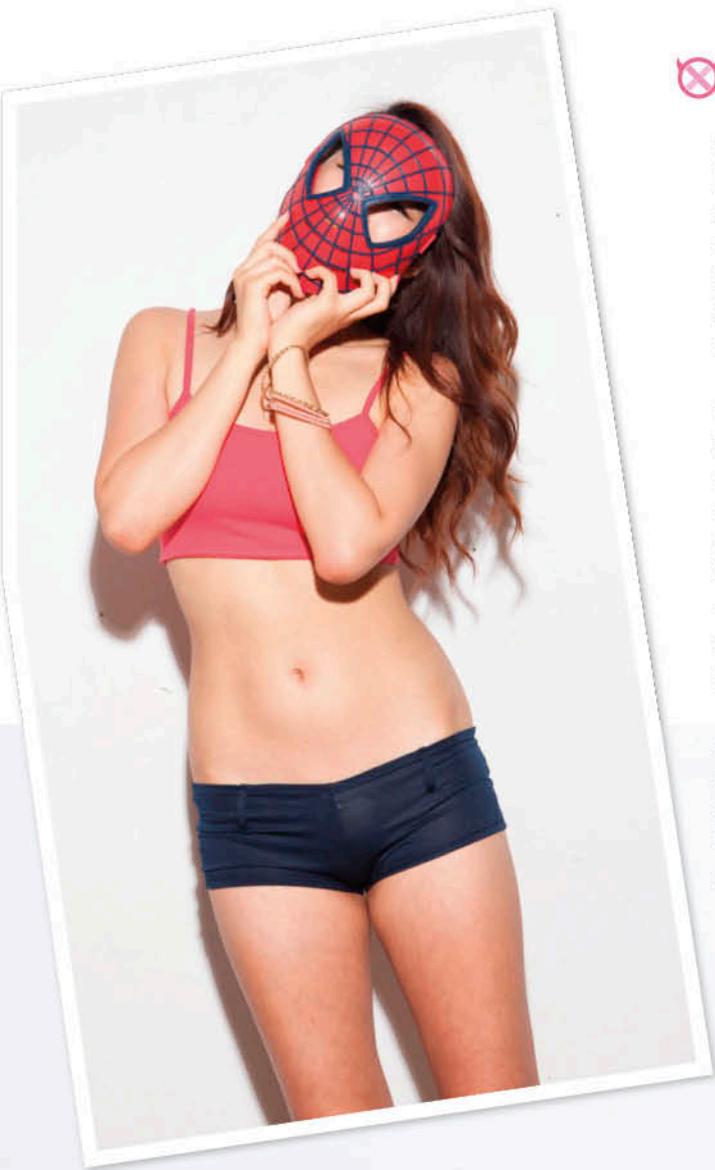
눈썹이 잘생긴 솔직한 남재 "같이 놀까?" 하면서 가볍게 접근하는 사람이 아닌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특히 비싼 선물 따위로 꼬시려는 사람은 정말 질색이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뭘 하고 싶나?

놀이동산에 가서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고 싶다. 놀이기구를 잘 타는 건 아니고 누구나 상상하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가 보통 그렇지 않나?

놀이동산? 나도 놀이기구 탈 줄 안다. 그것도 아주 잘 탄다!

음... 놀이공원 말고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한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를 풀려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화 컨버스
팔찌 제이스칼렛



TALKING ABOUT HERO 

좋아하는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 영화에서 보니 정말 잘생겼더라.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서 포기...

히어로 중 스타일 갑

배트맨. 슈트를 연상시키는 올 블랙 패션이 멋있지 않아?

갖고 싶은 히어로의 능력

스파이더맨. 공중에 매달릴 수도 있고 벽도 타고 거미줄도 쏘고 힘도 세니까 내가 무거워도 괜찮을 것 같다.(웃음)



이것이
당신의 캐릭터다!

그녀들의 은밀한 취향 엿보기

노골노골 열매를 먹은 듯 파격적인 언더웨어 맵시를 선보이는 엘카니들은 과연 어떤 속옷으로 자신의 개성을 뽐냈을까?

BY 송종민 DESIGN 서윤정

퀸스블레이드의 파격적인 속옷 시스템!

이제 속옷도 시스템이다. 더는 마우스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치마 밑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퀸스블레이드니까!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그녀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벗겨()줄 수 있다. 거기에 봉인 해제 아이템까지 사용하면... 이게 바로 신세계!

출렁이는 게임계 트렌드



디펜더

중세 시대의 고귀한 귀족 기사를 보는 듯 도도한 표정과 고전적인 말은 머리 때문에 자칫 보수적이고 까칠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그녀가 이렇게 섹시한 속옷을 입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나한테만 섹시한 여자가 진짜 섹시한 여자다! 나만 아는 그녀의 은밀한 비밀 때문인지 오늘날라 그녀의 발그레한 볼 터치가 더욱 귀여워 보이는구나!



따, 딱히 너를 위해 입은 것은 아냐

담은 꿀 : 아스카(에반게리온)

센티널

어린애로 오인받을 만한 작은 체형임에도 그녀가 전장을 제 집 앞마당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은 쌍권총을 다루는 특유의 날카로운 손놀림과 빠른 발 덕분이다. 전장의 요정 특유의 유려한 손놀림으로 어떠한 적도 무력화 할 수 있다는데... 무력해지고 싶은 남자들이 줄을 설듯. 가슴이 없어서 남들보다 더 거침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비밀.



담은 꿀 : 아이유



(TERA) 엘리에 대항할만한 오동통한 꿀벅지



담은 꿀 : 아이상젠



쉐도우 워커

뱀파이어처럼 무선도록 하얀 피부를 가진 차가운 암살자. 언제나 어둠 속에서 살아왔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우는 훈련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묵할 것 같은 인상이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밤에 피는 장미였던가? 이토록 도드라지는 슬링 비키니라니! 하얀 피부에 강하게 대비되는 블링블링한 핫 핑크 색상이라 더욱 아찔하다. 어둠 속에서 급소를 찌르는 그녀의 치명적인 손길을 느껴보고 싶어. 아아 아이앙~





퍼니셔

가장 건강한 피부 톤을 자랑하는 퍼니셔는 그 장점을 더욱 살려줄 수 있는 발랄한 색채의 속옷을 주로 입는다. 한강 야외 수영장이 떠오르는 아찔한 모노키니와 뜨거운 해변 위를 뛰고 싶게 하는 시원한 마이크로 비니키 모두 그녀에게 퍼펙트 핏!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녀는 지금 당장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물에 뛰어들어도 전혀 문제없다!



담은 골: 제시카 고메즈



위퍼

키는 작지만 검고 건강한 피부 톤과 볼륨감 있는 몸매의 소유자로, 채찍처럼 변하는 체인 소드를 휘두르는 SM 여왕님이다. 취향도 유별나서 커다란 토성과 별 모양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등 안드로메다 공주 느낌도 다분. 공주님 타입의 클래식하고 레이스 달린 속옷 취향도 '그럴 줄 알았어!' 느낌이다. 건강한 피부 톤에 강렬하게 대비되는 형광 컬러도 잘 어울릴 듯!



담은 골: 이호리



메딕

지옥을 누비는 불감증 치료사 메딕은 강력한 파괴 본능이 봉인된 특별한 엘카이다. 이 봉인된 혈에 대한 욕구 불만인지 노출증이 생겨 주변인의 마음을 불씨지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슬림한 체형에 더욱 돋보이는 거대한 가슴은 중력의 위대함과 물리 법칙의 존재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표본과 같다.



영당이에 주시맞을 시간이에요

담은 골: 시노자키 아이

세상에 이렇게 긍정적인 코스프레가 있나!



하고



싶다!



주머니 속 런던 올림픽

국산 게임 개발사 네오위즈가 런던 올림픽 공식 라이선스를 따내 <LONDON 2012>를 전 세계 동시 발매했다. 88 올림픽도 아닌데 왠지 모를 애국심이 솟구치는구나! DESIGN 신숙희



LONDON 2012

제작사: 네오위즈
플랫폼: iOS/안드로이드

위(Wii)의 성은을 입은 올림픽 게임의 강자, 마리오와 소닉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순수 국산 기술로 올림픽 게임을 내놓는 건 진짜 모험과 같다. 하지만 스마트폰 게임 중 할 만한 스포츠 게임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챈 네오위즈는 런던 올림픽을 노려 짹짹 공식 게임 앱을 출시했다. 게다가 무료야!

GOOD



다양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성별, 얼굴, 헤어스타일, 국적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주요 성능 배분이 가능해 자신의 캐릭터가 어느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지도 조절할 수 있다. 예컨대, Strength(힘)를 올리면 카약의 속도가 올라가고 Accuracy(정확도)를 올리면 사격, 양궁 등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다양한 아이템은 양날의 검

열심히 코인 양벌이를 했지만 할 게 없는 유저들을 위해 숨에 다양한 아이템을 갖춰두었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실제로 숨에 가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지닌 코스튬과 장비가 많다. 하지만 그런 아이템들을 사려면 결국 게임을 죽여라 해서 코인을 모으든지 현질을 해야 한다는 것. 유저들을 즐겁게 하려는 노력은 가상하나 그림의 떡이다.



다양성이 아쉬운 종목들

스마트폰의 플랫폼 한계상 26개 종목을 전부 담는 건 무리였겠지. 그렇더라도 명색이 올림픽 게임인데 9개 종목만 담았다는 사실은 조금 아쉽다. 물론 터치 일색의 컨트롤과 차별화를 두어 가을이기, 패닝 등을 이용해 독창성을 가미한 노력은 가상하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어쩔 수 없는 폰 게임... Wii 타이틀처럼 종목마다 차별화된, 뚜렷한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다.

1988년생 이상 공감 가능

하이퍼 올림픽
국내명 <88 올림픽>



8비트 게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이 게임은 코나미가 1983년에 제작한 타이틀이다. 그러니까 이미 88 올림픽을 개최하기 5년 전에 만든 게임이라는 얘기가. 결국 흰 종이여 매직으로 써서 게임기 상단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88 올림픽>이라는 제목은 주인아저씨의 상술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실은 저 너머에...

혁명적인 6 in 1 시스템

100m 달리기, 110m 허들,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높이뛰기의 6개 종목을 한 게임에 담아낸 시스템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30년 지나 발매한 3D 올림픽 게임의 종목이 9개인 걸 생각해봐도 그렇지?



독창적인 컨트롤러

달리기-점프-달리기 순서로 키 세 개만 배치한 전용 패드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가판값을 아끼느라 스틱이 달린 일반 패드 그대로 타이틀만 바꿔놓은 오라실이 많았다.



출생의 비밀

경쟁사 캐릭터치곤 너무 닮았는데...?

BAD

QUEEN  BLADE



여자들의 **MMORPG**

퀸스블레이드 GRAND OPEN

MONKEY AROUND WITH MALIN



웃기면서 섹시하기까지 한
여배우 **말린 애커맨**에 열광할
시간이다!

BY PATRICK CARONE
PHOTOGRAPHS TURE LILLEGRAVEN

NG



American Apparel 수영복
Giuseppe Zanotti 슈즈



Juicy Couture 비키니 팬츠
Sydney Evan 팔찌
Anita Ko 화살 모양 목걸이
Loren Stewart 펜던트 목걸이

과연 말린 애커맨이 못하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 때론 멍청한 금발 미녀로, 때론 섹시한 줄줄이 슈퍼 히어로로 보는 이를 사로 잡은 그녀가 MAXIM을 찾아왔다. 올여름엔 톰 크루즈, 알렉 볼드윈과 함께 만든 뮤지컬 영화 <락 오브 에이지>에서 또 한 번 우리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 넣을 예정이라니... 도대체 이 스웨덴 미녀의 정체는 뭐야?

고릴라와 함께 촬영한 소감이 어떤가?

처음엔 고릴라가 불쌍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진짜 고릴라도 아니고 고릴라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내 젖통을 쥐고 서 있는 거잖아? 하나도 안 불쌍하다.

고릴라를 보고도 놀라지 않다니, 평소에 당신 가슴을 주무르는 고릴라에 익숙한 모양이다. 더 이상한 촬영도 하는데 뭐, 그냥 평범한 매거진과의 아주 평범한 화보 촬영이라고 생각한다. 고릴라와 미녀, 가슴이라...

어쨌든 오늘 제법 근사했다.

고맙다. 야수와 미녀라니 꽤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세상 어느 남자가 섹시함과 유머를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는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



지금까지 벤 스틸러부터 패럴리 형제까지, 꽤 유명한 코미디언 대가들과 작업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쫄지 않은 척 연기를 했던 것 같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닥치고 가만히 있자. 너무 병신 같이 튀면 안돼!"라고.

호탕하고 재미있는 아가씨군!

사실 난 유머러스하기보다는 얼간이 쪽에 가까운 사람 같다. 특히 말로 웃기는 것보다는 몸개그에 강하다. 농담 같은 건 정말 못한다.

새 영화 <락 오브 에이지>에 대해 소개해 달라.
80년대를 배경으로, AC/DC, 본조비, 저니 같은 머리띠를 두른 허세남 밴드들을 소재로 한 뮤지컬 영화다. 난 '톰 크루즈'가 연기한 인기 록커 스테이시 잭스를 취재하러 온 리포터를 연기했다. 잭스는 늘 술과 약, 섹스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톰 크루즈와의 섹스 신이 있나?!

아니, 거의 얼굴을 핥는 것에 가까웠다. 화끈한 장면이 있긴 하다. 내가 톰 크루즈 위에 올라타는, 란제리만 입고...

다른 할리우드 여배우처럼 휴대폰이 해킹되어 누드 사진이 인터넷을 도배하는 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다는 게 신기하다.

얼아흠, 스무 살 즈음의 나에게 카메라가 있었다면 이미 타블로이드

1면을 여러 번 장식했겠지만 다행히 카메라가 없었다. 지금은 꽤 가정적인 사람이다.

핸드폰에 감춰야 할 사진이나 영상이 있나?

그건 말해줄 수 없다! 아마도 사람들이 알아서 안 될 무언가가 있겠지...

여자끼리 섹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전에 여자랑 하는 걸 찍은 적이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호들갑을 떨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다. 그냥 배개를 끌어안고 뽀뽀 연습을 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거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사람들에 대한 가장 어이없는 고정관념은?

딱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없는 것 같다. 음, 스웨덴 여자하면 비키니를 입은 왕 가슴녀를 떠올리는 거? 나쁜진 않잖아? 





“
어느 남자가 섹시함과 유머를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는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
”

Salt 수영복
BCBG MAX Azria 슈츠
Adina Yester 별 모양 목걸이





Malin Akerman

출생지: 스웨덴 스톡홀름

생일: 5월 12일

대표작:

〈왓치맨〉, 〈뱅뱅클럽〉,

〈락 오브 에이지〉 (국내 개봉 8월 2일)

Amber Sakai 바디 슈트
Giuseppe Zanotti 슈즈
(오른쪽) Cosabella 브라
Juicy Couture 숏팬츠
Sydney Evans 반지
Loren Stewart 반지
Sydney Evans 반지

“
나는
말로 웃기는 것보다는
몸 개그에 강하다
”



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



신체 강탈자의 침입

네 여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다고?
똥 놈이 생겼거나, 외계인의 침입이 시작된 것이거나!

BY 송종민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전은경

Yo, 의사 선생님
yeah~ 이걸 뭐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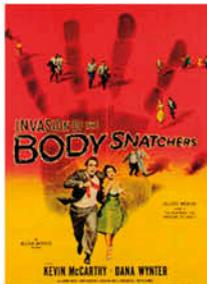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이제는 유명하다 못해 모르면 간첩인 1990년대 공포 소설 모음집의 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 대사 한 방에 신체 강탈자 영화의 모든 요소를 함축할 수 있다면? 신체 강탈자란 인간의 육체를 점령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괴 생명체(주로 외계인)를 말한다.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속은 전혀 딴 사람이라는 거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일단 겉모습은 똑같으니 내놓고 의심하긴 어렵지만 뭔가 말 못할 찜찜함과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 바로 이 불안과 의심을 스텔러로 극대화한 것이 바로 신체 강탈자 장르다.



소설 <거기 누구냐?>에 묘사된 외계인의 모습

신체 강탈의 시작



신체 강탈자의 기원은 1938년 발표된 존 W. 캠벨 주니어의 중편소설 <거기 누구냐?(Who Goes There?)>지만 가장 유명한 작품은 역시 1955년 발표된 잭 피니의 <바디 스내처>일 것이다(바디를 스내쳐, 즉 육

체를 날치기한다는 단어도 여기서 처음 등장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 그의 외모나 목소리, 심지어 기억까지도 달라진 건 없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다. 여섯 번째 감각이 불길한 위험을 알려준다. 나는 이를 알고자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미 모두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 장르의 공포는 바로 이거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오싹한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 당신에게 핫도그를 건 내던 편의점 직원, 친절함 미소로 나를 반기던 식당 아주머니, 심지어 항상 살을 맞대고 지내는 여자친구에게서조차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괴물의 산성 침과 촉수는 당장 피해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의심과 불신이라는 공포는 당신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강박으로 몰아넣는다. 외형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괴물이 없다는 점, 온갖 기발한 상상력의 결과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SF란 장르에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설정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SF 장르의 근본인 독자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그래서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4번이나 영화화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물론 CG에 들인 돈 대신 배우의 웅얼웅얼 도플갱어 연기로 대부분의 장면을 때울 수 있다는 경제적인 매력도 무시할 순 없었겠지만 말이다.

매카시즘과 신체 강탈



지금까지 나온 신체 강탈자 영화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1956년 제작된 돈 시겔 감독의 <우주의 침입자(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이다. 테크놀로지가 주요 흥행 요소인 SF에서 1956년 작품이 가장 사랑받는다니 이 장르가 지닌 특징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원작의 영향이겠지만 이 영화는 냉전 시대의 시작과 함께 미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한 매카시즘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다분하다. 매카시즘은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다

고 주장한 공화당 상원 의원 조지프 매카시의 이름을 딴 것으로, 1950년 당시 미국인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과 공포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덕분에 멀쩡한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직업을 잃거나 경력을 망치고 심하면 투옥을 당했다. 누가 마음속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이념 전쟁의 강박증을 엿볼 수 있다.

신체 강탈자 영화는 바로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강박에 주목했다. 영화에서 신체 강탈자 외계인은 곧 공산주의자다. 평소 익숙하던 이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사실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외계 식물의 포자가 아무도 모르게 사방으로 퍼지듯 자신들 속에 스며드는 것을 경계하라고 당부한다. 감염자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로 묘사한 부분도 이러한 혐의를 더욱 짙게 한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공산주의자가 아닐까?’라는 당시대 최고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공포는 그 어떤 괴물도 줄 수 없는 최고의 호러가 아니었을까.

물론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정치적 함의를 품고 있지는 않다고 극구 부인했지만 매카시 광풍이 휩쓸고 간 어수선한 시기에 딱 어울리는 사회적 풍자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신체 강탈의 역사

1938년 소설 <거기 누구냐?>

존 카네티 감독의 영화 <괴물(The Thing)>의 원작 소설. 신체 강탈자라기보다는 인격과 외형을 복제할 수 있는 변신 외계인에 가깝다.

1951년 소설 <퍼펫 마스터>

인간에 기생하면서 뇌를 조종하는 신체 강탈자의 개념이 바로 이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제목대로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 1994년 <에어리언 마스터>란 이름으로 영화화되었다.



1951년 영화 <괴물> (The Thing From Another World)

<거기 누구냐?>의 첫 영화판 작품. 제작 기술의 한계로 복제 외계인이 아니라 원 프랑켄슈타인이 나온다. 그래도 <괴물>의 원작이라는 무게감은 무시할 수 없다. 이 작품의 진짜 적은 내부에 있는데, 외계인을 생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다. 이 과학자를 보고 할말이 두 배쯤 오르지 않으면 당신은 대인배.

1955년 소설 <바디 스내처>

잭 피니가 쓴 신체 강탈자 장르의 슈퍼스타. 무려 4번이나 영화로 제작되었다.

1956년 영화 <신체 강탈자의 침입>



잭 피니의 원작이 등장하고 바로 이듬해 영화로 제작한 것을 보면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채크와 콩나무>보다 충격적인,

사람이 열리는 나무가 나오고 그 열매인 공각지를 들고 옮겨 다니는 장면이 무서우면서도 웃기다.

1978년 영화 <우주의 침입자>

22년 만에 리메이크된 신체 강탈자. 정교해진 특수 효과로 인간이 식물에서 생산된다는 역겨운 공포를 더욱 실감나게 묘사했다. 특히 신체를 강탈당한 인간의 무표정 연기가 매우 소름끼친다. 특히 비감염자를 발견할 때 날카로운 고성을 지르는데, 한 동안 당신의 귀에서 이 비명 소리가 지워지지 않을 것을 장담한다.

★ 지구 침략 교본 ★

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이 자료는 동지가 지구에서 깨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담은 매뉴얼입니다. 동지가 이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해야 우리의 지구 식민지 정복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고 싶진 않으시겠죠?

1. 동지들은 우주 포자로 날려 이동합니다

우리의 포자가 지구의 식물에 안착해 지구의 꽃으로 위장합니다. 처음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지구인도 쉽게 착각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으로 숨어들어가 그들이 취침할 시간을 노리십시오.



2. 지구인이 잠든 시간이 적기입니다!

정보부에서 알아낸 바에 따르면 지구인은 하루에 8시간가량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잠든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재빨리 복제를 시작하십시오. 단, 주변 지구인에게 들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변이 과정은 우리 종족이 가장 약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3. 지구인의 가족을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기술로 지구인들의 외모와 기억은 복제할 수 있지만 아직 행동습관까지는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을 조심하십시오. 개드립을 자제하고 최대한 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밤을 기다리십시오.



4. 동족들과 교류하십시오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힘은 커집니다. 주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동족들과 만나십시오. 그들과 함께 포자를 더욱 번식시킬 수 있는 공장을 세우고 포자를 더욱 퍼뜨리십시오. 지구 정복이 눈앞입니다!



5. 할당량을 채우십시오

포자량을 지구 전체로 실어 나르는 일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변 커뮤니티에 등록하고 하루 할당량을 채우십시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지는 커뮤니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6. 신고하십시오

평소에는 우리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것을 권장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우리의 정체를 아는 지구인을 만나면 크게 소리쳐 주변 동지들에게 알리십시오. 단결된 동지애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응징하십시오.



1979년 영화 <에일리언>

에일리언은 스스로 번식할 수 없어 숙주의 몸속에 알을 낳는데, 단독 생활이 가능해질 만큼 성장한 후 숙주의 배를 찢고 나온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한동안 화장실이 이유 없이 당길 것이다.

를 의심하는 대원들의 두려움 가득한 눈동자가 더욱 마음을 흔든다. 특히 마지막 혈액 검사 장면은 서스펜션이 극에 달하는 명장면.

1987년 영화 <히든>



신체 강탈자 영화의 숨은 명작. 원래 숙주의 성격을 복제하는 다른 작품과 달리 외계인 본연의 취향이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헤

1982년 영화 <괴물(The Thing)>

B급 영화의 거장 존 카펜터의 대표작. 폐쇄공포증을 자극하는 고립된 남극 기지를 배경으로 대원들 사이에 몰래 숨어든 괴물을 색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묘사했다. 피가 난무하는 고어 신보다 서로

를 의심하는 대원들의 두려움 가득한 눈동자가 더욱 마음을 흔든다. 특히 마지막 혈액 검사 장면은 서스펜션이 극에 달하는 명장면.

비메탈과 페라리를 좋아하는 너란 외계인의 고급스러운 취향... 민달팽이처럼 생겨서 몸에서 몸으로 옮겨 다니는데, 숙주는 반드시 죽게 된다. 가장 특이한 점은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나쁜 민달팽이를 잡기 위해 착한 민달팽이가 인간을 돕는다는 거다.

1990년 만화 <기생수>

기생체들에게도 나름의 성격이 있다는 인간적(?) 접근이 역시 캐릭터를 중시하는 일본 만화답다. 원래 기생체들은 안정적인 서식처와 에너지 공급을 위해 최



대한 숙주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같은 공진화(co-evolution)의 결정체가 바로 주인공 신이치와 기생수 '오른쪽이'의 관계다. 실수로 뇌를 점령하는 데 실패하고 오른쪽 손만 차지한 오른쪽이가 다른 기생 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숙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눈물겹다. 하지만 원래 동계가 더 똑똑하고 혼혈이 더 예쁜 법. 인간의 뇌와 기생수의 힘의 조합은 놀랍도록 파워풀했다.

— ☆ 신체 강탈자의 흔한 특징 ☆ —

요즘 지구 상에 인간인 척하는 괴물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 안전 가이드를 배포합니다.
주변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홀로 다가가지 마시고 가까운 기관에 신고하세요.



1. 적은 당신의 눈을 속일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의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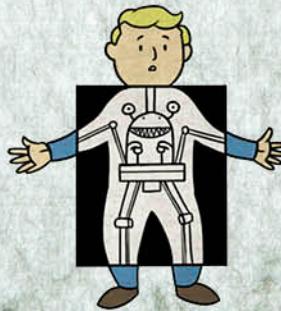
2. 감염자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무표정한 자를 신고하십시오.



3. 그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4. 잠든 시간은 방어가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각성제를 복용하십시오.



5. 공항 검색대는 훌륭한 외계인 구별 수단입니다.



6. 당신의 가족은 이미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60년 인류 수탈의 역사



1993년 영화 <보디 에일리언>

신체 강탈자의 세 번째 리메이크 작품. 여주인공 가브리엘 앤 워의 빛나는 미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94년 영화 <에일리언 마스터(The Puppet Masters)>

가오리를 닮은 외계인이 척추를 침범을 꽂아 신경을 연결함으로써 숙주를 장악한다. 맨몸이라면 외부에서 외계인의 모습이 그대

로 드러난 형태다. 특이한 점은 가오리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설정이다. 평소엔 잃었던 모든 질병이 없어지고 신체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가오리를 떼어내면 강력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1998년 영화 <패컬티>

할리우드의 악몽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틴에이지 무비와 신체 강탈자를 교묘하게 섞어 블랙코미디로 재탄생시켰다. 재미있는 점은 코카인이 외계인의 약점이라는 것. 덕분에 혈액 검사로 결백을 증명하는 영화 <괴

물>을 패리디해 집단으로 똥을 맞는 명장면이 탄생했다.

2007년 영화 <인베이전>



신체 강탈자의 가장 최근 리메이크 작품. 추락한 우주 탐사선에 묻어 들어온, 세포로 된 고등 독립 생명체가 웬지 더 과학적인 냄새를 풍긴다. 하지만 여기서도 발전

한 거라곤 주인공 니콜 키드먼이 더 예쁜다는 사실뿐.

2012년 영화 <연가시>

외계인 신체 강탈자가 대부분인 장르에 홀연히 나타난 실제 기생충. 원래 연가시는 메뚜기 사마귀 등에 기생하다가 번식할 때가 되면 숙주를 물가로 유인해 자살하게 만든다. 그 후 유유히 숙주의 몸을 뚫고 나오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껴 몇 해 전부터 갑자기 이슈화되더니, 결국 연가시가 사람도 조종할 수 있다는 설정까지 나오고야 말았다. 블러쥬요, 세스코!





Bitch!

귀걸이 오르시아
구두 키사
(앞 페이지)
원피스 에고이스트
목걸이 오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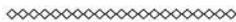
여
원피스 탑걸
구두 엘리자벳
키디건 에스제이에스제이

남
티셔츠 타이힐피거
바지 시리즈
시계 디앤지

(앞 페이지)
남
티셔츠 캘빈클라인
바지 시리즈

여
원피스 스위트숍

곽현화, 그녀가 바나나, 유혹, 엉덩이, 나뭇꾼 그리고 나쁜 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늘 촬영 콘셉트는 '나쁜 년'이다. 촬영은 어땠나?
아주 좋다! 스토리가 있는 화보를 찍은 건 처음이다. 화보 제목을 한국어로 '나쁜 년'이라고 하면 더 인상 적일 거다. 곽현화의 '비치'라니, 해변 비키니 화보인 줄 알고 많이 낚이겠다. 그녀저나 당구대에서 같이 촬영한 남자분이 귀에 대고 5초마다 짹짹거리서 웃 음 참느라 혼났다. 별명도 지어줬다. '짹짹'이라고.

귀가 붙어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애주가라는 소문 을 들었다. 얼마나 자주 마시나?
일주일에 3번 정도? 맥주는 1,500cc, 소주는 1병 반 쯤 마신다. 왕년엔 어마어마하게 마셨다. 연극동아 리에서 아침까지 마시곤 했으니까. 난 주로 '주조상 궁'이 되어 폭탄주나 벌칙주를 만들었다.

연관 검색어가 경이롭다! '곽현화 유혹'은 뭔가?

〈사랑과 전쟁〉에서 불륜녀로 나와서 남자를 유혹하 는 장면을 많이들 찾아본다더라. 스스로도 내 유혹 장면이 그 드라마의 레전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성형 전'이라는 검색어도 있다.

엄마는 아직도 성형 전이 예뻐다고 하신다. 참고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슴 확대술을 받았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레알 자연산이다.

정말인가? 믿을 수 없다.

만져봐라. 재!

수년 간 수유기관을 보고 만져온 경험에 비추어 이젠 진짜군! 어릴 성형해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하나?
눈. 하지만 개그맨들은 주로 양약을 하지.(웃음) 부 모님, 양약 안 해도 되는 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색어 중 최고봉은 단연 '바나나'다.

개그맨 동기들이랑 몇 년 전에 찍은 단체 사진이 갑자기 인터넷에 돌면서 (정)범균이가 취한 포즈가 성 행위를 연상시킨다는 논쟁이 붙었다. '재들 원래 문

란하다더라'는 말도 나오고, 물론 사진을 보면 오해 할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숨기려던 사진도 아닌데, 마치 문란했던 내 과거를 밝혀낸 듯 죄인 취급을 하 는 건 이해할 수 없었다. 농담을 하듯 장난스럽게 찍 은 사진을 대체 왜 웃어넘기지 못할까? 자기와는 웃음코드가 달랐다면 그냥 패스하면 그만인 걸. 집 요하게 천박한 XX이라며 욕을 해댔다. 그게 그렇게 분노를 살 일인가? 그래서 네티즌들이랑 갑론을박 하다가 일이 그렇게 됐다.

어쩌다 야밤에 바나나를 들게 됐나?

성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태도가 이중적이고 답 답하게 느껴져 논쟁 중에 바나나를 예로 들어 설명 했다.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섹시하게 먹고, 누군가 는 이를 즐겁고 섹시하게 느꼈다 차차. 그런데 다른 이가 나타나 둘을 '천박하고 문란한 쓰레기, 걸레'라 고 맹비난한다. 이 세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문제적인 가를 묻는다면, 나는 바나나를 먹은 사람도, 섹시함 을 느낀 사람도 아니라고 본다. 성적 기호는 다양하 고 지금껏 개인적인 영역의 것이니까. 비난의 욕구가 일어나면 그 또한 개인적인 영역에 남겨두면 된다.

GO TO
MAXIM
iPAD
미공개 컷



곽현화

태어난 곳: 부산

생일: 3월 2일

이상형: "배우 김윤석 씨 같은 아저씨 스타일,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책임지고 보호하려는, 조금은 마초적인 남자."

주조상궁 곽현화의 별칭주:

"담뱃재 조금 넣고, 안주 섞고, 부대찌개에 슬 말아서 주고,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수학의 정식> 연습 문제 풀이:

"함수 문제는 원리를 떠올려서 풀 수 있을 거고 공식을 외워서 푸는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공식을 유도해 풀 수 있다."

트위터: @kwakhyunhwa

페이스북: facebook.com/hyunhwakwak

구두 키사
귀걸이와 팔찌 오르시아

남
정장 지이크
셔츠 인터메조
구두 소다움즈

“
환김에 심야의 편의점을 돌며
싱싱한 바나나를 찾아 헤맸다.
”

구두 도나체티
팔찌 케이트아이린



그렇게 설전을 벌이는데 죽어도 말이 안 통하는 거대! 답답해서 바나나 사진을 올렸다. 밤 12시에 편의점을 전전하며 바나나를 찾았다. 이왕이면 싱싱하고, 거부감 들 정도로 크거나 또 너무 작지 않은 적당한 걸로(웃음) 사진을 올리고 나니, 앞뒤 맥락 다 잘리고 밤에 이상하게 바나나 먹는 천하에 몹쓸 년이 되어있었다.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었군?

황당해서 "난 바나나 이렇게 먹어. 그게 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내가 바나나 먹는 다른 사진을 찾아서 '곽현화 원래 바나나를 섹시하게 안 먹는다! 이게 증거다!'고 하고, 어떤 기자가 그걸 또 증거랍시고 "곽현화, 완전 거짓말쟁이"라는 식의 기사를 썼다. 어린이 기자단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아무리 대인배라도 기분이 썩 좋진 않을텐데?

성에 대해서, 타인의 표현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하라"는 뜻이었는데 오밤중에 내가 이걸 왜

올렸는지는 사라지고 바나나 빼는 여자만 남았다. 그걸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난 아주 몹쓸 여자다. 바나나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바나나를 갈아마시든 빨아먹든, 눈을 동그랗게 뜨든 네모날게 뜨든 내 자유 아닌가? 근데 이젠 그러려니 한다. 내가 옳든 남이 옳든 싸운 후엔 끝이 안 좋다. 그리고 네티즌 이랑은 싸우지 말아야지. 어유, 힘들어.

바나나 홍보대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델몬트에서 전화 올 때가 됐는데.(웃음)

정범균씨는 이 일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한창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일 때 범균이가 술마시고 풀이 죽어 전화를 걸어 "누나 미안해"라고 하더라. "뭐가 미안하냐? 누나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난 소속사 없는 독립군이니까 관찰야"라고 다독였다. "미안하고 고마워, 누나"라면서 조금 풀렸는지 끊기 전에 농담으로 "그럼 한 김에 누나가 끝까지 십자가

메"라더라.(웃음) 아차, 그냥 친해서 농담한 건데 이 기사 때문에 또 오해받는 거 아냐?

'나무꾼'이라는 검색어도 있던데?

사극을 찍은 적도 없는데 이게 뭔가 싶어 클릭해봤다. <절대남자>에서 입고 나온 의상 때문에 곽현화가 속옷을 입었네, 안 입었네 하는 논쟁인데, 나도 보고 빵 터졌다. 그나마 '나무꾼'이란 검색어는 착한 편이다. 사실 '도끼'이런 게 나올까봐 걱정했다. 나무꾼은 귀엽지 않나. 참고로 그 당시 속옷은 입고 있었다. 그냥 내 몸매가 좀 풍만해서 그렇게 보였겠지.(웃음)

김경진이 "곽현화랑 사귄 바엔 차라리 군대를 다시 가겠다"던데, 이게 무슨 거짓말은 소린가?

나도 김경진에게 "너랑 사귄 바엔 평생 처녀로 살겠다"고 했다! 사실 둘이 친하다. 하지만 내가 술 먹고 사귀자고 하면 안 사귀고 버릴 재간이 있나? 그리고 지금 김경진 씨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웃음)

당신이 쓴 <수학의 여신>은 쓸쓸하게 팔렸다?

기출 문제집도 아닌 공부 방법론을 다룬 책치고 많이 팔렸다. 책 띠지에는 '청소년 권장도서'라고 써있더라. 수학 관련 도서에 파격적인 뒷태 사진을 썼으니 서로 권장하고 손이 자꾸 갈 수밖에!

우리랑 인강(인터넷 강의) 한 번 해보자!

좋대! 성인을 위한 인강은 어떤개 문제를 풀면 웃이 확확 바뀌는 설정을 넣어 보자.(웃음)

남의 남자를 탐하는 나쁜 년에게 봉변당한 적이 있나?

본 적은 있지만 당한 적은 없다. 아,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당하고도 나만 몰랐을 수 있겠네?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적은 없다. 폼으면 내가 폼지.

남자에게 차인 적이 있나?

한 번 있다. 대학생 때 만난 남자친구인데 개 때문에 별짓 다했다. 밤새 집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다. 험한 동네였고 내 주변에 술 취한 아저씨가 서성대는데도 안 나와보더라. 그러곤 갑자기 자기 공부해야 된다면 나를 찼다. 헤어진 지 얼마 후 전화가 왔다. 살짝 기대하고 받았는데 "커플요금제 해지하러"더라.(웃음)

당신이 생각하는 나쁜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말한 개! 진짜 나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여자랑 비교하는 남자도 싫다. "저 여자 죽이지? 너는 뭐냐?" 이런 남자가 진짜 나쁘다. 여자친구 외모가 조금 별로라도 "스타일 바꿔 볼래?", "이거 잘 어울리겠다. 어때?" 등 은유적으로 돌려 말할 방법은 많은

데 사람을 무시하면 쓰나! 서로가 최고다. 제일 예쁘다. 멋지다고 치켜세우는 건 커플 사이의 약속이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친구로 지내는 편인가?

여자친구보다 더 편할 때가 있다. 불알을 바꿔 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고민도 털어놓고 술도 마시고, 인터넷 안 될 때 고쳐달라고 하기도 하고.

애인이 있다면 얼마까지 돈을 댈 줄 수 있나?

이건 신뢰 문제인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천만 원까지는 괜찮다. 천 이상 넘어가면 차용증을...

당신이 받은 것 중 정말 황당했던 선물은?

예전에 자꾸 자기 엄마 물건 들고 오는 남자가 있었다. 엄마 쓰던 향수, 생활기스 난 명품 선글라스...(웃음)

당신과 또 화보를 찍고 싶다! 생각해 둔 콘셉트가 있나?

가벼운 일상 페티시도 좋다. 간호사, 군인... 대학 강사? 근데 이런 주제로 화보를 찍으면 관련 단체에서 굉장히 싫어한다. 자기 직업은 너무 신성하니 성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상상의 자유마저도 억압당할 때가 있다. 하여튼 직업 페티시를 할 거면 뚜렷한 노조가 없는 집단을 해야 한다. 음, 프리랜서 가정부?

지금 MAXIM 독자들 여럿 코피 터졌겠다. 뭐만 하면 회한한 연관 검색어가 붙는데, 우리랑 페티시 화보까지 하면 아주 세상이 뒤집어지겠다.

연관 검색어들 재미있지 않나?(웃음) 나 바이럴 마케팅의 여왕인가? 대책 없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난 솔직하게 순간의 감정을 밝히는 것뿐이다. 먼 미래도, 과거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속시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왜 없겠나. 특히 엄마, 아빠까지 파곤해질까봐 걱정도 된다. 아빠는 아직까지도 그러신다. "어허, 거, 바나나, 거참!" 대학교 때 상경해서도 걱정 많이 끼쳤다. 술 먹고 길에서 뺨고 그랬거든. 그때 언니가 이런 쪽지를 보냈다. "제발 머리에 쓰레기 붙이고 오지 마."

최근에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찍었다고 들었다.

8월에 개봉할 예정이다. 저예산 멜로 영화인데 조신하고 정숙한 여자로 나온다. 여주인공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분은 욕구 표출이 아주 자유로운 여인으로 등장한다. MAXIM 독자 여러분도 많이 와서 보면 좋겠다. 내 뒷태 누드도 나온다! 뒷태 뿐이지만 어쨌든 올 누드다. 기대하라. 후훗.

바쁘군! MAXIM 표지는 언제 할 건가?

요즘 <이상호 기자의 발누스>라는 정치 프로그램도 즐겁게 하고 있고 강예빈 씨랑 게임 방송도 시작한다. 죽이 잘 맞아서 재미있을 거다. 나중에 강예빈씨랑 이파니 씨랑 다 같이 MAXIM 표지 하면 어때?

맘소사, 모조리 MAXIM 표지 모델들이었잖아? 자기 전에 도장 찍고 가라. M





촬영 현장
영상 공개
(노모)





왼쪽 남
재킷 지이크
셔츠 인터메조
바지 시리즈

오른쪽 남
시계 디앤지



BY 이영비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이주연
DESIGN 권은경 ASSISTANTS 서현우, 이영환, 이진영
MODELS 김현우(남), 김정윤(여), 안진호(뱀뱀이)

COOPERATIONS

지이크(02-2143-7628), 소다음므(02-546-7764),
탁미힐피겨(02-512-4996), 라코스테(02-6911-0843),
디앤지(02-3284-1300), 탈걸(02-2143-7785),
엘리자벳(02-3409-1027), 예고이스트(02-3449-2878),
스위트숍(02-3442-220), 도나체티(02-546-7764),
오르시아(02-543-7625), 키사(02-3446-9949),
인터베조(02-3446-9949), 시리즈(02-546-7764),
에스제이에스제이(02-3416-2003), 케이트아이린
(02-546-7764), 캘빈클라인진(02-6911-0764)

비키니 상의 코데즈컴바인
신발 로얄엘라스틱
테니스 라켓 헤드



OH, MY OLYMPIC

콘돔 7만 개가 동이 나고, 비둘기가 산 채로 타 죽는 광경을
전 세계인이 생중계로 목격할 수 있었던 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때문이다.
2012 런던 올림픽을 맞아 여친에게 잘난 체하기 좋은 올림픽 진기록들을
알려주마. 이렇게 화끈한 걸 좀 더 자주하면 안 되나?



BY 김화성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해빈 MODEL 김지은 FILM 조종재
DESIGN 신숙희 ASSISTANTS 손안나, 조용재
COOPERATIONS 코데즈컴바인, 마루 이너웨어(02-2117-7000), 로얄엘라스틱(1588-3637),
프레디(02-3444-7712), 헤드(02-3677-8734), 아디다스 퍼포먼스 축구(080-022-7981)
시스루비키(www.seethrough-viki.com)



비둘기 화형식

19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평화의 메신저라며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 이게 꽤 관찰아 보였는지 이후 거의 모든 올림픽 개막식에서 인간들은 비둘기를 날려 보내 왠지 모를 감동을 느끼곤 했다. 88 서울 올림픽에서도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 굴렁쇠 소년이 들어오고, 손기정 옹을 비롯한 성화 봉송 주자가 점화대에 올라간 바로 그 감동적인 순간! 비둘기 3,000마리를 날리는 것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것으로 모자랐는지 푸드덕거리며 날던 비둘기 중 몇 마리가 성화대에 안착했고, 점화 순간 산 채로 타다닥 구워졌다. 이후 비둘기는 점화식 후 날려 보내거나 아예 순서에서 제외됐다는 슬픈 이야기가...

310,700 달러

하키 선수 마크 웰스가 1980년에 딴 금메달이 2010년 경매에 낙찰된 가격. 그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메달을 경매에 부쳤다고.



10년, 218일

올림픽 출전 선수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메달리스트의 나이다. 제1회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한 그리스의 체조 선수 디미트리오스 로운드라스는 당시 열 살이라는 나이에 평행봉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륙의 개막식

2008 베이징 올림픽은 개막식 리허설만 13개월 동안 진행됐다. 100명의 소녀가 비파를 연주했으며, 개막식 촬영 장면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비디오 기록관만 해도 9명이 필요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작 개막식에서 '조국을 향한 노래'를 불러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한 아홉 살 소녀 린마오커는 립싱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여워서 뽑았는데, 노래 실력이 별로라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다른 아이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튼 것. 아직 놀라긴 이르다. 개막식의 화려한 폭죽 쇼의 일부는 CG, 각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전통 의상 차림으로 등장한 어린이 56명 모두는 소수민족이 아닌 한족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은 역사상 최다 인구가 함께 본 것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재밌는 걸 당연히 안 볼 수 없잖아?



500 배

영국의 한 베팅 업체는 "런던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도중 비가 내려 성화가 꺼진다"에 25배의 배당률을 책정했다. 그리고 성화 점화자가 성화를 보호하기 위해 개막식에 우산이 달린 모자를 쓰고 나타날 가능성에 무려 500배의 배당률을 책정했다.

70,000 개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선수촌에 비치하는 콘돔 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7만 개를 준비했는데, 다 쓰는 바람에 2만 개를 추가 주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리다 섹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라.

173 cm

런던 올림픽 선수촌의 침대 길이. 이에 유로스포츠닷컴은 "1908년 런던 올림픽 때 썼던 침대를 100년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쓰는 거냐"고 조롱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병신 같았던 승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수영 자유형 남자 100m 예선에 출전한 적도 기나의 에릭 무삼 바니는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부정 출발을 하는 바람에 혼자 출발하게 되었다. 수영을 제대로 배운 적 없었던 그는 사각 수영복을 입고 헤엄치는 내내 한 번도 물 속에 머리를 넣지 않는 개헤엄으로 1분 52초 만에 겨우 완주했다. 경기가 끝나고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완주했다”는 말을 남겨 더 유명해졌다.





다시 보고 싶은 종목 4

잠영

제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1904년)

물에 들어가 60초 동안 꿈쩍 않고 견디거나 물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를 재는 종목. 미국 선수만 참가했는데, 윌리엄 디카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펠프스를 낳은 나라의 위엄은 이 정도다

싱글스틱

제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1904년)

나무 막대기를 들고 마주 선 다음, 상대의 머리를 공격해 먼저 피가 나는 쪽이 지는 경기다. 어? 이거 웬지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줄다리기

제2회 파리 올림픽(1900년)

~제7회 안트베르펜 올림픽(1920년)

5명에서 8명이 한 팀을 이뤄 상대팀을 원래 위치에서 약 1m 80cm를 끌어당기면 이긴다. 5분이 지나도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으면 더 많이 잡아당긴 팀이 승리하게 된다.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일반 스포츠화를 신은 미국 팀이 스파이크가 박힌 신발을 신고 나온 영국팀을 향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심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권했다. 결국 영국이 메달을 휩쓸고 줄다리기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되었다. 런던 올림픽 기념으로 이거 다시 해보면 안 되나?

피곤 슈팅

제2회 파리 올림픽(1900년)

살아 있는 비둘기를 날린 뒤 총으로 쏘아 맞추는 경기. 벨기에 선수 레온 데 룬덴은 2마리의 비둘기를 쏘 죽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프랑스의 모리스 파우레가 1마리 차로 지고 말았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300마리 넘는 비둘기가 총살당했다. 차라리 우리처럼 굶는 게 인도적이지 않아? (적어도 낚새는 더 좋잖아.)



2,302 개

미국이 지금까지 획득한 메달 수.
다른 나라보다 무려 1,000개 이상 더 많
다. 양키들은 단체로 펠프스한테 넘죽
절이라도 해야겠네.



술 흘리지 마! 날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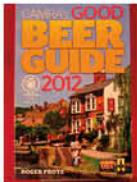
세계 맥주 기행: 영국 편

런던 올림픽과 치맥이 당신을 매력남으로 만들어 준다면 믿겠는가?

BY 이효복 (대표이사 / www.wabar.co.kr)
DESIGN 전은경

올림픽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엔 영국 런던이다. 당신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올림픽이 훌륭한 축제라는 데는 동의할 거다. 먹고살기 바빴던 사람이 열혈 애국자가 되고, 한·일전 축구 경기라도 있는 날이면 근무시간이 광속으로 지나간다. 어디 그뿐인가. TV만 켜도 전 세계 미녀들과 한마음, 한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여자를 훔치게 만드는 '그럴듯한 남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빠, 오프사이드가 뭐야?" 같은 초심플한 질문에 친절히 답하며 그녀의 볼을 한번 꼬집어줄 기회가 생긴다는 말이다. 해박한 스포츠 지식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올림픽 개최국과 관련한 그럴듯한 설명도 덧붙여보자.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면서 함께 치맥을 먹으며 시크하게 말이다. "영국 맥주도 끝내주는데, 마셔봤어?"

펍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 영국



영국인이 사랑하는 세 가지가 있다. 정원 가꾸기, 축구 그리고 펍(pub, public house)이 그것이다. 낮에는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삼삼오오 모여 맥주를 마시며 축구를 보는 영국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라. 1년 내내 흐린 날씨가 무색하리만큼 여유와 맥부심이 가득하다. 영국의 맥주 생산량과 소비량은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다. 영국인들은 “펍을 빼고는 영국의 일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맥주를 사랑한다. 매년 발행되는 <굿 비어 가이드(Good Beer Guide)> 역시 펍에 대한 영국인의 각별한 애정을 증명하는 좋은 예다. <수확의 정석>을 안 본 한국인이 없는 것처럼, 영국인은 대부분 이 책을 적어도 한 권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굿 비어 가이드(Good Beer Guide)>는 정말 좋은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펍을 매년 5천 군데씩 소개한다. 지역별로 펍을 나누고 그곳에서 제조하는 맥주의 맛과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다. 숙박 시설이나 교통편도 안내해 직접 좋은 맥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가이드’인 셈이다.

영국 에일의 또 다른 이름, 캐스크 에일

앞에서 말한 <굿 비어 가이드(Good Beer Guide)>가 소개하는 ‘좋은 맥주’란 영국 전통 에일을 말하는데, 맥주 공정 방식에 따라 정의하면 ‘캐스크 에일(cask ale)’이라고도 한다. 캐스크 에일은 요즘 맥주와 달리 전통 방식으로 만든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떠나 곧바로 펍의 지하 저장고(CELLER, 셀러)로 보내는데, 그곳에 보관된 캐스크(술을 담아두는 나무통) 안에서 숙성되며 점차 풍미를 더하게 된다.



캐스크 에일은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영국 맥주다. 영국인들은 이를 리얼 에일(real ale)이라고 부르는데, 맥주 안에 들어간 살아 있는 효모와 잔당(sugar)에 의해 2차 발효가 일어난다. 2차 발효의 중요성은 ‘자연 탄산’에 있다. 2차로 발효되는 시간 동안, 캐스크 안에서 자연적으로 탄산이 발생한다. *라거(lager)처럼 자극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밋밋하지 않은, 은근하고 자연스러운 맛이 입안에 감돈다. 이렇게 숙성된 캐스크 에일은 *드래프트(draft)로 마셔야 제맛이다. 살균을 거친 라거에 비해 청량감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라거(lager) 저장 공정에서 숙성한 맥주로, 거품이 많고 색이 연함

*드래프트 비어(draft beer) 살균을 거치지 않은 생맥주

캐스크 에일의 맛을 좌우하는 ‘셀러 매니저’

캐스크 에일은 맛이 좋은 만큼 관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손이 많이 갈 뿐 아니라 세심한 기술 또한 필요하다. 펍의 지하 저장고를 관리하는 ‘셀러 매니저’는 사실 장인에 가깝다. 철갑상이 부레로 만든 정제물을 투입해 효모를 안정시키고, 탄산이 과하다 싶으면 캐스크 입구에 구멍을 뚫어 적절히 제거하기도 한다. 각각의 캐스크에 담긴 맥주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영도와 자연 탄산, 맛의 변화를 아기 다루듯 세심히 살핀다. 셀러 매니저의 정성과 기술이 펍의 맥주 맛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관리에 비해 캐스크 에일의 수명은 매우 짧다. 일단 개봉한 에일은 24시간 내에 마셔야 한다. 3~4일만 지나도 식초처럼 거친 신맛이 나서 마실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같은 지하 저장고에서 숙성했다더라도 어떤 캐스크에 담았는지에 따라 맥주 맛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에일을 마시며 미세한 맛의 차이를 느껴보는 것도 꽤 즐거울 거다.

유럽 맥주 소비자 운동의 중심, 캄라(CAMRA)



하지만 캐스크 에일은 한때 고사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거대 양조업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등장한 케그 에일(keg ale) 때문이다. 케그 에일은 여과와 살균 처리를 거친 ‘깨끗한’ 맥주였다. 지하 저장고에서 자연 숙성되는 캐스크 에일과 반대로 공장

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었다. 유통기한이 길고 제조가 쉬운 케그 에일의 인기는 올라갔고, 캐스크 에일을 찾는 사람들은 즐기 시작했다. 1971년, 이를 안타까워하던 애주가들이 모여 *캄라(CAMRA)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캐스크 에일을 구하기 위한 소비자운동에 나섰다. 영국의 전통 맥주에 대한 작은 열정이 전국적인 소비자 운동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캄라(CAMRA)는 맥주 관련 포럼이나 출판 사업을 진행한다. 대기업의 양조 사업 때문에 지역 양조장이 폐쇄되거나 타 기업에 흡수될 때마다 시위를 벌여 이를 막기도 한다. 혹자는 시골벽적인 시위에도 영국 맥주 총생산량 내 캐스크 에일의 점유율이 1970년대 초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게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캄라(CAMRA)가 없었다면 오늘날 캐스크 에일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지도 모른다.

*캄라(CAMRA, Campaign for Real Ale) 1971년 영국 전통 맥주의 쇠퇴를 안타까워하던 애주가들이 모여 결성했으며 유럽 맥주 소비자 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단체로, 영국인의 국민 도서 <굿 비어 가이드(Good Beer Guide)>를 발행한다.

스포츠 경기는 치맥과 함께 봐야 제맛이다. 이 환상적인 공합을 질리도록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안타깝게도 4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귀한 시간, 목청 터져라 응원만 하다 끝내지 말고 스포츠와 여자 둘 다 잡아라. 청량한 영국 전통 맥주 덕에 ‘국경을 초월해 하나가 되는’ 올림픽 정신을 몸소 실현할 수 있다면 더 좋고. 



BOOZE NEWS



광안대교보다 아름다운
미녀 군단의 다리

카스와 함께 서핑 1박 2일!

젊음의 맥주 카스 라이트와 빌라봉이 함께 '카스 라이트 서핑 스쿨'을 진행한다. 현재 2차까지 진행된 이 서핑 스쿨에서는 요즘 대세인 서핑을 무료로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밤이 되면 후끈 달아오르는 핫한 파티, DJ 공연, 신체 접촉률 높은 각종 게임으로 임수 서로 정답게 노닐 수 있다고 하니 수영복에 자신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지원하라!

www.facebook.com/Cass.kr



하이볼의 계절!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이 주당들을 위해 위스키를 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8월 한 달간 전국 주요 업장에서 발렌타인 17년을 주문하면 1병당 스파클링 워터 2병과 정량이 표시된 하이볼 전용 글라스를 준다. 부드러운 발렌타인과 탄산의 상쾌함이 술이 약한 그녀를 술자리에 오래 머물게 해줄 거다 (경험담이야).



버드걸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도 미안하다고!

기대된다! 버드걸 페스티벌

갑자기 길에서 아가씨들이 '버드와이저'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댄스 플래시몹을 펼쳐도 너무 놀라지 마라. 버드와이저가 '버드걸 페스티벌'을 실시하고 플래시몹이나 퍼레이드, 버드걸 바 어택 등의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한편 8월 말까지 버드와이저 생맥주를 주문하면 스포츠 물병을 주는 이벤트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NON-ALCOHOL NEWS



깡통아, 깡통아, 에너지를 다오!

예로부터 여름철은 팔라 인간이 넘치는 계절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휴가철엔 에너지 음료가 풍년이다. 수많은 에너지 드링크 중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리차지 에너지는 과라나와 타우린으로 체력 충전을 도와준다고. 맛은... 음, 에너지 음료 맛이 다 박카스에 탄산 넣은 것 같지 뭐.

<http://rechargeenergy.net>



변은 싸고 다니니?

내장 튼튼, 마음 튼튼

다는 액티비아가 신제품 후보 47가지 맛 중 소비자 투표로 결정된 두 제품을 출시하는 이벤트를 연다. 7월 31일까지 이벤트 사이트에서 투표를 하면 추첨을 통해 55인치 HDTV, 미니벨로, 백화점 상품권과 제품 교환권 등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푸짐한 선물이 쏟아지는 SNS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키보드를 하얗게 불살라서 한 살림 챙겨보자고.

www.activa.co.kr/acti-choice

여기도 영국, 저기도 영국

고급 스파클링 드링크 슈웬스가 영국에서 건너왔다. 18세기 후반(민기 힘들겠지만 오토가 아니다)에 탄생한 이 음료는 지금까지 꾸준 영국 왕족들과 귀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레몬 토닉, 진저 에일, 그레이프 토닉 3가지 맛 중 고를 수 있으며, 가격 또한 저렴하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예뻐서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다. 가격 1,700원(350mL), 2,000원(270mL)



BOOBS NEWS

뺨아 마신다는 의미에서는 그리 다르지 않아.

세계 최대의 가슴녀

40kg짜리 가슴을 달고 사는 30대 미국 여성 클라라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수유 기관을 가진 인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성인 배우로 활약 중인 그녀는 거대 유방 중 때문에 그러한 물건을 달게 됐다.



가슴 크면 유방암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의사 양반! 미국의 한 유전자 회사에서 가슴이 AAA에서 DDD로 갈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여성호르몬이 유선과 종양 성장을 동시에 촉발하기 때문이라는 추측과 함께 말이다.



수유가 불로의 비결

폭폭 빨리면 폭폭 빠진다! 영국에서 70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유를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날씬하고, 심지어 그 날씬함은 무려 10년 정도까지 유지된다고 한다.

(자, 이 기사에서 '수유'를 '젖을 빨린'이라고만 고쳐서 그녀에게 알려주자. 왜, 뭐, 그게 그거잖아?)



BEER TOY: 지르고파!

맥주와 가슴이 만나는 그곳에 우리가 있지. 떠들썩한 여름 파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할 폭음 폭음 투브!



ITEMS FOR SEXY NIGHT

어느 여름밤, 해변가를 혼자 걷던 그녀를 꼬서 방 안으로 끌고 온 당신, 이제 준비해둔 무기들을 차례차례 보여주는 일만 남았다.

BY 유승민, 조용재 DESIGN 신숙희

Good choice 양키 캔들

Bad choice:

온라인 최저가 짝퉁 페로몬 향수

그녀와 함께할 아련한 밤을 상상하며 목욕 후 거실에 향수를 뿌려대는 당신. 하지만 혼자보다는 둘, 2P보다는 3P를 선호하듯 시각과 후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 요즘 대세인 아로마 향초 '양키 캔들'이 만들어내는 은은한 불빛과 달콤한 향은 그녀와의 척척한 딱방아질을 제과제빵 하듯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다.



SMOKE & DRINK

Good choice 그레그 옴드 라인

Bad choice: BYC 순백 팬티

한창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분위기에 취해 당신의 바지를 내린 그녀의 얼굴이 일순간 구겨진다. 거실에서 부채질하며 수박 드시던 아버지의 향취가 느껴지는 내추럴한 속옷은 금물. 그레그 옴드의 섹시 라인 속옷은 망사, T 팬티, 심지어 훈도시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섹시함을 선사한다.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준비한 남자만이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이지.



Good choice LUSH Sex Bomb

Bad choice: 알뜨랑 또는 다이얼 비누

말년 병장을 발그레하게 만들던 신병의 비누 향기를 그녀에게까지 풍길 필요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당신 코를 벌름거리게 하던 러쉬(LUSH)의 베스트셀러 'Sex Bomb'이 필요하다. 욕조에 입욕제를 붓고, 장미꽃으로 데커레이션 좀 하고, 미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밖에서 다소곳이 기다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물총 갖고 놀래?"



Good choice 멜로 영화

Bad choice: 공포 영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공포 영화→무서워→안긴다→츄름츄름 공식은 상상하고 멋대로 호러물을 틀었다간 호러블한 론리 나이트를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평소 그녀의 취향을 잘 고려해 은은하지만 끈적끈적한 베드신이 있는 멜로 영화를 틀어보자. 분위기에 취한 그녀와 아련한 눈길을 주고받았다면, 어젯밤을 설치며 기획한 에로물 크랭크인에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다.



Good choice 오카모토 003

Bad choice: 자판기표 팔기맛 콘돔

물론 이 역사적인 밤을 위한답시고 지하철 역사에서 500원짜리 콘돔을 뽑아 올 마친놈이 어디 있겠느냐만, 그렇다고 해서 세트로 준비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오카모토의 초박형 콘돔 003은 다른 저렴한 고무장갑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평소 바야를 찢으면서 니가 고무인지 고무가 그녀인지 모를 상실감을 느꼈다면 오카모토의 003을 사용해 보도록.



Good choice RAISON Cafe

Bad choice: 보급형 연초

애연가들에게 모닝뽕, 식후뽕만큼 중요한 것이 섹후뽕이지만, 녹초가 된 그녀 옆에서 냄새 풍기며 필터를 빨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만은 않다. 이왕이면 사향고양이가 되어 돌아온 레종의 신제품 RAISON Cafe를 준비하도록. 기존 시리즈와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케이스와 특유의 진한 커피 향이 당신과 그녀의 오감을 자극한다. 필터 속에 들어간 진짜 커피 알갱이의 풍부한 향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죽은 고래를 다시 한 번 춤추게 만들 것이다.



BLACK MAGIC WOMAN

나르گی스 파크리

미녀를 만나면 끊임없이 빠져가기를 날리는 MAXIM의 근성.
인도 MAXIM 에디터도 마찬가지였다!

PHOTOGRAPH FARROKH CHOTHIA
STYLING TANYA GHAVRI HAIR&MAKEUP MEHAK OBEROI
DESIGN 신속희





신선한 공기처럼 훑 하고 다가와 우리의 심장 박동을 가쁘게 하는 인도 여배우 나르기스 파크리. 미국에서 모델로 활동하던 그녀는 지난해 인도 영화 <록스타>의 여주인공 '히르' 역으로 영화계에 데뷔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보는 사람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마성의 눈빛과 입술을 지닌 파크리. 당신도 분명 그녀에게 반하고 말 거다. 그녀의 화보를 본 후 우린 며칠째 그녀가 나오는 음탕한 꿈을 꾸고 있거든.



반갑다! 당신 영화를 보면서 영화관 좌석을 축축하게 적실 정도로 군침을 흘렸다. 그 후 달력을 보며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지. MAXIM에 실리는 기분이 어떤가?

황홀하다. 촬영도 즐거웠고 결과물도 만족스럽다. 당신처럼 나도 MAXIM을 보며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정말인가? 우리는 당신의 아름다운 다리를 보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다! 이런 다리를 내려준 파키스탄인 아버지와 체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당신은 어린 시절을 뉴욕에서 보냈는지? 뉴욕커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

재밌다! 뉴욕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언어가 뒤섞인 놀라운 도시다. 새롭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 뉴욕 생활은 늘 흥미로웠다.

예전에 우리가 뉴욕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자신을 선머슴이라고 소개했다. 세상에 이런 다리를 가진 선머슴이 어디 있던 말인가!

외모가 선머슴이라는 건 아니고, 캐릭터가 그렇다는 거다. 나는 늘 모두에게 오픈 마인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와 대화하는 걸 편안해하고, 종종 속 깊은 얘길 털어놓는다. 특히 남자 친구들은 내게 연애상담을 많이 한다. 솔직하고 거침 없는 나의 충고를 들으면 남자들이 무척 좋아한다. 솔직히 나도 여자보다 남자와 대화하는 게 더 좋다!

근무 환경이 엄청 화려하니 주위에 카사노바나 나쁜 남자도 많을 것 같다.

내 주변이 화려한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박한 걸 좋아한다. 데이트도 마찬가지로. 데이트할 때면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나간다.

활동적인 아가씨로군?

나무도 탈 줄 안다! 매니큐어를 칠하며 빈둥거리는 건 딱 질색이다. 쇼핑도 싫어한다. 하지만 여성스러워 보여야 할 땐 또 나름대로 잘 연출하는 편이다. 봐라, 지금도 MAXIM을 위해 섹시미를 폭발시키고 있지 않나!

영광이다. 영화 출연하기 전까지 모델로 활동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 곳곳에서 활동했다. 수영복 화보도 찍어봤다. 처음엔 달력 화보인지 몰랐다. 그저 싱가포르의 어느 섬에서 촬영한다는 데 신나 있었고 쉽게 큰 돈을 벌었다. 그러고 나서 <아메리칸 빅스트 탑 모델>(타이라 벅크스의 모델 선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다. 거기서 배운 한 가지 사실은, 리얼리티 쇼가 결코 실제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다.



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쟁을 원치 않는다. 해야 할 일에 열정을 200%를 쏟아 부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그렇다고 내가 목표도 야망도 없는 미묘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진 마라. 그냥 성격이 무뎠을 뿐이다. 모나지 않은 성격도 나를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를 볼 때 국적을 따지나?

인종이나 국적 같은 건 상관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지 않나? 그중에서 뻘하지 않고 특별한 누군가를 찾는 게 힘든 일이지. 그런 사람 알면 소개 좀 해달라. 이력서를 받아줄 테니!

어떤 남자에게 끌리나?

지적인 매력이 넘치고 배울 점이 많은 남자. 또 취미가 같으면 좋겠다. 유머 감각도 중요하다! 나만 웃기면 재미없잖아. 대신 '척' 하는 남자는 싫다. 무슨 차를 타고, 무슨 보트를 샀는지, 최근에 성사시킨 계약이 얼마짜리인지 따위엔 관심 없다. 그보다는 그의 심장과 영혼이 궁금하다.

현명할 뿐 아니라 몸매도 착하고 특히 입술이 무척 섹시하다. 신체 부위 중 가장 자신 있는 곳은?
영덩이. 남녀 불문하고 다들 영덩이가 예쁘다고들 한다. 나는 눈이 가장 예쁜 것 같다.

이런 눈을 보면 남자는 물론 여자까지 반하겠다. 혹시 그런 적은 없었나?

한번은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내게 키스해도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입술이 너무 섹시하다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옆에 그녀의 남자 친구가 있었다. "칭찬은 고맙지만 NO!"라고 사양했다.

어떤 명칭이들은 올해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 명칭이들 얘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지구 멸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일단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갈 거다. 정말 좋아한다! 분명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는 배낭을 메고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가고 싶다. 아, 스카이다이빙도 해 봐야지!

지구가 멸망하는 날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정말 그런 날이 막상 오면 지구 멸망 장면을 사진으로 찍느라 정신없겠지만). 당신과 MAXIM은 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우리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음, 수수께끼?

당신이란 수수께끼를 풀도록 허락해줘!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의
주먹 대장
K-2 흑표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9월, 그 지루한 참호전을 종결할 신무기가 전장에 등장하니, 바로 강력한 화력과 탁월한 기동성을 갖춘 지상 최고의 무기 '전차'다. 그러나 전차는 강력한 성능에 비해 제조가 쉽지 않아 현재까지 독자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번 호에서는 순수 국산 기술로 전 세계 전차를 지리게 만든 고성능 국산 전차 'K-2 흑표'를 소개한다.

BY 김대영 DESIGN 전은경 IMAGE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방위사업청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언론 분야에 종사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다.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지상전의 왕자 전차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의 기나긴 참호전을 뚫기 위해 영국에서 개발한 전차는 이후에도 끊임없는 변신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영국이 선보인 최초의 전차는 무기의 기능보다 참호를 통과하고 거친 지형을 뚫고 나가는 이동 수단의 기능을 우선시했으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 그리고 기동성을 갖춘 가공할 무기로 탈바꿈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이후에도 수많은 전차를 생산했고, 기술 발전에 따른 장비의 변화에 따라 그 세대를 구분지을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제1세대로 불리는 것은 독-소전 당시 구 소련군에 승리를 안겨준 동시에 한국전쟁에도 참가한 구 소련의 T-34, 미국의 M-26 퍼싱(Pershing) 등이다. 당시 전차는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동 계산식을 이용해 육안으로 조준하는 방식을 차용했으며, 최대 80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었다. 1970년대에 등장한 독일의 레오파드 I, 구 소련의 T-55와 같은 2세대 전차는 스테레오식 거리 측정기를 장착했으며, 야간 투시 장비를 기본적으로 탑재해 더욱 수월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되었다. 또, 전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는 기존 90mm대의 구경을 100mm 이상으로 늘려 사정거리와 관통력을 강화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주력 전차(MBT)로 활약하고 있는 제3세대 전차는 거리 측정기를 레이저 방식으로 대체하고, 열상 장비를 탑재해 탐지 능력을 강화했으며, 최대 1,500마력까지 출력을 끌어올려 70톤에 육박하는 중장갑으로도 노상 최고 속도를 70km/h까지 낼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제3세대 전차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러시아의 T-90, 독일의 레오파드 II, 영국의 챌린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우리나라의 K-1 등이 있다.

제3.5세대 전차 가운데서도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전차로 평가받는 것이 육군의 차기 전차 K-2 흑표다.



전차무용론이 제기되었던 한반도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 미국의 군사 고문단은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상 전차를 기동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전차무용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구 소련제 전차인 T-34 240여 대를 앞세우고 38선을 돌파했다. 북의 전차들은 당시 전차 한 대조차 없던 우리 군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전쟁 발발 3일 만에 수도 서울까지 진입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북한군 전차에 밀려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해야 했다. 휴전 이후 남북한에서 전차는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 무기 체계로 등장했고,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변함없다.



K-2 흑표는 최신형 전자 포탄을 사용해 북한의 최신형 전마호 진차는 물론, 주변국의 어떤 전차도 관통시켜버린다.



간결한 포탑 형상과 긴 포신이 어우러진 외형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준다.



K-2 흑표는 2007년 3월에 시제 전차를 공개한 후, 2013년에는 실전 배치를 목표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육군의 차기 전차 K-2 흑표

1990년대 이후엔 제3세대 전차보다 진보한 제3.5세대 전차가 등장했는데, 프랑스의 르클레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3.5세대 전차의 핵심은 기존 제3세대 전차에 탑재한 아날로그 방식의 탄도 계산기와 거리 측정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량해, 실시간으로 정보지원이 가능한 차량 전자화(vetronics) 기술을 적용한 점이다. 우리 육군의 차기 전차인 K-2 흑표는 이러한 3.5세대의 전차 가운데서도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받아왔으며, 핵심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력, 방어력, 기동성 면에서 현재 육군의 최신형 주력 전차인 K-1A1을 앞서고 있다. 2007년 3월 시제 전차 3대를 처음으로 공개한 K-2 흑표는 2013년 실전 배치를 최종 목표로 양산을 앞두고 있다.

주변국 전차를 압도하는 강력한 화력

K-2 흑표는 화력 면에서 K-1A1의 주포보다 1.3m가량이나 더 긴 120mm 55구경 장주포를 장착, 간결한 포탑 형상과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느끼게 한다. 또 장착한 최신형 포탄은 북한의 최신형 전차 '천마호'는 물론, 주변국의 어떤 전차도 관통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다목적 고폭탄(HEAT-MP)을 사용해 공중에서 전차를 위협하는 공격 헬기를 직접 요격할 수도 있다.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 방호 체계

신형 모듈 장갑을 장착한 K-2 흑표는 전차가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포탄을 차단해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미사일 및 레이저 경고 장치와 유도 교란 통제 장치, 복합 연막탄 발사 장치 등을 갖춰,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미사일을 교란해 빗나가게 하는 국내 최초의 전차다. 이 밖에도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미사일과 로켓 포탄을 대응 파괴탄으로 무력화하는 능동 방호 체계도 장착할 예정이다.

강력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흑표 전차

K-2 흑표는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포장도로 및 일반 평지에서는 최고 70km/h로 달릴 수 있으며, 울퉁불퉁한 아지에서 50km/h 이상의 속력을 낸다. 또 4.1m 깊이의 강이나 하천을 건널 수 있어 도하 능력도 다른 나라의 전차보다 뛰어나며, 지면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과 감쇠 장치가 로드암 내부에 내장된 형태의 '암 내장형 현수장치(SU)'를 장착해 기동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전차의 첫 번째 바퀴에 설치한 감지 센서는 지형 형상을 미리 감지하고 후면의 바퀴를 지형에 맞게 제어함으로써 주행 중 차체의 충격을 줄여 탑승자로 하여금 무빙워크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신형 모듈 장갑을 장착한 K-2 흑표는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전차 포탄으로부터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K-2 흑표는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아지에서 50km/h 이상의 고속으로 달릴 수 있다.

세계 최정상급의 한국형 전차

K-2 흑표는 버슬형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해 탄약도 자동으로 장전된다. 따라서 K-1 전차에는 반드시 4명이 탑승해야 했지만, K-2 흑표는 3명의 인원 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100억 원 상당의 경쟁 전차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대당 78억 원이라는 가격 덕분에 K-2 흑표는 양산되기 전부터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아 왔다. 그러다 결국 2007년 6월, 방위사업청은 터키의 차기 전차 개발을 위해 K-2 흑표의 기술을 수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K-1 계열 전차가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라이선스 문제로 제3국 수출이 금지되었던 이력을 되짚어보면, K-2 흑표는 90% 이상의 구성품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수출에 큰 제약이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까지 알아봤어?

K-2 흑표의 대당 가격은 78억 원으로, 100억 원을 호가하는 선진국의 차기 전차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지녔다.

K-2 흑표 1대 값 = 모델 133년 6개월 이용권
= 귀 청소 서비스 17년 10개월





회색 니트 주크
브라 칼빈클라인 언더웨어




Morning in Heaven
TAHITI 신지수

일요일 아침 단잠을 깨우던 <디즈니 만화 동산>보다 순수하고 밝은 소녀
신지수와와 달콤한 데이트, 아, 푸른 사과보다 상큼한 소녀여!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 UP 이현정
ASSISTANTS 아진영, 조홍재 DESIGN 서윤정

COOPERATIONS 탑걸(02-546-7764) 게스 언더웨어(02-514-0693) 캠티클라인 언더웨어(02-6911-0714)
소다우먼(02-3475-1134) 도니체티(02-546-7764) 주크(02-3479-1887) 사빌(02-3485-6000)

삼촌 미소를
짓고 싶어?



강원도 춘천 소녀의 첫 화보 촬영을 축하한다. 촬영장에 도착할 때부터 긴장한 티가 팍팍 나던걸?

지금까지는 멤버들과 촬영을 같이 해왔는데, 이렇게 혼자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다행히 MAXIM 스태프 모두 매우 친절하고 재밌어서 웃으면서 촬영했다.

촬영장에 교복을 입고 왔다. 여기 올 때 학교에 뭐라고 하고 왔나? 우린 수업을 빼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데?

담임선생님께 “촬영 있습니다!” 얘기하고 나왔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미안하다.

요즘 연예인 인기도 성적순이더라. 공부는 끝질 하는가?

(웃음) 외국어를 제일 잘한다. 모의고사를 보면 고2 때까지는 1등급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랑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 성적은... 노코멘트하겠다.

배치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안 보이는 건 아니겠지?

이... 인(in) 서울? 좋은 대학이 우선이기보다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연극영화학과에 가고 싶다.

타히티를 검색하면 ‘타히티 보라보라섬’, ‘신혼여행지 추천’이 먼저 뜬다. 이렇게 예쁜 걸그룹이 신혼여행지에 밀리다니 자존심 상하지 않나?

우리고 처음에 타히티를 찾기 위해 한참 검색하곤 했다. 지금은 뉴스, 블로그 기사들이 점점 업데이트 되는 중이다. 아마 올해 안에는 인터넷이 타히티 소식으로 도배되지 않을까?

오늘 촬영이 크게 한뭉치겠는걸?

이런 큰 촬영은 처음이라 오늘 아침까지 아빠, 엄마, 오빠, 온 가족이 걱정을 많이 했다. MAXIM에서 신경 써준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좀 더 노출해도 괜찮았는데 아쉽기도 하다.(웃음)

데뷔과정을 SBS MTV <Ta-Dah, It's TAHITI>에서 고스란히 보여줬다. 얼마 전 방송에서 무모한 다리 찢기를 시도해 ‘찌벌녀’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다소 민망하지 않은가?

민망이고 뭐고, 그때 배가 너무 고팠다. 간식이 걸려 있었거든. 허벅지 찢줄이 터져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다.

<Ta-Dah, It's TAHITI>가 세계 8개국에 방송된다. 한류 스타가 될지도 모르는데, 생각해둔 공황패션이 있나?

그래서 요즘 선글라스를 알아보고 있다. 여행 가방도 색깔별로 보고 있고, 고소영 선배님은 청바지에 티만 입어도 괜찮던데, 난 많이 부족하니 포인트 아이템이 필요하다.



블라우스 탑컬
슬림 게스 언더웨어
브라 사빌
구두 소다우런

거리에서 “지수야!” 부르면 세 명은 쳐다 볼만큼 흔한 이름이다. 예명을 써볼 생각은 없나?

나도 그러고 싶다. 한류 시대에 발맞춰 영어 이름도 생각했다. 리비(LIBBY)!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엘리자베스의 애칭이기도 하다. 하지만 철학관에서 생년월일 따져가며 신중하게 지은 이름인데 다 ‘신지수’로 꼭 가야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쓰기로 했다.

이제 곧 스무 살이 된다. 어른이 된다면 무엇이 하고 싶은가?

친구들이랑 치킨에 맥주 한잔 마시는 게 소원이다. 기회가 된다면 클럽도 가보고 싶다. 요즘 미성년자는 10시 이후에는 모든 게 통제된다. 노래방, PC방, 사우나까지 갈 수 없다. 젠텁!

인터넷상에서 ‘제2의 한가인’이라고 불린다. 동의하는가?

이사님이 농담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사화됐다.(웃

음) 회사에서 나를 악플에 시달리게 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여럿이 숙소 생활을 하면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다. 소속사가 못살게 굴진 않나? MAXIM에 고자질해도 좋다.

걸그룹이다 보니 외모 관리를 위해 먹는 것에 대한 제재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잔머리 굴러가며 먹기도 하는데, 이걸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다. 밤에 몰래 전화해서 숙소로 피자과 피자를 시켜먹은 적이 있다. 아, 지금은 아니고 정말 예전 이야기다.

열아홉 살 신지수에게 MAXIM이란 어떤 집지인가?

알 없는 선글라스, 그동안 MAXIM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봐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촬영하고 보니 그런 게 없어졌다는 의미다.(웃음)

크... 꿈보다 해몽이 기가막히는구만!



impulse

블랙 원피스 탑걸
브라 샤벌
구두 도니체티

“
MAXIM은
알 없는 선글라스다
”



신지수

생년월일: 1994년 2월 28일

키: 166cm, 45kg

소속 그룹: 타히티(TAHITI)

데뷔곡: Tonight

콤플렉스

키에 비해 다리가 짧은 요룡이 같은 체형

이상형

승승헌, 송중기같이 곱상한 남자

섹시vs청순

51%는 청순하고 49%는 섹시한 이미지의 지수가 되고 싶다.

타히티와 친구가 되자!

http://twitter.com/DS_Tahiti

(타히티 공식 트위터)



MAXIM 에디터의
귀청소방 체험기

귀를 기울이면

귀는 인체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에디터가 경험한 귀청소방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었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귀 [ear]

소리를 분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청각 및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시원한 귀마사지
샴푸레스애소

이쪽 분야는
우리가 짱이랑!



바다를 건너서

색다른 성(性)을 물색하는 수컷의 대뇌피질 운동은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최적화되어 새로운 장르(?)의 방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성인물에 관해선 'made in 섬나라'를 최고로 치는 이쪽 바닥에서 일본 문물을 적극 수렴한 덕분이다. '귀청소방'은 한때 일본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휴게 시스템으로, 일부 두뇌 회전이 빠른 사업가들이 이제는 한물간 전화방, 성인 PC방을 이것으로 업종 변경하고 있다고 한다. 사전 조사를 위해 수많은 남초 사이트를 이 잡듯 들쑤셨지만, 아직 서울에는 이렇다 할 명소가 생기지 않은 듯했다. 귀청소방 명소는 일본과 가까운 부산, 대구부터 시작해 청주, 대전 지역이 유명하다. 마치 봄이 오면 따뜻한 남쪽 지방부터 개나리꽃이 피어올라 오듯 귀청소방 꽃씨는 바람을 타고 서울로 흩날려 오고 있나 보다.

고속도로 로맨스

2012년 7월 9일 땅거미가 질 무렵, 에디터는 귀청소방을 체험하기 위해 차에 몸을 실었다.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선진 문물을 남들보다 빨리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려어답터가 된 기분이었다. 들뜬 마음에 'hello venus'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왔다. 퇴근길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경인고속도로 산월IC가 에디터의 혼삿길처럼 꼭 막혔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긍정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았다. 물어물어 힘들게 찾았던 곳은 인천 부평. 최신식 귀청소방이 개업했다는 소문이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홍대까지 들렀던데다. 퇴근이 임박한 시각, 지친 직장인들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갖가지 전단지가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 멀리 찾아갈 것도 없이 귀청소방 전단지만 눈에 띄었다. 주저할 것 없이 전단지를 주워들었다. 유카타를 입은 미소녀가 수줍게 인사하는 듯 했다. '제대로 찾아왔구나!' 에디터는 벌써부터 달팽이관이 부르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여기도 나중에
가 봐야지.



미리 전화해서
몇 시쯤 방문할
것인지 조율하자.
전화하는 순간 당신
전화번호는 VIP
고객으로 등록된다.



예약하셨나요?

인간관계에서 약속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리따운 여성분을 만나는 고귀한 자리니만큼 전화로 신사답게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전 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줍게 다이얼을 눌렀다.

"귀청소방 예약하려고 합니다."

"예, 사장님. 지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정말 예쁜 아가씨가 귀를 파주나요?"

"물론이죠. 지금은 예약이 많이 없으니 바로 오세요!"

아릇한 분위기의 노란 간판이 우심실 혈액 방출량을 극대화했다. 멀리지만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유카타 귀청소'라는 기분 좋은 배너가 에디터를 맞이했다. 입구를 검은색 스트리로 곱게 발라 밖에서는 안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 출입구는 닫혀 있었고, "010-XXXX-XXX 예약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와 "초인종을 누르세요"라는 귀여운 문구가 적힌 핑크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침이 꼴깍 넘어갔다.

얼핏 보면 미용실로
착각할 수 있다.



귀 헤어샬롱에 오시면 기분이 즐거워 집니다.
날씬하고 상큼한 유카타가 제공하는 색다른 서비스

"어아구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난데없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웬 은퇴한 조폭 아저씨 같은 주인이 문을 열고 인자한 미소로 에디터를 반겨주었다. 비타민 음료를 꺼내 주며 메뉴(?)를 보고 적당한 걸 고르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최고급 서비스는 원래 8만 원이었으나,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해서 가격을 인하했다고 한다. 교묘하게 8자를 6으로 바꿨다. 정말 병신 같기 그지없었다. 2만 원짜리 기본 서비스는 뭣도 없이 정말 귀만 파준다고 했다. 그냥 귀만 팔 거면 집에서 샤워 끝나고 내가 면봉으로 후비는 게 훨씬 시원한데 뭐하러 인천까지 넘어왔겠나? 뭔가 색다른 과감한 서비스가 필요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거금 6장을 투자하기에는 돈이 아까웠다.

기본 귀헤어 (30분) 25,000원
귀마사지+머리마사지+귀청소

중급 귀헤어 (40분) 40,000원
귀마사지+머리마사지+얼굴마사지+귀청소

고급 귀헤어 ♥ 60,000원
귀마사지+머리마사지+얼굴마사지+피로마사지+귀청소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가격 인하!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탈리아풍 인테리어로 안락함을 더했다.

티슈는 필수

"4...4로 하겠습니다."

주인은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안내했다. 뒤에서 보니 어깨 추성훈만 했다. 아... 사진 찍다가 잘못 걸리면 뒷산에 흔적도 없이 묻힐 것 같았다. 주인은 에디터를 제일 구석진 방으로 안내했다.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인테리어가 꽤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문을 닫으니 3평(9.917m²) 남짓한 방에 안락한 의자와 포근한 이불이 곱게 접혀 있었다. 곧 아가씨가 들어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에디터의 눈에 보이는 주인장의 모습.



근육



어떤 달빛이 이보다 감미로울 수 있을까?

그녀의 무릎에 누워

똑똑, 에디터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처자가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바구니 안에는 스팀워치, 마스크팩, 귀이개, 면봉, 수건 등이 들어 있다. 바구니를 살포시 내려놓은 처자가 무릎에 수건을 깔더니 자기 무릎에 누우라고 말했다. 수건을 깔고? 맨다리가 아니란 말인가? 빈정이 상했다.

무릎에 눕자마자 그녀는 다짜고짜 에디터의 귀를 주물럭거렸다. 5분이 지났다.

"계속 귀만 이렇게 조물럭 거리다 끝나나요?"

"귀도 파드리고요. 두피마사지와 얼굴 팩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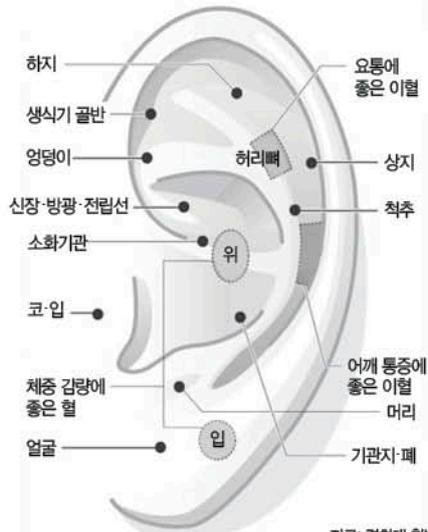
"그게 끝?"

"네 끝이죠. 그럼 뭐 다른 거 생각하셨나 봐요. 호호"

"그럼 다른 걸 생각했지. 지금 상황에 웃음이 나오나"

마사지를 받는 동안 여대생의 몸을 터치할 수 있다. 어디까지 되는지는 안 물어봤으나 그것은 우리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다(당시 에디터의 파이팅이 넘치지 않았던 것에 후회의 눈물이...).

여기서 잠깐 귀 혈자리, 여기를 눌러주세요.



자료: 경희대 한방병원

유카타를 입은 처자와의 인터뷰

몇 살인가?

스물네 살이다.

대학도 졸업했겠다. 번듯한 직장에 다녀야 할 사람이 여기서 다른 사람 귀나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취업 준비 중이다. 이 일은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다.

돈이 필요하다면 이것보다는 다른 일이 더 많이 벌지 않나? 룸 같은 곳을 출입하라는 얘기인가? 이 안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귀 파주는 일이 윤락행위보다 훨씬 건전하다.

진상 손님이 많지는 않나?

일단 나이 드신 분이 많다. 게다가 대부분 술을 한잔 걸치고 오니까 진상이 될 수밖에 없지. 몸을 함부로 더듬는 것은 물론, 자기가 자위를 할 테니 앞에서 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대체 무릎에 수건은 왜 깔고 작업하는 것인가? 이 수건 한 장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던 말이다. 우리만의 작업 규칙이다. 맨다리를 그대로 노출하면 검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알잖나? 당신도 남자니.



발광 귀이개 같은 첨단 시스템 도입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밤꽃 엔딩

마사지가 끝나고 그녀는 불빛이 나오는 희한한 귀이개로 능수능란하게 귀를 해집었다(사실 할머니가 파주는 것만큼 시원하지는 않다). 자칫하다가는 고막이 찡호지처럼 찢길지도 모르니 선부른 행동은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을 뿐이었다. 귀의 이물질이 모두 제거되면 그녀가 500원짜리 팩을 얼굴에 붙여준다. 남아 있는 시간이 500원보다 소중한 줄 진작에 알았다면 그렇게 잠자코 팩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

팩을 하는 동안 그녀는 자를 시간을 가질 것을 권했다. 뜬금없이 웬 자위냐고 했더니 하는 사람이 꽤 많단다. 그럼 그동안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물끄러미 지켜본다고 했다. 이게 웬 병신 인증 짓인가. 절대 안 한다고 잡아땀다. 그녀도 자기는 아쉬울 것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했다.

그녀와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 그녀 옆에 놓인 작은 스톱워치가 눈에 띄었다. 시계를 보니 15분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간단한 조작으로 타이머를 멈출 수 있는 단순한 녀석이었다. 노련한 손놀림으로 버튼을 눌러 시간을 정지시켰다. 에디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남자

유유히 기지개를 켜며 나오는 에디터를 주인이 출입문까지 친히 배웅해주었다.

"사장님,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다음에도 이용 부탁드립니다. 해해."

가게를 나선 뒤, 많은 사진을 남기지 못한 것이 내심 신경 쓰였다. 다른 건 몰라도 출입문에 붙어 있는 귀청소방 간판과 유카타 입은 소녀가 그려진 배너는 꼭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가방 안에 숨겨둔 카메라를 꺼내 출입문을 향해 렌즈를 겨눴다. 그런데 갑자기 출입문이 왈칵 열리며 얼굴이 상기된 추성훈이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당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차! CCTV...'

(이 사람 참! 야키는 사장님이라더니...) ☹️

아싸! 그래도 한 장 건졌다.





GET TATTOOED
& EAT MORE
PUSSY

올 여름, 록페스티벌에서 생긴 일

'나는 음악이 좋아요, 단지 좋아하는 밴드를 보러 갈 뿐입니다, 확실히
충만한 나에게 도대체 헌팅이 웬말인가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 음악에
대한 모독입니다...' 근데 미니스커트는 왜 입고 왔어?

BY 김희성 DESIGN 전은경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낯선 곳에서의 만남을 꿈꾼다. 로맨틱한 만남이든 짜릿한 하룻밤이든, 어찌됐든 낯선 장소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한다.

여자들의 미니홈피 다이어리나 카톡 대화명에 등장하는 '세렌디피티'란 단어. 아마 당신도 카톡 친구나 일촌의 미니홈피에서 본 적이 있을 거다. '세렌디피티'가 여자들의 대화명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단어는 원래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행운이나 중대한 발견을 뜻하는데, 2001년 <세렌디피티>라는 영화가 나오면서부터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우연을 통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어디까지나 여자들의 사전에서는 말이다. 암컷을 노리는 수컷들의 마음이야 청담동 클럽이든 영등포 나이트든 지산락페든 다 비슷할 테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평소엔 쉽고 가벼운 만남 정도로 치부했던 원나잇도 페스

티벌에선 세렌디피티로 둔갑한다는 거다. 그러니 이번 여름이 절호의 기회라는 거.

그리고 이걸 에디터가 늘 강조하는 건데 여자는 분위기에 진짜로 약한 동물이다. 온갖 술수를 다 써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 여자도 분위기에 취하면 먼저 당신의 어깨에 기댈 거다. 분위기란 여자들의 이성과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던 온갖 장벽들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최음제 같은 거고 여름철 열리는 온갖 페스티벌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이미 최음제나 다름없다. 그리고 매번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걸 깨달으면서도 '혹시나 이번에는 나에게도 세렌디피티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봐. 호영호영). 그러니 올 여름 한 철 동안 열리는 페스티벌 일정을 모두 챙기고 다음 페이지를 보자.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록페스티벌 암컷 공략 가이드



1. 친구따라 강남형을 찾아라

야외 페스티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가 월드DJ페스티벌 공짜 티켓이 생겼다고 같이 가자고 했다. 사실 난 공연보다 이곳 분위기를 자유롭게 만끽하며 놀고 싶은데 친구는 좋아하는 뮤지션을 꼭 봐야한다고 일찌감치 앞자리를 사수하고 불박이가 되어 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 내 심정을 친구한테 차마 말도 못하겠고... 물에 젖은 사슴 같은 눈빛을 여기 저기 쏘아대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했다.(올레!) 그런데 친구 혼자 두고 가면 빠질게 뻔할 텐데... 어떡하지...

EDITOR SAYS 좋아하는 밴드를 보기 위해 혹은 음악이 너무 좋아 페스티벌을 찾은 그녀들. 아무리 음악이 좋다고 해도 가평, 인천 같은 애매하고 낯선 장소에 선뜻 여자 혼자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정보를 수집한 한 명이 같이 갈 친구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페스티벌과는 거리가 먼, 친구따라 강남 온 유형이 꼭 생기기 마련이다. 좋아하는 밴드도 없고 특정 장르의 음악을 그닥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친구가 가자고 해서 등의 이유로 페스티벌을 찾는다. 인원은 보통 세 명이 가장 많다. 공연에 심취해 있는 친구와 달리 공연 말고 여유롭

게 잔디밭에서 맥주 한 잔 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녀를 찾아라.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면 주저말고 다가가서 말을 건네라. "우주라 이크썸핑투드링크?" 하지만 그녀에게만 말을 건넨다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낯선 곳에서 친구를 혼자 두고 갔다가는 친구가 백프로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를 한 명 데리고 가서 밴드 공연에 심취한 그녀의 친구를 맡기자. 서로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열심히 공연 보라고 하고 당신은 이만 총총, 그녀와 유유히 맥주 한 잔 하는 거다. 이런 게 바로 핑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2. 하이힐에 짧치녀를 주시하라.

정줄 놓고 음악에 온몸을 맡겨야 할 뮤직 페스티벌에 착 달라붙는 미니스커트는 왜 입고 오는 것이며, 10cm 하이힐은 또 왜 신고 오는 것이며 그래놓고선 금방 다리가 아프다며 주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나? 걸으려는 관찮은 척 웃고 있지만 사실 하이힐을 벗어 집어 던지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우리는 철인이 아니다. 운동화에 편한 바지를 입고 놀아도 피곤하던 말이다!

EDITOR SAYS 그런데 도무지 누가 친구따라 강남 온 유형인지 모르겠다고? 페스티벌에 오긴 했지만 친구따라 온 그녀는 그냥 가볍게 놀러가는 마인드로 왔을 거다. 그래서 별 고민 안하고 하이힐이나 사랄라한 스커트, 미니스커트를 꺼내 입는다. 그동안 당신이 록페에서 수없이 보면서 고개를 가우뚱거렸던 하이힐에 짧치녀가 바로 그런 유형이라는 거다. 앞에서 말했잖아. 혹시나 이런 옷차림의 걸들을 발견했다면 주시하라고.

3. 찍사가 돼라

페스티벌에선 누군가 나를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니면서 도촬해 줬으면 좋겠다. 페스티벌이니까 신나게 놀고 있는 나의 내추럴하고 예쁜 모습을 누군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여자들끼리는 자기가 안 나오는 사진은 절대 안 찍잖아?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는데, 올릴 사진도 없고...

EDITOR SAYS 자, 당신이 아까 스캔해 놓은 우리 근처에서 알짱거리라. 일단 공연장에 막 도착한 그녀들은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을 거다. 마냥 즐겁고 그곳의 분위기가 신기하기만 할 때다. 그때 말을 걸어봤자 당신은 아웃 오브 안중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그녀들이 셀카를 찍고 디카를 꺼내 서로를 찍어주며 "예쁘다"를 연발한 다음 단체 인증샷을 찍을 때까지.

자, 이제 작전을 개시할 때가 왔다. 그녀들 중 가장 용기 있는 자가 주위를 둘러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할거다. 당신은 그 때

를 대비해 근처에서 선한 미소를 짓고 있으란 거다. 주위를 휩 스쳐가는 사람보다는 이미 몇 번 눈을 마주쳤던 사람에게 말을 걸기 더 편할테니 미리 눈도장을 찍어놓고 있으란 거다. 그녀들끼리의 단체샷을 찍어주고 나서 그대로 그곳을 떠나면 당신은 호구만 된 거다. 조금 더 알짱거리다가 그녀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은근 슬쩍 옆이나 뒤에 꺼서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해봐라. 흥내나 가로수길에서 이랬다면 욕 먹고도 남았을 행동이 지금은 그저 귀엽고 자유분방해 보일 거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곳은 자유와 낭만과 젊음의 기운이 감도는 페스티벌 현장이니까. 그녀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싶으면 이번엔 그녀들을 도촬해 주자. 분명 사진을 보내달라고 조를 거다.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번호 교환 성공! 내친김에 폐북 친구도 맺어 그녀들의 이름에 태그를 달아보자. 자, 이제 그녀와 당신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제 남은 건 실컷 공연을 즐기고 난 뒤 다시 조인트 하는 것뿐이겠지?

BAD CHOICE 플라로이드. 당장 고사기엔 좋지만 필름 값만 날린다. 호구로 전략하기 딱 좋은 아이템.

4. 예쁜 애 옆에 있는 애에게 말을 걸어라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항상 친구들이 제지한다. 그럴 때마다 '역시 내 친구들뿐이야'라며 우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이전 아니다! 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말을 걸면 같이 놀고 싶단 말야!

EDITOR SAYS 보통 수컷들이 가장 말을 거는 대상은 친구 중 제일 예쁜 애다. 우리 중에 에이스가 누구라는 것쯤은 여자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개한테만 남자들이 말을 걸면 짜증이 난다. 그리고 에이스는 주변 여자 친구들의 눈치를 보기 마련이다. 어찌됐든 여자들은 보통 자신의 친구에게 말을 걸어오는 남자들에게 친구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일단 "안 돼!"를 외친다. 자, 이제 당신이 말을 건네야 할 대상은 당신의 마음에 든 그녀가 아니다. 그녀 옆에 있는 친구다. 일단 그녀를 포섭하면 나머지는 술 술 풀릴 거다.

5. 공연 매너를 발휘하라

페스티벌이 좋은 이유는 이 곳에서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어서다. 나랑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이 중 한 명과는 뽀뽀가 생기지 않을까?

EDITOR SAYS "두 명에서 왔어요? 우리도 두 명인데 같이 술이나 한 잔 할래요?"같은 멘트는 스무 살 때 대천 해수욕장에서 써먹은 걸로 끝내라. TPO에 맞는 패션센스도 중요하지만 TPO에 맞는 멘트는 더 중요하다. 당신의 옆이나 뒤에 선 그녀가 마음에 든다면 "저 때문에 안 보이실 테니 앞으로 오세요"같은 멘트를 날려라. 그녀에게 당신은 취미도 같고 매너도 좋은 사람으로 각인될 거다.

6. 담요를 준비하라

아까부터 콧속이 잘 맞았던 그가 자신의 차로 가지고 제인했다. 피곤하기도 하고 아침까지 마땅히 할 게 없었던 나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승낙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우리는 한껏 끌어올렸던 욕정을 마구 분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위로 사람이 훤히 지나다니는 게 계속 신경 쓰여 더 이상 뽀뽀 할 수가 없

었다. 집중이 안됐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 괜찮다며 그는 하던 일을 계속 하려 했지만, 아무리 새까맣게 섀팅을 해놓은 차라고 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냥 차에서 내렸다.

EDITOR SAYS 이제 낮동안 뿌려놓은 씨앗을 거둬야 한다. 체력이 바닥나 지쳐있는 그녀에게 아늑하고 편안하게 쉴 곳을 제안하라. 그곳이 차든 텐트든 모텔이든 어디든 상관없다. 일단 너무 피곤하고 즐려 판단력이 흐려진 그녀는 "그래, 잠깐 앉아있다가 가자"는 생각에 승낙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당신이 제안한 그 장소가 차 안이라면 준비물이 하나 필요하다. 바로 담요다. 술을 많이 마셨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차창 너머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자. 담요를 차 안에 미리 준비해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문을 가리거나 그녀의 몸을 덮어주자. 담요 하나 꺼냈을 뿐인데 그녀의 마음은 한결 안정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던 걸 계속 하면 된다.



메인 공연이 끝나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사운드에 몸을 맡기며 페스티벌의 여운을 즐기는 새해벽경. 이제 모두가 술을 지킬 타임이다. 이미 기력을 소진할 대로 소진해버린 에디터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어디든 들어가 쉬고 싶다!"

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대부분의 페스티벌에는 머리 수소를 예약해 놓지 않은 이상 절만한 데가 없으니까. 각 페스티벌마다 근처 숙박 업소 리스트를 친절히 홈페이지에 알려주지만 잘 모르는 동네 모텔이나 여관에서 자는 중 깨워서 그냥 공동편만 예약하고 왔다.

출발 전엔터 페스티벌에서 만난 남자와의 하루밤을 계획하거나 기대한 건 전혀 아니다. 단지 숙박비도 아끼고, 밤새 놀다가 아침 새벽 기차를 타고 오는 생각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내 체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단 걸 알게. 저절로 체력이 술 한잔을 보이기 시작했다. 밤새 놀고있는 게 좋으니 몰려온다. "아, 피곤해, 다리 아파, 앉고 싶다, 쉬고 싶다..."

- 겨울 열 에디터의 일기 중 -

7. 그녀의 일행과 멀리 떨어져라

그가 자꾸 나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 나도 싫지는 않았지만 거부했다. 왜냐하면 멀리 않은 곳에서 친구들이 뿔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EDITOR SAYS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것도 적잖이 신경 쓰이지만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건 같이 왔던 친구 일행에게 들키는 거다. 남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자화 있었던 일을 굳이 날날이 오픈하지는 않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낯선 남자와 친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도 절대 듣고 싶지 않다. 당신과 단둘이 뽀뽀했던 친구에게 돌아가서는 "그냥 얘기하다 왔어"가 되는 거다.

8. 물티슈를 사라

포옹, 키스, 애무 등 섹스 전 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했지만 도무지 삽입까지는 할 수가 없었다. 그와 잔 후의 일이 너무 걱정됐기 때문이다. 모텔이라면 뭐 고민할 것도 없는데 여긴 씻을 곳도 없고... 이따 친구들 만나면 대번 눈치챌 거 아냐? 아쉽... 나도 한창 달아올라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쉬워 죽겠음!

EDITOR SAYS 여자들은 당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로 섹스를 거부할 때가 많다. 페스티벌에서는 특히 더. 장소가 장소다보니 텐트, 차 안, 심지어는 어둑어둑한 저조아래 풀밭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자들도 한번쯤은 아웃도어 섹스에 대한 상상을 한다. 보나마나 섹스라고 짜릿한 경험이 될 게 틀림없으니까. 하지만 할 거 다해 놓고 삽입만은 마다하는 이유는... 씻을 데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나 방금 섹스했어요"라며 광고하고 다닐 일 있나? 비싸고 좋은 거다 필요 없다. 페스티벌에선 이거 하나면 킬킬이다. 제대로 샤워를 못할 거라면 급한대로 물티슈가 최고다. 그깟 물티슈에 여자들이 얼마나 반응할지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당신이 우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식당을 가셔도 물티슈, 번진 화장을 지울 때도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 여자들의 물티슈 의존률은 상상 이상으로 높거든. 현재 당신에게 물티슈가 있다는 걸 그녀가 알게 하면 게임 끝. 그녀는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당신의 리드에 순순히 따를 거다. 아, 간지럼 하나 더, 모기 쫓는 스프레이를 그녀의 허벅지에 칩 칩 뿌려주자. 역시 때와 장소가 중요하디나간?

British Hot!

Leilani Dowding

런던 올림픽을 기념해 영국 미녀를 꼬드겨봤다. 핫한 그녀, 레일라니 다우딩!

PHOTOGRAPH DEJA JORDAN & JAMES MARCIARIELLO

MAKEUP KATARINA VAN DERHAM BOOKING VMG/Image GROUP P.R DESIGN 신속희

GO TO
MAXIM
iPAD
미공개 컷







이름이 참 독특하다. 전형적인 영국식 이름은 아닌 것 같다.

하와이식 이름이다. 읽기 좀 어렵지? 엄마가 필리핀 분이긴 하지만,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사실 하와이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한다. 하와이에 처음 간 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하와이의 낭만을 만끽하기는커녕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행사에 교육에... 어휴, 비뻐서 이것저것 경험해볼 겨를도 없었다. 한국 MAXIM 독자들에게 로맨틱한 하와이를 소개하고 싶지만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나? 비밀로 하고 싶은 일 말아.

난 단순한 사람이라 비밀 같은 건 없다.(웃음) 정크푸드처럼 몸에 나쁜 음식을 특히 좋아하긴 한다.

영국인들은 엄청난 주당이라고 들었다. 당신도? 술에 엄청 약하다. 세 잔 마시면 바로 취한다.

사람들은 왜 영국식 억양을 sexy하다고 느낄까?

글쎄. 아마도 영국 사람들이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정통 억양을 써서 그런 게 아닐까? 사실 난 프랑스어가 가장 sexy하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지금은 영국 억양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지금은 LA에 살고 있으니 점점 내 억양을 잃어가는 것 같다.

‘서울’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

올림픽이 생각난다. 아주 어렸을 때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걸 기억하고 있다. 서울은 내가 기억하는 몇 군데 안 되는 올림픽 개최국 중 하나다. 하지만 엄청 오래전,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88 서울 올림픽이 내 머릿속에 강하게 박힌 것 같다. 아, 불고기도 좋아했대! 채식주의자가 되기 전에는 LA 한인타운에 불고기를 먹으러 가곤 했다.

군대 위문 공연차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고 들었다. 어디 어디 가봤나?

보스니아, 코소보, 키프로스 그리고 이라크에 다녀왔다. 정말 즐거웠다!

당신의 방문에 광분한 군인들이 짓궂게 굴지는 않던가? 세계 꺼안거나 울거나, 뭐 이런 짓거리들 말이다. 사실 알고 보면 군인들은 엄청나게 수줍음을 많이 탄다. 생각보다 예의도 바르다. 예전에 나를 보다가 드처럼 경호하던 군인 한 명이 나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일이 기억나는군!

여름휴가 계획은 잡았나? 어디로 가면 당신과 같은 곳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지 알려달라.

하하. 나는 주로 LA의 헬스클럽에 있다. 운동을 안 할 땐 강아지 세 마리를 데리고 가까운 곳을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 올해는 사실 휴가 계획이 없다. 평소 가족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만약 멀리 간다면 영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다.

이상형은?

짙은 눈에 어두운 머리색을 가진 몸 좋은 남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한국에 오면 잔뜩 사줄 테다.

영국식 초콜릿, 프랑스 빵 그리고 패스트리! 🍪



Leilani Dowding

태어난 곳
영국 본머스
키와 몸무게
168cm, 51kg

경력

1998년 미스 영국 1위,
최초의 아시아계 영국 대표로
미스 유니버스 본선 진출

홈페이지

www.leilunacollection.com

트위터

@leilandowding





“
군 위문 방문 때 날 경호하던 군인이
나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

SUMMER WAVE FESTIVAL

일기예보는 정확했다. 주말 내내 비가 왔다. 그래도 갔다. 아니, 그래서 갔다. 페스티벌은 역시 빗물에 흠뻑 적시면서 놀아야 제맛이니까.

BY 김희성
 PHOTOGRAPHS HOSPITAL PHOTOGRAPH DESIGN 천은경
 COOPERATION PMC 네트워크, VU ENT(02-6002-7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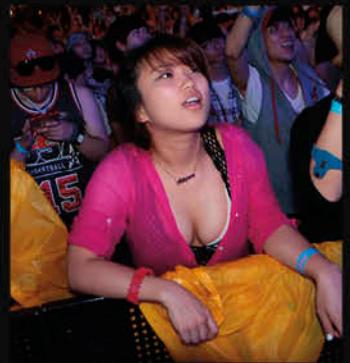
국내 최초의 워터파크 페스티벌인 '썸머 웨이브 페스티벌'이 캐리비안베이에서 열린다는 이야기가 마감을 코앞에 둔 에디터의 귀에 들어왔다. 이미 지난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MAXIM PARTY에서 야외 풀 파티의 묘미를 알아버린 에디터는 페스티벌이 열리는 주말만 학수고대했다.

비에 젖은
 비키니녀
 감상하기





문제는 날짜 선정이었다. 7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열린 썸머 웨이브 페스티벌의 라인업이 달랐기 때문이다. 14일에 엠플로, 루다크리스, 타이거 JK, 윤미래를 보느냐, 15일에 타이오 크루즈, 부가킹즈, 형돈이와 대준이를 보느냐의 문제였다. 루다크리스의 명품 힙합과 고딩 때 주구장창 들던 엠플로의 디제잉을 차마 놓칠 수 없었던 에디터는 14일 토요일에 캐리비안베이행 셔틀버스를 탔다.



페스티벌은 비가 와야 제대로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건지 도착했을 땐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기 번호를 받고 줄을 서 있자니 슬슬 허기가 밀려왔지만 타이거 JK와 윤미래가 오프닝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버닝하기 시작했다. 다음 무대에 등장한 루다크리스도 그날따라 한껏 더 필이 충만했는지 알 수 없는 말들을 마구 지껄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절반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그게 뭔 상관이란. 뮤지션도 페스티벌 입장객들도 한껏 달아올랐는데, 쏟아지는 빗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흔들어대는 비키니녀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비에 젖은 머리칼, 출렁이는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는 저 빗줄기. 아, 살아 있네! 살아 있어! 그날 캐리비안 베이의 물에 약이라도 탔던 걸까? 

오빠,
혹시 청국장 먹었어?

더샘 플리즈 비 케어플
데오도란트 스프레이

제모를 하지 않으면 털이 땀을 만나 미
역 줄기가 되는 털보라면 울여름엔 차라
리 제모를 감행하자. 캐머마일 성분과 위
치하젤 추출물이 든 이 데오도란트 스프
레이는 제모로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킨
다. 게다가 땀 발생도 최소화한다니 일석
이조 아니겠어?

100mL 가격 6,000원

이게 무슨
내시야?

여름만 되면 온몸으로
대성통곡하는 땀수성 넘치는
수컷을 위해!

BY 박향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 UP 이현정
MODEL Danning.Fu
DESIGN 전은경
ASSISTANTS 이진영, 조용재, 손안나

**이니스프리
내추럴 데오도란트 스프레이 그린티**

겨드랑이에서 풍기는 비린 땀 냄새는 일
가친척, 불일친구까지 당신에게 등을 돌리
게 만든다. ACH(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
이트) 성분과 다공성 파우더가 듬뿍 들어
있어 땀 냄새를 억제하고 아기 엉덩이같이
뽀송뽀송한 겨드랑이를 만들어준다.
150mL 가격 9,000원



해피바스 데오 미스트 라임

땀구멍을 억지로 막아서 땀을 억제하는 것
이 아니라 발생한 땀을 효과적으로 흡수하
는 제품. 라임이 피부 트러블에 무척 좋다
고 하니 여름만 되면 땀띠로 온몸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잎 같은 수컷이라면 꼭 하
나 구입하자.
150mL 가격 10,000원



멜비타 붉은 데오도란트 포 맨

일반적인 데오도란트에 꼭 들어가는 파라
벤, 알루미늄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모
조리 했다. 다른 제품에 비해 땀 억제 효과
는 조금 떨어지나 몸에는 좋다는 얘기가.
땀 정화 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코넛
성분을 가득 넣었다고 하니, 겨드랑이에 원
숭이가 꼬이더라도 놀라지 말 것.
50mL 가격 32,000원



**아리따움
데오 브레이크 풋 에티켓
스프레이**

발에 땀이 많아 여름만 되면 발로
창국장을 꿰어 먹는 구수한 수컷
을 위한 제품. 한번 뿌리면 복숭
아뼈까지 시원해지는 멘톨 성분
덕분에 발에서 나는 땀은 물론,
피로까지 싹 가시는 기본이다.
60mL 가격 6,000원



**프리메라 붉은 프레시 내추럴
데오브라이트**

바르는 순간 건조되어 두 번, 세
번 더 발랐는데, 원래 잘 밀착되
고 건조가 빠른 제품이란단. 뽀
죳을 하고 나서 바른 부위를 더
들어보니 타 제품과 다르게 액체
성분이 끈적이지 않았다. 오랜지
오일이 피부 톤을 정돈해주기도
하니 거무칙칙한 겨드랑이도 소
자에게 추천
150mL 가격 15,000원

그녀의 미니스커트 심리학

그동안 당신이 진짜 궁금했던 걸 물어봤다.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은영



김민주 (25세, 학생)
포인트 빨간색 갈맞춤
미니스커트를 입는 이유
자신 없는 허벅지 커버용
내 다리를 힐끔거리는 시선
적용해야지 어찌겠어...



박지희 (21세, 학생)
포인트 화사한 꽃무늬
내 다리를 힐끔거리는 시선
그러려니 한다.



김지혜 (21세, 학생)
포인트 무난한 검정 치마
내 다리를 힐끔거리는 시선
어쩔 수 없지 뭐.



BEST OF BEST

서은영 (26세, 회사원)
미니스커트를 입는 이유
긴 치마보다 짧은 치마가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한다.
내 다리를 힐끔거리는 시선
그런 시선 즐기려고 입는
거 아닌가?

그녀들이 알려주는
**여친 미니스커트
고르는 7가지 TIP**
어떻게 하면 사주고도
욕 먹는 걸 피할 수 있을까?

1. 여친이 오리 궁둥이라면
플레어스커트는 금물! -박지희
2. 튀고 화려한 치마가
선물하기 좋다. -서은영
3. 라인이 적나라하게 비치는
너무 얇은 옷감은 피하라! -김지혜

이소연 (23세, 학생)
 미니스커트를 입는 이유
 골반이 커서 바지가
 안 어울린다.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
 남자친구 반응
 자기랑 있을 때만 입으
 라더라.
 내 다리를 힐끔거리는
 시선
 아저씨는 NO,
 젊은이는 OK.



한신혜 (27세, 회사원)
 포인트
 오늘은 몸매가 포인트
 미니스커트를 입는 이유
 다리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
 남자친구 반응 미친 듯이
 짧은 건 안 된다던데?



정연경 (25세, 회사원)
 포인트 생일
 내 다리를 힐끔거리는 시선
 좋다.



신혜인 (22세, 학생)
 미니스커트를 입는 이유
 여름이니까!
 내 다리를 힐끔거리는 시선
 남자친구가 가려주니까
 괜찮다.



정소영 (22세, 학생)
 포인트 별무늬 시스루 블라우스
 미니스커트를 입는 이유
 몸매 걸점 거버용



4. 잘 고를 자신 없으면
 심플한 게 정답! -정연경

5. 여친이 몸매가 된다면, 라인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스커트를 사줘라. -신혜인

6. 여성스러운 여친에겐
 시폰 스커트를! -이소연

7. 아설피게 긴 것보다 짧아야
 다리가 더 길어 보인다. -정소영



RED, WHITE, AND COOL

올 여름, 식상한 검은색 선글라스에게 작별을 고하라. 그런 건 개나 소도 쓰니까

1. 레이벤 웨이퍼러 레이 프린츠

레이벤 고유 프레임, 그 안쪽에 새긴 환상적인 타이포그래피가 재미있다. 이 스타일 리시한 안경다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 봤던 기분도 좋아질 듯. \$160

2. 지미추 알렉스

런던 올림픽을 기념해 출시한 제품으로, 영국 국기 문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혹시 알아? 이걸 쓰고 있는 당신에게 영국 미녀가 말이라도 걸지. "저귀 훑썬, 영국 초와해호?" \$275

3.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프레임의 빨강, 파랑, 흰색의 혼합 조합을 우리 마크 형은 세련된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승화했다. 게다가 렌즈에 들어간 그라데이션 덕분에 파일럿 간지가 터진다. \$140

4. 카레라 챔피언

초경량 플라스틱 안경 '옵티'를 발명한 기록한 브랜드 '카레라'의 제품이다. 고성능 자외선 차단 렌즈가 클럽의 강렬한 조명 아래서도 당신의 눈을 완벽히 보호해 준다. \$120

5. 오클리 프로그스킨

서로 다른 시간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제품. 심플한 복고풍 프레임은 당신을 1980년대로 데려가지만, 이리듬으로 코팅한 일록달록한 렌즈는 (맨 인 블랙)에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미래지향적이다. 이번 기회에 당신의 스타일을 위한 타임머신 한 대 구매하시길! \$100

6. 페르슬 카프리 에디션

스티브 매린이가 환상했던 선글라스 프레임에 *광색 편광 렌즈를 더했다. 렌즈가 당신의 쿨한 눈빛을 가릴지도! \$360

*광색 편광 렌즈: 반사광과 굴절광을 차단해 눈부심을 감소시키고 가시거리를 높이는 특수 렌즈. 빛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특징이 있다.

STYLE NEWS

헬 다이버(Hell Diver) SB2C-2, 동글글라스로 매력 발산
 기존 시계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동글글라스를 채택한 헬 다이버 SB2C-2 모델을 소개한다.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시계판과 은은한 블루 코팅의 글라스가 세련된 멋을 풍긴다. 전체적으로 캐주얼하지만 섬세한 세련미를 갖춰 20~30대 젊은 직장인이 쓰기에 제격인 제품. 한 가지 시계로 여러 의상을 매치하고 싶다면 헬 다이버의 이번 모델을 놓치지 마자.

가격 158,000원
 문의 에이맨인터내셔널(031-506-3883)



한여름의 눈꽃, 루미녹스 Colormark 3057.WO Snow Patrol

더운 여름, 루미녹스에서 한겨울 눈송이를 담은 워치인 스노우 페트롤을 제안한다. 2012년 바젤에서 소개된 스노우 페트롤은 루미녹스의 베스트셀러 시리즈인 Colormark 라인의 최신 버전. 활동성과 실용성이 우수한 탄소 강화 폴리머 외부 케이스에 강화유리 섬유를 사용한 자판 케이스를 더해 익스트림 스포츠나 프로 구조 대원이 쓸 만큼의 강력한 견고성을 보장한다. 거기에 루미녹스 발광 테크놀로지인 스위스 멀티주얼 퀵츠 무브먼트로 내실을 더했다. 당신의 손목 위에 보는 것만으로 시원한 눈꽃송이를 올려보자.

가격 440,000원 문의 밀리시계 (02-757-9866, www.milimwatch.co.kr)



잉거솔(INGERSOLL) 레전드 II, 제임스 딘을 담다

미국 최초의 시계 제조업체인 잉거솔이 제임스 딘을 양각한 시계 레전드 II 모델을 출시한다. 잉거솔은 실제 제임스 딘, 마릴린 먼로 등의 할리우드 명사들이 착용한 워치 브랜드. 레전드 II는 고급스러운 화색빛의 문자판에 제임스 딘의 양각으로 된 반신상과 시그니처를 담아 제임스 딘을 위한 오마주를 강조했다. 다크 워싱된 가죽 스트랩을 사용해 빈티지 느낌을 풍긴다. 마초계의 원조인 제임스 딘이 살았던 1960년 할리우드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거노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



자스페로(ZASPERO), 뒤틀레도 예쁜 PERFETTO MG201-05
 정교한 매커니즘과 섬세한 디테일로 인기몰이 중인 자스페로에서 퍼페토(PERFETTO) 라인의 여름 워치 MG201-05를 출시했다. 시원한 금속 재질의 케이스와 스트랩을 채택하고 시계 뒤판을 투명하게 제작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칼리버 3540D.2 무브먼트가 그 안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 SWISS에서 제작한 무브먼트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1/10초 크로노그래프, 역회전 방지 베젤로 기술력까지 입증했다.

역시 뒷모습까지 아름다워야 미의 종결자라고 부를 수 있겠지?

가격 700,000원

문의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이태리 패션 브랜드, 나파피리(Napapijiri)로 당신도 패션왕!

나파피리는 아웃도어 감성과 캐주얼 감성이 공존하는 이태리 패션 브랜드이다. 자유로운 노마드족과 여행자를 콘셉트로 잡은 이 브랜드는 패션 감각이 있는 남성 사이에 독보적인 활약이 기대되는 유망 브랜드이다. 스타일과 활동성을 모두 갖춘 브랜드 나파피리는 오는 9월 한국에서 처음 만나볼 수 있다. 진정한 패션왕은 겨울 옷도 9월에 구매한다! 하반기 패션은 나파피리로 미리 짚어두는 거다?!
 문의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02-3153-3263)

세이코(SEIKO), ALBA의 Active Gents AU2052X 스포츠 워치
 SEIKO의 패션 시계 브랜드 ALBA에서 스포츠 워치 Active Gents AU2052X를 출시한다.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블랙 컬러의 심플하고 튼튼한 케이스에 로즈 골드 컬러를 배합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1/5초 단위 크로노그래프는 인스턴트 리셋 기능을 넣어 즉각적으로 타이머를 리셋할 수 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타이머 리셋 시간 때문에 운동의 흐름을 끊는 불편이 없다. 크로노그래프 버튼의 사이즈를 확대해 편의성을 높였다. ALBA의 스포츠 워치로 이제 불편 없이 기록 경신에 도전하자.

가격 390,000원 문의 삼정시계(02-511-3182, www.albawatch.co.kr)



MAXIM BUYER'S EDGE



아직도 우렁각시를 모르시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기도 바쁜 김대리. 지친 몸을 이끌고 청소하고 빨래하다 보면 주말도 다 가고, 여친도 없이 일을 저녁 개론 보며 쿡쿡거리는 모습이 씁쓸하다. 국내 최초 남성 직장인 포털 덤앤더머스가 김대리를 위해 우렁각시 서비스를 소개한다. 청소, 빨래는 기본, 와이셔츠 다려주고, 구두도 닦아준다! OMG! 먹고픈 반찬까지 만들어 준다! 대한민국 남성 직장인의 모든 것! 덤앤더머스에서 우렁각시를 만나보자!

문의 (주)덤앤더머스
(1899-2468, www.dummerce.com)



여름휴가의 필수품! 소유 스킨 남녀 청결제

소유 스킨에서 여름 휴가철 남녀의 위생을 위한 클렌저를 선보인다. 소릴린 클렌저는 여름철 땀으로 찌든 냄새나는 남성의 존슨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으며, 비포&에프터 버블 시크릿 클렌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유기농 천연 성분의 풍부한 거품이 분비를 세정과 불쾌한 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로맨틱한 휴가. 마지막 상황에서 냄새 때문에 좌절되는 불운은 겪지 말자.

가격 57,000원
문의 소유스킨(www.souskin.com)



루미노스, 바다를 살리기 위해 나서다

해저 탐험가 Scott Cassell과 아웃도어 시계 브랜드인 루미노스가 바다를 살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까지 50km를 잠수로 건넌 Cassell이 루미노스가 마련한 해양 보호 이벤트에 'SAVE THE SEAS'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잠수에 나선 것이다. 루미노스와 Cassell은 바다사자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통해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행사를 펼쳤다. 루미노스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525 Scott Cassell Special Dive Watch를 출시한다. 이들의 격한 바다 사랑을 느껴보자.

문의 미림시계(02-757-9866, www.luminowatch.co.kr)



커피원두로 맛과 향을 높인 KT&G 레종 카페 출시

KT&G에서 필터 속에 실제 커피 원두를 넣은 레종의 신제품 레종 카페(RAISON Cafe)를 출시했다. 부드러운 헤이즐넛 향이 풍부한 레종 카페는 KT&G가 4년의 개발 노력으로 필터 안에 원두 알갱이를 직접 넣는 기술을 개발하여 완성한 담배다. 브라운 컬러의 패키지에 세련된 고양이 캐릭터와 커피잔, 커피 원두를 함께 표현한 팩은 레종의 아가자기한 디자인 감성까지 담아냈다. 기존 라인인 주황, 파랑, 회색 등의 원색 레종들과 레종 에어로에 레종 카페까지,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졌다. 아메리카노 아니, 레종 카페 한잔 조아~조아~조아!

가격 2,500원



메리케이(MARY KAY)의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피부 솔루션 화장품 브랜드 메리케이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할 보다 전용 선크림 SPF 50+ 선크림을 출시했다. SPF 50+ 선크림은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암과 노화 주범인 UVA, UVB를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적인 제품이다. 여름휴가철 물놀이를 즐기거나 야외 운동 시 물이나 땀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 최대 80분 동안 땀바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니 여행 가방을 꾸릴 때 꼭 챙기자.

가격 39,000원(118mL) 문의 메리케이(www.marykay.co.kr)



한층 더 강력해진 멘솔, 마일드세븐 옵션 출시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는 기존의 멘솔 담배보다 더욱 강력한 마일드세븐 옵션을 선보인다. 마일드세븐 옵션은 마일드세븐의 첫 번째 캡슐 기술을 적용한 멘솔 담배로, 필터 속 옵션 프레스 볼을 터뜨리면 더욱 강력해진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마일드세븐 특유의 부드러운음은 그대로 살리면서 청량감을 높였기 때문에 기하 '혁신'이라 말할 수 있다. 화려한 블랙 컬러와 감각적인 그린 컬러가 어우러진 패키지는 이러한 혁신의 조화를 디자인으로 말해준다. 마일드세븐은 소비자에게 좀 더 완벽한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해 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소프트한 청량감, 마일드세븐 옵션을 만나보자.

가격 2,700원 문의 JT코리아(080-777-7727)

스웨거(SWAGGER), 헤어 스테너 왁스 출시

스웨거에서 강한 남자를 위한 헤어 스테너 왁스를 출시했다. 강력한 세팅력에도 불구하고 물만으로도 씻겨지므로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강인한 검정 알루미늄 캔 디자인과 남성적인 향은 상남자의 포스를 푹푹 풍긴다. 게다가 머리의 왁스를 행궀내면 손에 기분 좋은 향이 남는다. 스웨거 헤어 스테너 왁스를 이번 여름 강한 마초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

가격 2,500원 문의 스웨거(www.swagger.kr)



올 여름 실내에서 놀자. 야구 테마파크로 GO!

야구를 사랑하는 커플이라면 식상한 여름휴가보다 양재 aT 센터에서 열리는 홈런 페스티벌이 백 배 나을지도 모른다. 공을 치고, 던지고, 달리는 체험을 통해 야구의 '야' 자도 모르는 여자사람도 쉽게 야구를 배울 수 있다. 경기를 보면서 그녀에게 일일이 물을 설명하는 귀찮은 일도 사라지겠지? 남녀노소 함께 놀기에 최적화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올 여름 휴가 계획은 홈런 페스티벌로 딱 정하는 거다양?

문의 홈런페스티벌(1588-7890, www.homerunfestival.com)



아름다운 전투 병기의 유혹, <퀸스블레이드> 드디어 출격!

판타스틱한 배경과 섹시한 여성 캐릭터로 꾸며져 이미 화제를 끈 MMORPG 게임 <퀸스블레이드>가 드디어 OBT를 시작했다. 아름다운 6명의 여성 캐릭터가 메카닉 병기로 변신하는 맥스마이징 시스템과 코어 소모를 극소화한 파워드라이머 시스템은 전투력을 극대화해 파워풀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또 진영 간의 전투인 아누스와 턴 파이크는 대형 전투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게 설계되었다. 아이상젠 같은 섹시한 캐릭터가 가득한 <퀸스블레이드>! 게임계의 6인조 여성 아이들을 찾아 떠나볼까?

문의 라이브플렉스(02-3446-1711, queens.kr.gameclub.com)



트라이, 바캄스 Cool 란제리 세일

트라이가 소비자의 휴가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7월 25일부터 8월 15

일까지 진행되는 란제리 세일 세일 기간동안엔 트라이에서 선보이고 있는 사빌, 체리 등 란제리 제품이 50~70%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휴가철 서랍 안에 작년엔 구입한 고질고질한 속옷만 있다면 트라이 할인 행사장에서 질 좋은 새 제품으로 갈아타 보자. 산뜻한 새 속옷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될 거다. 행사는 전국 트라이 전문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문의 생방울 (02-3485-6130~1, www.sbw.co.kr)



군필자 초특급 우대 프로젝트

국토를 수호한 그대의 노고를 MAXIM은 잊지 않아!



나라 지키느라 피같은 젊음을 활활 불살랐건만, 이 놈의 세상은 고마워하긴 커녕, 군바리라고 무시하질 않나, 온갖 조롱의 대상으로 삼길 않나, 심지어 있어야 마땅한 각종 군필자 가산점 제도도 모조리 폐지해버렸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야 말이 되나. 세상이 아무리 말도 안되게 돌아간다 해도 MAXIM만은 군필자를 초 우대하겠다! 대한민국 장병들이여! 다음달에 공개할 MAXIM의 군필자 정기구독 가산 PROJECT를 기대하라.

대략의 계획

하나, 앞으로 전역하는 군필자 평생 정기구독 대박 할인!
둘, 전역신고 코너 신설할테니, 그대의 전역을 전국에 알리고, 전 군의 부러움을 사려!
셋, 무사히 전역한 그대를 위한 선물!
넷, 눈에 밝히는 후임들을 위해 그대의 이름으로, 과월호 한보따리를 후임들이 있는 부대로 보내주겠다!

다음달 MAXIM을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

이달의 도전 과제

BEAT THIS CAPTION

WINNER

지난달 우승자



이번 달 우승자는 닉네임이 강렬한 '팔팔팔빙수' 독자님이다. 당신의 캡션은 그저 그랬다. 사실 캡션보다는 닉네임 때문에 당첨된 거다. 그냥 빙수는 여름에 목을 축여줄지 모르지만 이 빙수는 아랫도리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응모하기

1. 위 사진에 채지 있는 말풍선을 달아라. 그리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옥체에서 빛이 난다!
2. 응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에게 **삼국전 진 상열제 용장 유비 건담(응원보적으로) 프라모델**을 선물로 주겠다.



말풍선 달러가기



프리뷰 좌석점유율 90%! 전회 기립박수! 찬사와 감동의 관람후기 넘쳐!



극의 절정 부분, 죽음의 문 앞에 섰던 그가 힘껏 팔을 뻗으며 일어날 때,
당신도 벌떡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고 싶어질 것이다. - 조선일보 -

무대설치와 조명, 잘 짜인 앙상블 등 거의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익살과 해학으로 버무린 '돈키호테 공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일보 -

웃음과 감동의 조화 '명불허전'. 이름값을 하는 뮤지컬이었다. - 서울신문 -

연기력, 노련미, 가창력 '3색 무기' 돈키호테들! - 한겨레 -

달콤한 선율과 세련된 연출, 깔끔한 구성 등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 - 주간동아 -



돈키호테
황정민

돈키호테
서범석

돈키호테
홍광호

세르반테스 소설 '돈키호테'의 화려한 부활!

스캔하고
티켓받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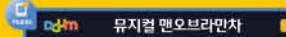
브로드웨이 불후의 명작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MAN OF LA MANCHA

샤롯데씨어터 Now Playing

주최 LOTTE ENTERTAINMENT SBS 제작 CJ E&M OD오디뮤지컬컴퍼니 주관 오픈리뷰(주) KHM BOM 협찬 LOUNGE 후원 DDM

예매 인터파크 | 오픈리뷰 | 11번가 | 예스24 | 옥션 | 티켓링크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www.openreview.co.kr



MAXIM



KOREA

ICON: ANDERSON SILVA

지난 5년간 그에게서 UFC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 위한 모든 도전과 노력은 허사였다. 그를 씹어먹을 기세로 링에 오른 모든 파이터들이 몇 분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전의를 상실한 채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이다.

이달의 문학 산책
귀를 기울이면

OLYMPICS

국대 사진전(구자철 선수에겐 보여주지 말 것)
올림픽 테마 게임: 우리 방구석에서 달린다!
MISS MAXIM과 함께 올림픽 진기록 되새김질
이번 달 맥주 얘기는 영국으로 가버려!
MAXIM은 올림픽 화보 같은 거 안 찍어.
대신 영국 미녀를 벗긴다!

MOVIE

신체 강탈자의 침입
<다크 나이트 라이즈> 제대로 알고 보기
앤 해서웨이, 가슴을 열어라!
SF 제왕 필립 K. 딕의 원작 소설 VS 영화

MILITARY

전투 로봇 터미네이터 진짜로 상용화
100억도 안 하는 슈퍼전차 K-2 흑표

GIRL

MAXIM INDIA: 인도 여자가 이래?
이달의 신인 발굴: 타히티 신지수
MISS MAXIM 5호, 6호 대공개!
곽현화의 나쁜 화보

AUGUST 2012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